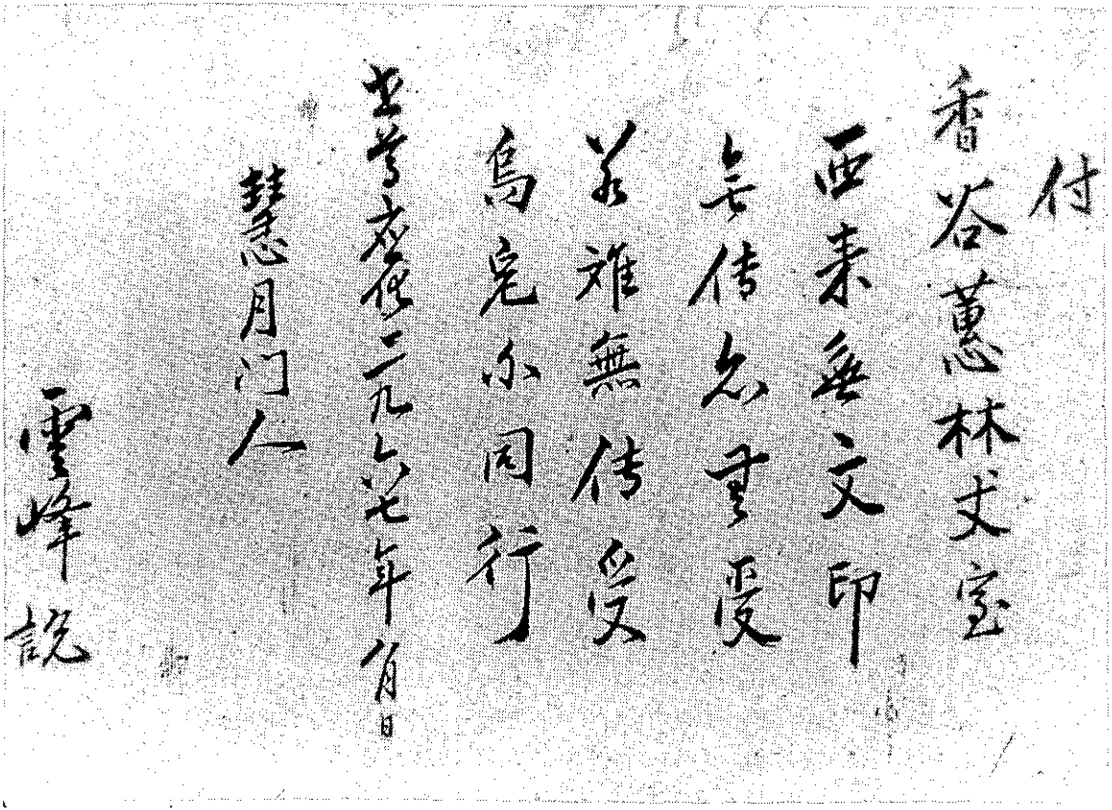
香谷禪師法語集

香谷蕙林禪師眞影


付 香谷蕙林丈室

西來無文印
無傳亦無受
若離無傳受
烏兔不同行

世尊應化二九七七年 月 日

慧月門人
雲峰說

傳法偈

香谷禪師 浮屠 및 碑

題 香谷禪兄法語

碧海神珠요　荊山寶玉이라
照耀乾坤하고 呑吐日月이로다。
木人이 放歌하고 石女起舞하니
松直蕀曲이요 鵠白烏黑이로다。
會麼아。
閃爍劒光이　走雷霆하니
血流滔滔須彌頂이로다。

辛酉四月 道友 性徹 和南

황녕신령의 뫼ᄋᆞᄒᆞ 봄

푸른 바다의 신기한 구슬이오
종산 ᄯᅡᆼ이 보배 옥돌이라
하늘과 ᄯᅡᆼ을 비추어 환하게 밝고
ᄒᆡ와 ᄃᆞᆯ을 ᄉᆞᆷ키며 토ᄒᆞᄂᆞ니다。
나무장승 노래하고 돌여자 춤을 추니
소나무 곧이며 가지뻗을 굽고
ᄲᅡ오기 ᄒᆞ며 ᄭᆞ마귀 ᄌᆞᆷᄂᆞ다。
알겠는가?
번쩍번쩍 하는 칼빛이 빠른 찬봉을 달음박질 치게 하니
봄인 꽃 물결이 수미산 꼭대기에 넘쳐 흐르나이다。

신약사월 보아 정결 화남

目次

題 香谷禪兄法語集 …… 九

上堂(상당)

大死却活(대사각할) …… 二一
一句消息(일구소식) …… 二三
德山托鉢(덕산탁발) …… 二六
蒼天蒼天(창천창천) …… 三二
兩路不踏(양로부답) …… 三四
魂飛膽喪(혼비담상) …… 三五

乾峰穩坐(건봉온좌) …… 三八
若論此事(약논차사) …… 四一
向上一路(향상일로) …… 四三
會卽便會(회즉편회) …… 四六
得大法眼(득대법안) …… 四九
箭過西天(전과서천) …… 五〇
五種三昧(오종삼매) …… 五二
恁麼作用(임마작용) …… 五七
南泉斬猫(남전참묘) …… 六〇
參學事畢(참학사필) …… 六四
分明看得(분명간득) …… 六六
殺活刀劒(살할도검) …… 七〇
常恁麼用(상임마용) …… 七二

示衆(시중)

如來禪祖師禪(여래선조사선) …… 七九
山是山水是水(산시산수시수) …… 八五
鴨下水鷄上樹(압하수계상수) …… 九七
第一及第二門(제일급제이문) …… 一〇一
無縫塔見還難(무봉탑견환난) …… 一〇七
明頭來明頭打(명두래명두타) …… 一一三
叩齒三下何必(고치삼하하필) …… 一二四
尊侯起居萬福(존후기거만복) …… 一三〇
摘楊花摘楊花(적양화적양화) …… 一三七
文殊淸淨道場(문수청정도장) …… 一四一
世尊良久法門(세존양구법문) …… 一四五

道不屬知不知 (도불속지부지) …… 一五三
觀法王法如是 (관법왕법여시) …… 一五九
紅爐裡一點雪 (홍로리일점설) …… 一六四
大寶鏡放毫光 (대보경방호광) …… 一六九
淸淨眞如眞佛 (청정진여진불) …… 一七四
一拳倒黃鶴樓 (일권도황학루) …… 一八四
一手擡一手搦 (일수대일수익) …… 一八九
古祖入道機緣 (고조입도기연) …… 二〇一

擧揚(거량)

最善把針 (최선파침) …… 二一一

巖頭密啓(암두밀계)……二一二
起死回生(기사회생)……二一三
一拜再拜(일배재배)……二一五
南泉水牛(남전수우)……二一六
古澗寒泉(고간한천)……二一七
百鳥啣花(백조함화)……二一八
難擧全擧(난거전거)……二一九
獅子一吼(사자일후)……二二〇
瞎却萬人(할각만인)……二二三
師資問答(사자문답)……二二三
機緣語句(기연어구)……二二七

頌句(송구)

五言

西來一句(서래일구)……二三七
圓相佛性(원상불성)……二三八
打破乾坤(타파건곤)……二三九
庭前栢樹(정전백수)……二四〇
面南看北(면남간북)……二四二
五臺寶宮(오대보궁)……二四三
桃李舍利(도리사리)……二四四
白鳥長江(백조장강)……二四六

七言

忽見兩手(悟道頌)(홀견양수)……二四九

忽然豁開(홀연활개)……二五一
虛空粉碎(허공분쇄)……二五二
虛空骨中(허공골중)……二五三
一條拄杖(일조주장)……二五四
趙州無字(無字頌)(조주무자)……二五五
扣骨禪和(구골선화)……二五六
忽然打破(홀연타파)……二五七
花紅柳綠(화홍류록)……二五九
桃李感懷(도리감회)……二六〇
雉岳山吟(치악산음)……二六一
伽倻山頌(가야산송)……二六二
四大本空(사대본공)……二六三
一句當當(일구당당)……二六四

三目石人(삼목석인)……二六五
三頭六臂(삼두육비)……二六六
七珍八寶(칠진팔보)……二六七
塵劫不動(진겁부동)……二六八
石人忽聞(석인홀문)……二六九
達摩祖師(達摩頌)(달마조사)……二七一
天心明月(慧可頌)(천심명월)……二七五
雲老行處(忌辰頌)(운노행처)……二七六
哭香谷兄(곡향곡형)……二七七
序 雲峰禪師語錄……二七九
答一陀上人書……二八五
碑 文……二九三

上堂(상당)

大死却活

夫參學之人은 必須死中得活하여야 始得自在無碍니 所以로 趙州가 問投子하되 大死之人이 却活時에 如何오 하니 投子答云하되 不許夜行이요 投明須到니라 하고 又 古人云하되 殺盡死人하여야 方見活人이요 活盡死人하여야 方見死人이라 하니 大死一翻後에는 石人이 吹玉笛하고 木女가 醉歌舞하리라。

若也分明會得하면 三世諸佛과 歷大祖師와 文殊普賢과 千聖萬聖의 自在受用處를 一一了了明白하리니 還會麼아。

頌云하시되、

透過威音那邊外하니 天長地久別有村이로다。

喝一喝하시고 便下座하시다。

(壬辰年 仙岩寺 冬安居)

『대저 참선 공부하는 사람이 반드시 죽음 속에서 삶을 얻어야 비로소 자재무애를 얻을 것이니, 그러기에 조주스님이 투자스님에게 묻기를 「완전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을 적에 어떠합니까?」하니 투자스님 말씀이 「밤길을 가지 말고 밝거든 걸지니라.」하였으며, 또 고인의 말씀에 「죽은 사람을 죽여 다 하여야 바야흐로 산 사람을 볼 것이요, 죽은 사람을 살려 다 하여야 바야흐로 죽은 사람을 볼 것이니라.」하였으니, 완전히 죽었다가 한 번 뒤집힌 다음에는 그 사람이 우리들 보고 나무 제자야 술이 취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리라. 만약 이같이 분명히 알아 졌다면 삼세제불과 역대조사와 만수보살과 천 성인 만 성인이 자재하게 수용하는 곳을 낱낱이 명백하게 알 것이니, 알겠는가?』 송하기를

위음왕불 저쪽 세계를 투과하고 바라보니
평화스런 마을이 또 하나가 있더니라。
「할」을 한 번 하고 내려 오시다。

(임진년 겨울안거 선암사에서)

一句消息

上堂하시어 良久하신 後에 擧拄杖子하여 擊禪床一下하시고云하시되 未擧以前一句는 三世諸佛과 歷代祖師도 切忌擧著이어니와 良久·棒喝·擧佛子는 落在甚麼處며 ○⊙⊙은 又作麼生고。若人이 這裡에 明白透過하면 最初句와 末後句와 向上句와 向下句와 諸方差別三昧를 一時에 透頂透底하여 盡大地十方世界와 森羅萬像과 草芥人畜과 有情無情을 著著

全彰自己家風하나니 到這境界하여는 釋迦達磨와 文殊普賢과
馬祖石頭와 臨濟德山과 趙州雲門은 是什麼人고。
三世諸佛도 火裡雪이며 歷代祖師도 起骨堆로다。
當恁麼時하여는 天是天地是地요 山是山水是水요 有時에는
喚天作地하고 喚地作天하며 有時에는 喚山不是山이요 喚水
不是水니라。畢竟에 作麼生고。良久云
春來에 草自青이니라。
喝一喝하시고 便下座하시다。

(己酉年 妙觀音寺 冬安居)

법상에 오르시어 한참 묵묵히 계신 다음 주장자를 들어 법상을
한 번 내려치시고 말씀하시되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만들며, 어떤 때는 산이라 해도 산이 아니요 물이라 해도 물이 아니라. 필경에 어떠한 것일까?』 한참 묵묵히 계시다가 이르시되

봄이 오면 풀은 스스로 푸름이니라.

「할」을 한 번 하시고 문득 자리에서 내려 오시다.

(기유년 겨울안거 묘관음사에서)

德山托鉢

陞座良久後에 擧拄杖子一下하시고 振聲一喝云하시되 大衆은 還會麼아. 今日山僧이 爲大衆하여 通個消息하리라 하시고 頌云,

須彌倒卓半空中하니 三世佛祖失鼻孔이로다.

若論此事인댄 殺活自在人이라야 方名大丈夫漢이라 하리니 一

發에 透過萬重關하여 大解脫과 大休歇과 大自在와 大安樂이 萬劫에 嵬嵬當當하여야 始得다。近來工夫之人은 見聞覺知와 門頭光影의 情解神識으로 以作本來人하니 可悲可歎이로다。

古人云하되 末後一句라사 始到牢關이라 하니라。德山會上에 雪峯이 作飯頭次에 德山이 托鉢하야 下堂이어늘 雪峯이 云하되 這老漢이 鍾未鳴鼓未響한데 托鉢向甚麼處去오 하니 德山이 無語하고 低頭歸方丈이라。雪峰이 擧似岩頭한대 岩頭가 道하되 大少德山이 未會末後句로다 하니라。山이 聞하고 令侍者로 喚至方丈하여 問云 汝不肯老僧那아。頭 密啓其語러니 山이 至來日上堂하나 與尋常不同이라。頭가 於僧堂前에 撫掌大笑云 且喜라。老漢이 會末後句로다。他後天下人이 不奈他何하리라。雖然如是나 只得三年이로다。後日에 明招獨眼龍이 云하되

我若在當時런들 應答하되 咄咄沒去處라 하리라 한대 雪竇拈云
하되 曾聞說箇獨眼龍漢이 元來只有一隻眼이라 殊不知德山
是箇無齒大蟲이로다。若不是岩頭識破면 爭知得昨日與今日
不同이리요。

諸人은 要會末後句麼아。只許老胡知하고 不許老胡會라 하니
這一句를 分明透得하면 自古及今의 千差萬別三昧公案을
一時에 透得去하여 天下人이 亦不奈何하며 三世諸佛과 歷代
祖師가 立在下風하리니 諸人은 珍重珍重하라 하시고 頌云、

不到最高峯이면 爭知許多事리요。

喝一喝後에 便下座하시다。

(庚戌年 冬安居結制)

법좌에 올라 양구하신 후에 주장자를 들어 한 번 내려치시고 선리를 잠깐 한 번 「할」을 하고 말씀하시기를 『대중이 알겠느가?』하시고 『내가 대중을 위해 이 날 소식을 통하게 하리라。』하시고 게송을 읊으시되

수미산이 반 공중에 꺼꾸러지니

삼세불조가 콧구멍을 잃었도다。

『만약 이 일을 논한다면 살활을 자재로 하는 사람이라야 바야흐로 대장부라고 이름하리니、한 번 깨친 저 일만 생이 백만을 뚫어 지나서 대해탈과 대휴헐과 대자재와 대안락이 만족해 여여당당하여 비로소 될 것이니라。그대 공부하는 사람들은 보고 듣고 느낌과 앎이 분명히 나타나는 곳과 그 면전의 일음일이를 가지고 반조인을 삼아 살피고 통찰할 일이로다。

고인이 말씀하되 「말후의 일구라사 비로소 구경에 관문에 이르

른다。」고 하시니라。

덕산스님 회상에 설봉스님이 공양주를 하시는데 하루는 덕산방장스님이 바리때를 가지고 식당으로 내려오시거늘 설봉스님이 보고 말하기를 「저 늙은이가 종도 치지 않고 북도 울리지 않았는데 바리때를 안고 어디를 가는고?」하였다。 덕산스님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말 없이 머리를 숙이고 방장실로 돌아 가셨다。 설봉스님이 이 일을 암두스님께 이야기했더니 암두스님이 말하기를「그저 그만한 덕산 방장이여、말후구를 알지 못했구나」하였다。 덕산스님이 이 소리를 전해 듣고 시자를 시켜 암두스님을 방장실로 불러 묻되 「네가 나를 긍정하지 않느냐?」 하니 이에 암두스님이 은밀히 그 말을 속삭였다。

다음날 덕산스님이 상당하나 평소와 같지 않은지라 암두스님이 승당 앞에 이르러 손을 비비고 크게 웃으며 이르되、「기쁘구나。

노한(老漢)이 비로소 말ᄒᆞ구를 알앗구나。이후 천ᄒᆞ인이 그를 ᄋᆞ
ᄌᆡ지 못ᄒᆞ리라。비록 이와 ᄀᆞᆮ이나 만지 3년을 더ᄒᆞᆯ 것이다」ᄒᆞ
얏다。뭇ᄉᆞᄅᆞᆷ이 평초시님이 말ᄒᆞ기를「노가 만ᄒᆡᆼ 만ᄉᆞᄒᆞ 얏얏더니,
ᄒᆞ로ᄂᆞᆫ 천곳이 업구나, ᄒᆞ리라」ᄒᆞ엿ᄂᆞ데, 천ᄂᆞ시님이 이것을 가지
고 말ᄉᆞᆷ ᄒᆞ기를「평초시님은 원래로 외좌 논이라 ᄒᆞ더니 며칠시
님이 그래도 엇지 업ᄂᆞᆫ 의관이 옷을 모ᄅᆞ셧던가? 만ᄒᆡᆼ히 어ᄅᆞ시님
의 알고 젼이 ᄋᆞ니얏더니 ᄋᆞᄌᆞ ᄋᆞᄌᆡ여 어ᄂᆞᆯ이 찬지 얌음을 알앗
이리여」ᄒᆞ엿더니라。여좌들은 말ᄒᆞ구를 알앗ᄂᆞᆫ가?「다만 노호(老
胡)가 알기(知)를 ᄒᆞ랴ᄒᆞ고 노호가 이회(會)ᄒᆞ기를 ᄒᆞ랴지 아
니 ᄒᆞᆫ다」ᄒᆞ니, 영가 이 ᄒᆞᆫ마디를 말ᄒᆞᆫ ᄯᅡ라ᄒᆞ면 여러파며 지금
까지의 천차만별ᄒᆞᆫ 착각 ᄆᆡᆼ한을 일시에 ᄯᅡ라 ᄂᆞ아 천ᄒᆞ인이 그
를 ᄋᆞᄌᆡᄒᆞ지 못ᄒᆞᆯ 것이며, 착각ᄌᆞᄉᆡᆨ과 ᄆᆡᆼ한조차도 ᄀᆞ ᄯᅡ라 ᄋᆞᆺ게

될 것이니 대중들은 진중 진중 할찌니라』 게송을 읊으시되

최고봉에 올라가지 못했다면
어떻게 허다한 일을 알 것인가?

「할」을 하시고 하좌하시다。

蒼天蒼天

(경술년 동안거 결제)

陞座良久云하되

纔動著開口하면 落在二三頭하나니 如何免得去오。 到這裡하여는 佛也說不得이니 還會麼아。 山僧이 今日에 爲大衆하여 露箇消息하리라 하시고 云하되 蒼天蒼天하시고 又呵呵大笑後에 還會麼아。 頌云、

將軍戰馬今何在오 月落三更穿市過로다。
便下座하시다。

법좌에 오르시어 양구하고 말씀하시되 『지아 입을 열었다 하면 벌써 제이 제삼 구 끝에 떨어지는 것이니 어떻게 하면 이것을 면할 것인가? 여기에 이르러서는 부처도 말할 수 없고 일천 성인 일만 성현이 모두 말할 수 없을 것이니, 알겠는가? 산승이 오늘날 대중을 위해 이 소식을 들어 보리라。』갑자기 소리쳐 『창천 창천』(아이고 아이고)하시고 「하하 대소」를 하신 다음 게송을 읊으시되,

장군의 전쟁하던 전마 어디 갔노。
달은 져서 삼경인데 저자 앞을 지나가네。

하시고 자리에서 내려오시다。

兩路不踏

陞座良久하사고 擧拄杖子云하시되

恁麼也恁麼也하니 三頭六臂요 七縱八橫이로다。不恁麼也不恁麼也하니 山崩海竭하고 乾坤失色이로다。大衆은 不踏此兩路하고 作麼生道得고。大衆이 無對어늘 師頌云하시되、

撤手威音那邊外하니 地久天長海更深이로다。

便下座하다。

(戊申年 桐華寺 冬安居)

법좌에 올라 「양구」하시고 주장자를 들고 말씀하시되、

『「이렇게 이렇게」 하니 삼두육비 가진 놈이 종횡무진 설쳐대고 「안 이렇게 안 이렇게」하니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마르며 건

곤이 빛을 잃도다。 대중들은 이 두 길을 밟지 않고 어떻게 이르겠는가?』 대중이 답이 없거늘 게송을 읊으시되、

손을 털고 위음왕불 저쪽을 바라보니

땅은 오래요 하늘은 길고 바다는 다시 깊었도다。

하시고 자리에서 내려 오시다。

(무신년 동안거 동화사에서)

魂飛膽喪

若論此事인댄 三世諸佛도 喪身失命하고 歷代祖師도 魂飛膽喪하며 文殊普賢도 飮氣呑聲하고 乃至千聖萬聖도 倒退三千里하나니 到這裡하야는 什麼人이 活得去오。

有人이 分明活得去하면 百千法門과 無量三昧와 恒沙妙用과 重重公案과 佛祖一切差別深深機關을 透頂透底하여 即下에 大丈夫能事畢하여 一切處一切時에 轉身活機하여 吐出一言一句와 一機一境하면 自然電光罔通하고 石火不及이라

是故로 古人云하시되、

莫怪從前多意氣하라 他家曾踏上頭關이라。

若不如是인댄 抑不得己하야 九十日中에 更加發大信心大疑心大勇猛心하여 頓入無心三昧하면 如木人石女相似하야 心身頓忘處에 觸着一機一境上하여 豁然大悟하면 歷劫無明이 當下에 氷消瓦解하고 百千萬劫에 不昧生死하야 萬劫自在無碍하며 億劫圓通圓明하여 獨步乾坤하리니 珍重珍重하라。

喝一喝하시고 下座하시다。

만약 이 일을 논한다면 삼세제불도 상신실명하고 역대조사도 혼이 날고 쓸개가 없어질 것이며、문수 보현보살들도 숨을 죽이고 말을 못할 것이며、내지 일천 성인 일만 성현 누구나가 다 삼천리 밖으로 물러갈 것이니 이 속에서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어떤 사람이 분명히 살아 남기만 하면 백천 법문과 무량삼매와 항하사 같은 묘용과 중중한 공안과 일체 차별의 깊고 깊은 기관을 꼭대기에서 밑바닥까지 확철히 뚫어내서、단박에 대장부 할 일을 끝마쳐서 일체처 일체시에 산기틀을 움직여 한 말씀 한마디와 한 기연 한 경계가 자연히 번개빛도 통할 수 없고 번쩍하는 석화도 미치지 못하리라。고인이 말씀하되、

「종전에 애쓰던 일 무엇했나 하지말라。

그 사람은 일찌기 상두의 관문을 통했느니라。」

하셨으니 이렇게 되지 못한 사람은 또한 부득이해서 구십 일중

에 대신심과 대의심과 대용맹심을 더욱 더 발심하여 몰록 무심삼매에 들어가 나무사람이나 돌여자 같아 몸과 마음을 몰록 잊어버리는 곳에서 한 기연 한 경계에 부닥칠 때 활연대오를 하면 영겁 다생의 무명업식이 당장에 얼음 녹듯 풀어지고 백천만겁을 생사에 매하지 아니하여 만겁에 자유자재하게 걸림 없으며 억겁에 원만 통달하고 원명하여 독보 건곤하게 되리니 진중 진중 하라。』 하시고 내려 오시다。

乾峰穩生

上堂하시어 拈拄杖子하시고 良久云하시되 昨日恁麼도 事不獲己요 今日恁麼도 草深一丈이라 敢問大衆하노니 還有衆中에 爲山僧洗足者麼아 若有어던 出衆來하라。大衆無對하니 師

云、

一日에 乾峰이 上堂云하시되 法身에 有三種病과 一種光하니 須是一一透過하여야 始解穩坐處라 雖然如是나 更須知有照用同時向上一竅하여야 始得다 하니 雲門出衆云하되 庵內人이 爲什麼하야 不見庵外事닛고。師呵呵大笑어늘 門云하되 猶是學人疑處在니다。師云하되 是什麼心行고。門云하되 也知和尙相委悉이니다。師云하되 直須恁麼라사 始解穩坐處니라。門이 應喏喏라 하니 大衆은 還會麼아。頌云、

愁人莫向愁人說하라 說向愁人愁殺人이니라。

便下座하시다。

(丁未年 桐華寺 冬安居)

법상에 오르시어 주장자를 잡고 한참 계시다가 말씀하시되『이
자체 이러했던 것도 아닐 수 없었던 것이여, 오늘날 이러하며 볼
수 없는 일이라, 잠시 대중에게 묻노니 이 대중 속에 신심을 위
하여 법을 찾아 줄 자가 있는가? 있으면 나와 보라』하시고 대중
이 대답이 없으니 혀를 차며 말씀하시되,

『옛날에 진봉스님이 말씀하기를 「법신에 세 가지 평등함이 한 가
지 뜻이 있으니 모름지기 날날이 밝혀 보아야 비로소 「편안한 앉
은 곳」을 알 것이다。 비록 그러나 다시 조(照)와 용(用)이 동시
가 되는 향상의 한 구멍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셨는
데 그때 안면스님이 나와 말하기를 「앉아 앉아 있는 사람이 어찌
하여 앉아 바로 일을 보지 못합니까?」하매 진봉스님이 「쯧쯧」 웃
이셨다。 안면스님이 다시 말하기를 「아직 그래도 저는 의심나는
곳이 있읍니다」 진봉스님이 「이 무슨 용심인고」 하니 안면스님

이「스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하심에 진부스님이 「바로 모를지기 이렇게 떠오르는 바로서「편안히 앉은 곳」을 알 것이다。」하심에 운문스님이「예, 그렇습니다。」하였으니 대중은 알겠는가?』 게송을 읊으시되,

근심하는 사람에게 걱정거리 말 말아라
걱정거리 말 하다간 근심이 사람 죽이느니。

하시고 자리에서 내려 오셨다。

(정미년 동화사 동안거)

若論此事

若論此事인댄 一向壁立千仞하야 目視雲霄去하면 辜負諸祖聖恩이요 一向淺草平田하야 灰頭土面去하면 埋沒自己니

作麼生決斷하여야 始道得고。師頌云하되

寂寂寂深深深인데 窮谷山鳥弓弓弓이로다。

又頌하되

白日은 繞須彌하고 紅霞는 穿碧海로다。

喝一喝하고 便下座하시다。

(戊申年 妙觀音寺 冬安居)

『만일 이 종문사를 말하자면 일향에 벽에 칼날을 세워 놓듯 너무나 엄중하게 다루어 상근기만 택하려 함도 모든 조사 성인들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요, 그렇다고 또 일향에 땅바닥 들바닥에 재머리 흙 얼굴로 자비만 베풀다가는 자기의 가풍을 매몰시키는 것이리니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옳겠는가?』 게송을 읊으시되

깊고 깊고 깊은 산중

적적하고 적적한데
궁곡산중에 우는 새는
궁궁궁! 궁궁궁!
이라 하시고 또 거듭 읊으셨다。
백일(白日)은 수미산을 감돌고 있고
붉은 안개는 푸른 바다를 꿰뚫고 있네。
한 번 「할」을 하고 내려 오셨다。

(무신년 동안거 묘관음사에서)

向上一路

上堂 良久云、
大衆은 會麽아。 大衆無對하니 頌曰、

鄕關萬里나 乾坤窄이요 日月星辰도 黑茫茫이로다。

假使棒如雨點하고 喝似雷霆이라도 也未當得向上宗乘中事니라。三世諸佛도 只可自知요 歷代祖師도 全提不起며 一代藏教도 詮註不及이요 明眼衲僧도 自救不了며 佛之一字도 拖泥帶水요 禪之一字도 滿面慚愧니라。

假使三世諸佛과 歷代祖師와 文殊普賢과 天下善知識과 千聖萬聖이 說盡未來際하여도 毫釐不及이며 萬里懸隔이라 是故로 句外에 明宗하고 機外에 明旨하야사 始得다。

到這裏하야는 纖毫有佛見法見이라도 箭過西天이니라。畢竟에 作麼生고

啼得血淚無用處라 不如緘口過殘春이로다。

便下座하시다。

상당양구하시고 이르시되『대중은 알겠는가?』 대중이 말없으니 송하기를

고향길이 만리건만 하늘과 땅은 좁기만 하고
밝은 해와 달과 별도 어둡기만 하구나。

『설사「방」을 쓰기 빗방울 같이 하고「할」을 하기 우뢰소리 같이 하더라도 또한 향상의 종승사와는 당치도 않는 것이니 삼세제불도 혼자 알 뿐이요、역대조사들도 온전히 잡들지는 못할 것이며 일대장경으로도 주석을 달지 못할 것이요、눈 밝은 납자도 별수 없는 것이며、「부처」라는 한마디도 인정에 끄달린 소리며「선」이라는 한 글자도 부끄러움 덩어리니라。가령 삼세제불과 역대조사와 문수 보현과 천하의 선지식과 일천 성인 일만 성현이 미래제가 다하도록 설한다 해도 털끝만큼도 미치지 못할 것이며、만리 길이나 멀리 틈이 벌어지는 것이라。 그러므로 언구 외에 종

지를 밝히고 기를 밖에 그 의지를 밝혀야 비로소 되는 것이다。
이 속에 이르러서는 털끝 만치라도 부처라는 소견이나 법이라
는 소견이 있다면 벌써 화살은 서쪽 하늘을 지내 감이라。 필경
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일까?』

피눈물이 나도록 울어도 소용이 없네。
입을 닫고 남은 봄을 보냄만 못하리라。

하시고 문득 자리에서 내려오시다。

會即便會

陞座良久하시고 擧拄杖子一下云 會即便會요 停思擬念하면 萬里千差니라。

參禪은 要破祖師關이요 妙悟는 永超生死海라。生死心을

永破하면 第八無明根本識이 即下에 氷消瓦解하고 歷劫無明業識煩惱가 頓盡頓淸하리니 若悟此心하면 菩薩心菩提心과 佛見法見이 頓亡無餘하여 寂滅現前하고 般若大智가 朗然獨存하여 恒沙妙德이 本自具足하고 體自如如하며 用即無窮하고 取即無竭하며 開解脫門하여 用自在世界니 大衆은 還會麼아。

白鳥下長江하고 孤雲生遠峀로다。

喝一喝하시고 便下座하시다。

(天鏡林 興輪寺)

자리에 올라 양구하시고、 주장자를 한 번 내려치시고 이르시되、

『알았다 하면 단박에 알 것이지 생각해 보고 따져본다면 벌써 만리 길에 천가닥이나 어긋나는 것이니라。

참선은 조사관을 타파해야만 하는 것이요、 깨쳤다 하면 영원히

생사해를 초월하라 하니라。생사심을 타파했다면 제 몸 근본
여래장성이 당장에 얼음녹듯 풀어지고, 영겁다생의 무명업식도 번
뇌가 몰록 다해서 없어지리니 만약 이 마음을 깨달으면 보살심 보
리심과 부처니 범부이니 하는 소견이 단박에 없어져서 처음부터
이 나타나고, 본성의 대자재가 환하게 여법하여 한량없는 광명이
구족하게 되고, 그 자체가 영원하여 아무런 흠도 나지 않고 아
무런 침해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해탈문을 열어서 자유자재한
세계를 수용하게 될 것이니 대중들은 알겠는가?』하시고 게송을
읊으시되

배주는 장강으로 내려가는데
마봉산 저 구름은 만산중에 엉켰어라。

「할」을 한 번 하시고 법상을 내려오시다。

(향봉선화자)

得大法眼

上堂云하시되 有人이 忽然大悟하면 得大法眼하여 得無邊身하며 得無盡藏恒沙法門하고 無量百億世界에 得百千萬億諸佛菩薩의 深深微妙法門하며 乃至天下老和尚의 無盡法門이 悉在自己王庫内하여 自由自在去리라。頌云、
翻身踏著上頭關하니 放出獅子三脚兒로다。
喝一喝하고 便下座하시다。

상당하여 이르시되
『누구던지 홀연히 깨달으면 대 법안을 얻어서 무변신을 나툴 것이며、무진장 항하사 법문을 연설하고 무량한 백억 세계에 백천만억 제불보살의 심심한 미묘법문을 열게 될 것이며、내지 천하

노화상의 무진법문이 모두 다 자기 살림이 되어서 자유자재 하리라。』 게송하시되

활연히 깨쳐서 상두의 관문을 올라서보니

세 발 달린 사자새끼가 쏟아져 나오누나。

「할」을 하고 내려오시다。

箭過西天

上堂良久云하시되 山僧恁麽도 鄕關萬里니 假使棒如雨點하고 喝似雷霆이라도 向上一路는 即不敢斟酌이로다。

三世諸佛도 只可自知요 歷代祖師도 全提不起며 一代藏教도 詮註不及이요 明眼衲僧도 指出不得이니라。

向上一路는 千聖도 不傳이라 以故로 句外에 明宗하고 機

外에 明旨라야 始得다。到這裏하여는 纖毫有佛見法見하면 箭過西天이니라 畢竟에 如何오。頌云、

啼得血淚無用處라 不如緘口過殘春이로다。

便下座하시다。

양구를 하고 나서 말씀하시기를『산승이 이렇게 하는 것도 본고장과는 거리가 먼 것이니、가사 아무리「방」을 놓고「할」을 한다 하더라도「향상의 일로」는 감히 짐작도 못하는 것이니라。

삼세제불도 자기만 알 것이요、역대 조사도 온통 잡아내지는 못하는 것이며、팔만장경으로도 주를 붙이지 못하고、눈 밝은 납자라 해도 이것을 찝어내지는 못하느니라。

이「향상의 일로」는 일 천 성인도 전하지 못하는 것이니、「한마디」밖에 근본을 밝히고、「한 기틀」외에 종지를 밝혀야사 비

로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만일 털끝만치라도 「불견」「법견」이 있다면 화살은 벌써 서쪽 하늘로 지나가버린 것이니라。 필경 어떻다고 해야만 되겠는가?』 게송을 읊으시되

피눈물이 나도록 우는 접동새
아무리 울어대도 소용이 없네
입을 닫고 묵묵히 남산을 바라보며
남은 봄을 조용하게 지내보면 어떠하리。

문득 자리에서 내려오시다。

五種三昧

頌曰、

若論此事인댄 纔有自他是非하면 失却本來人이니 會麼아。

爲他道路不好手라 橫擔拄杖歸家山이니라。

又云하시되 山僧이 有五種三昧法門하니 今日에 不惜眉毛하고 爲大衆하여 通個消息하리라。

一者는 把定世界하여 不漏纖毫하여 盡大地人을 芒鋒結舌이니 是衲僧正令이요、

二者는 頂門放光하여 照破四天下하여 一一洞徹이니 是衲僧金剛眼睛이요、

三者는 點鐵成金하며 點金成鐵하여 忽擒忽縱이니 是衲僧拄杖子요、

四者는 坐斷天下人舌頭하여 直得無出氣處하여 倒退三千里니 是衲僧氣宇요、

五者는 盡十方三世一切諸佛과 乃至文殊普賢과 天下善

知識이 出現於世하여 放大光明하여 無量百千三昧와 無量百千法門과 無量百千方便과 無量百千神通으로 轉大法輪하여 一時에 度無量衆生하여도 而亦目不顧視는 是衲僧封疆處니 以上一一三昧를 悉皆明得하여 隨處自在하여야 不受人謾去하리라。

欲窮乾坤眼인댄 更上最高峯이어다。

卓拄杖一下하고 便下座하시다。

『이 도리를 말할 적에 이것과 저것、옳다와 긇다가 붙으면 이것은 벌써 「본래인」을 잃어버리는 것이니라。』 계송하시되

남을 위한 저 길은 내 손에 맞지 않네
주장자 비껴메고 가산(家山)으로 돌아가리。

다시 말씀하시되『나에게 다섯 가지 삼범 법문이 있으니 오늘 일체를 마련씨고 대중을 위하여 이 소식을 말하리라。

첫째는 시간과 공간을 꽉 잡아 정하여 신통 만지도 나열하지 않게 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허를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니, 이것은 법신의「정법의 명령」이요,

둘째는 정문(頂門)하지 광명을 놓아 사천하를 바로 비추어 낱낱이 환견하게 함하는 것이니, 이것은 법신의「금강 보문자」라 할 것이요,

셋째는 쇠를 녹여 금을 만들며 금을 녹여 쇠를 만들어 홀연히 잡았다가 또한 놓아주는 것이니, 이것은 법신의「수장자」요,

넷째는 천하 사람들이 허물을 놀리지 못하게 하고 숨도 쉬지 못하게 한 다음 꺼꾸로 삼천리를 몰려가는 것이니, 이것은 법신의

이「기쁨」이라 할 것이요,

다섯째는 전 시방삼세의 일체 모든 부처님과 보살 문수 보현과 천하 선지식이 이 세상에 출현하시어 법문을 높이 하셨었는 팔만 사천의 법문과 방편과 신통이며 대 법륜을 굴려서 인천의 무량중생을 제도한다 하였으되, 나는 찬탄하지 아니하고 높이 보지도 않는 것이니, 이 납승이「특별히 수용하는 경지」인 것이니,

이상의 낱낱 상대를 모두다 털어 없애, 어디서나 자유자재하여야 납의 수용하는 경지가 있게 되리라.』

전법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려면

다시 더 최고봉에 올라서야 하리라。

주장자를 한 번 들리시고 법좌에서 내려오시다。

恁麽作用

陞座良久後에 擧拄杖子示衆하시고 擊禪床三下하여 振聲一喝云하시되、

過去威音毘婆도 恁麽用하고 釋迦達磨도 恁麽用하며 乃至天下善知識도 總恁麽用이어늘 今日香谷도 亦是恁麽用이로다。

雖然如是나 有時에는 合恁麽用하며 有時에는 不合恁麽用하나니 大衆은 還會麽아。頌云하시되、

鐵牛倒騎出金門하니 天上人間能幾幾리요
一喝乾坤成粉堆하니 好手還同火裡蓮이로다。

有人이 這裡에 若承當去하면 擧手下足이 無非格外宗風이요 坐臥經行이 盡是古佛向上이며 頭頭物物이 提唱西來大意하고 塵塵刹刹이 宣揚威音活句로다。

卓拄杖一下하시고 作噓噓하시며 便下座하다。

(己酉年 桐華寺 夏安居)

법좌에 오르시어 양구하신 다음 주장자를 들어 대중에게 보이시고, 법상을 세 번 치시고, 나서 소리를 질러 한 번 「할」을 하시고, 말씀하시되

『과거 위음왕불과 비바시불도 이렇게 작용하셨고 석가와 달마도 이렇게 쓰셨으며 내지 천하 선지식들도 다 이렇게 쓰셨으니 오늘 산승도 또한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로다。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야시하는 이렇게 용(用)함이 많기도 하고 야시하는 이렇게 용(用)함이 많지 않기도 하니 대중은 알겠는가?』 게송하시되

무쇠소를 거꾸로 타고 황금 문을 나섰으니

천상 인간에 뭇뭇 사람이나 이럴 수가 잇을넌가。

한 번 크게 소리ᄒᆞ여 하늘 땅이 무너지고

뭇진 숨채 아쳐면 볼 수에 연꽃갈네。

『나구먼지 이 수에 만상 일어쳐서 간다면 손을 들고 발을 놓음이 저여의 종풍이 아뭉이 엇고、앞고 늦고 절어감이 모두다 고불이 황상 서지어며、바다 물물이 넘나츠사가 서쪽에서 어진 뭉이를 비놀리는 것이고、진진창창이 우읍엉뿔이 할구 소지를 진앙하는 것이니라。』

수장자를 처와 한 번 돌리시고 「하하」하시며 쪽차에서 내려오시다。

(가야면 봉화산 하인지)

南泉斬猫

陞座良久後에 擧拄杖子云하시되 還會麼아。

三目石人出金殿하니 八臂木女舞玉樓로다。

卓拄杖子一下云하시되

高高頂上立하고 深深海底行이로다。

又拄杖子로 卓禪床一下云하시되

鐵牛倒騎入芳草하니 也勝秋露滴芙蕖로다。

大衆은 還會麼아、

若有識得拄杖子하면 即下에 便得大活計하여 諸佛諸祖及
大圓覺世界를 自在受用하되 任運騰騰하고 騰騰任運하리라。
不啻라 百千法門과 無量妙義를 一時에 頓證無餘하리니 及可
即今日이 大解制日이라 不然이면 未免跛鼈盲亀하리라。

昔日에 雲峰和尚이 問山僧 南泉斬猫法門하되 趙州禪師가 便脫草鞋頭戴出去意旨如何오 하시거늘 山僧이 答云何必이니까 하니 和尚께서 不是更道하라 하시거늘 答云 蒼天蒼天이라 하니 和尚云 蒼天之意怎麼生고。山僧이 答曰、西家人死한데 東家人이 弔哀니다 하니라。

今日 大衆은 會麼아。會即便會요 擬擬하며 即第二杓惡水潑在하리라 하시고 頌云、

太平은 本是將軍致나 不許將軍見太平이로다。

便下座하시다。

법좌에 올라 「양구」하신 다음 주장자를 들고 말씀하시되、『알겠느냐?』하시고 게송을 읊으셨다。

세눈가진 돌사람이 법당에서 나오고

여덟팔뚝 나무여자 벽옥루에 춤추도다。

주장자를 한 번 굴리시고、

높고 높은 봉우리 꼭대기에서 서있고
깊고 깊은 바다밑 그밑으로 가노메라。

다시 주장자로 법상을 한 번 치시고、

무쇠소를 꺼꾸로 타고 풀밭에 들어가니
연잎 적신 가을 이슬 무엇보다도 아름답구나。

『대중은 알겠는가? 누구든지 이 주장자의 소식을 알아 얻었다면 단박에 크게 살판이 나서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의 「대원각세계」를 자재하게 수용하여 등등임운하고 임운등등 할 뿐만 아니라 백천법문과 무량묘의를 일시에 증득하여 남음이 없으리니 이렇게 되는 날이 곧 크게 해제하는 날이라、그렇지 못하다면 「다리 저는 자라」나 「눈먼 거북이」를 면할 수 없으리라。

예전에 운봉큰스님께서 나에게 남전스님의 「참묘」법문을 물으시면서 「조주가 신을 벗어 머리에 이고 나간 뜻을 일러라」 하시기에 나는 대답하기를 「하필 그래야만 합니까?」 했더니 「다시 일러라」고 하시거늘 「창천 창천」이라 했더니 「무엇이 창천이냐?」고 하시기에 「서쪽집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동쪽집 사람이 조문을 하는 것입니다。」고 했었느니라。 금일 대중들은 알겠는가?

알았다면 당장 알 일이요 우물 쭈물 한다면 벌써 두번째 「구정물」을 덮어쓰리라。』 게송을 읊으시되

전쟁을 하여 태평을 장군이 만들지만、
장군은 태평만을 보고 있지 못하느니。

하시고 법상에서 내려오시다。

參學事畢

無邊太虛가 一目이요 大千沙界가 一路이며 百億乾坤이 一指요 十方世界가 一毛이니 鼻藏百億華藏刹海하고 耳盛十方無邊淨土로다。

威音王以前에 從東過西하고 樓至佛而後에 從西過東이라。出則虛空粉碎하고 大地平沈이요 入則須彌倒走하고 大海枯竭이로다。

如此等道理는 果是甚麼人의 行履處오。到這裡하여 分明會得去하면 一生參學事畢하리라。頌云、

透過威音那邊外하니 天上人間得自由라

卓拄杖一下하고 下座하시다。

『가 없는 태양이 한쪽 눈 같고, 삼천대천세계가 절 한줄기 같이며, 팔만사천세계의 하늘과 땅이 순간에 하나로 통과하고, 시방세계가 뚜렷 하나여, 털구멍 안에 팔만사천총회가 감추어 있고, 귀 속에 무량정토가 담겨져 있읍니다。

최초 아뢰야를 이전에 동에서 서쪽으로 지나가고 최후 마지막 것은 뒤에는 서에서 동으로 지나갑니다。

나왔다 하면 햇빛이 발생하고 대지가 평정하며, 들어왔다면 수미산이 거꾸로 넘어가고 대해 바다가 바싹 말라버립니다。 이러한 법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행하는것인가? 어디에서 발생을 하다면 일체의 중생들은 모두가 버린다。』게송을 읊으시며

아뢰야를 이전까지 설하셨으니

천상에나 인간에나 대자유를 얻었노라。

선상을 한 번 치시고 내려오시다。

分明看得

上堂良久後에 頌云하시되、

木女抱嬰兒하고 昨夜歸銀河어늘

石人騎鐵牛하고 今朝來天台로다。

若有人이 悟得此中意하면 了畢格外事하리라。

三世佛祖眼中花요 大千沙界鼻孔塵이로다。

有人問我這個事하면 喝似雷霆棒如雨하리라。

心路情識이 永絶하고 佛見法見이 頓盡無餘하여야 全身大用이 現前之時節이니 當恁麼時는 變大地하여 爲黃金하며 攪長河하여 爲酥酪醍醐하며 回三毒하여 爲三聚戒하되、 有大解脫自在機하며 回六識하여 爲六神通호되 有大無碍自在用處하나니、 到這個田地에서는 有時에 把定乾坤하며 또한 有時에는 放

行無碍하여 能殺能活하고 能縱能奪하며 現大機大用하여 隨處作主하며 或主或賓하며 或全明或全暗하여 用處大自在하나니、

故로 臨濟禪師云하시되、

一句語에 須具三玄하며 一玄中에 須具三要하여 有實有權하며 有照有用이라 하시니 大衆은 分明看得이어다。頌曰、

一輪明月杖頭起하고 鐵圍刀山毫端滅이로다。

三脚鐵牛空裡走하니 好手手中更好手로다。

喝一喝하시고 便下座하시다。

상당 양구 후에 송하시되

나무로 된 여자가 갓난아기를 안고서

어제밤에 은하계로 돌아 갔는데

무쇠소를 잡아 탄 돌로 된 이 사람이
오늘 아침 천태산에 돌아 왔다네。

누구든지 이 게송의 뜻을 깨달았다면 격외도리를 마쳤다고 인가하리라。

삼세의 불조가 눈동자에 헛깨비요
대천사계가 코구멍에 티끌이로다。

어떤사람이 나에게 이 소식을 묻는다면 우뢰같이 소리치고 소나기 같은 방을 맞으리라。마음의 길 알음알이가 끊어지고 부처니 법문이니 하는 소견이 몰록 다해 남음이 없어야만 전신의 큰 작용이 현전하는 시절인 것이니 이럴 때를 당해서는 대지를 변화시켜 황금땅을 만들며、강물을 저어서 소락제호를 만들며、삼독을 돌이켜 삼취정계를 삼되 대해탈의 자재한 기틀을 만들며、육식을

돌이켜 육신통을 삼아서 대무애자재한 용처를 만드나니 이러한 경지에 이르러서는 입선을 하거나 방선을 하거나 능히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능히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며、대기와 대용을 나투어서 곳을 따라 주인을 지으며、혹 주인이 되기도 손님이 되기도 하며、혹 밝기도 어둡기도 하여 작용하는 곳이 자유자재 하나니、그래서 임제스님 말씀에、

「한마디 말에 모름지기 三현을 갖추었으며 一현중에 모름지기 三요를 갖추어서 실이 있고 방편이 있으며 비추기도 하고 작용도 한다。」하시니 대중은 분명히 이 도리를 깨쳐야만 할 것이니라。』

게송을 읊으시되

수레같이 둥근달이 주장자끝에 나타나고
철위산간 도산지옥이 털끝에 무너졌네。
세 발 달린 무쇠소가 허공속에 달아나니

솜씨중에 솜씨여야 잡을 수가 있으리라。
「할」을 한 번 하시고 내려오시다。

殺活刀劍

若論此事인댄 電光罔通이요 石火不及이라 熱喝嗔拳이라도 賊過後張弓이요 良久擧拂도 死馬作醫며 釋迦達磨도 倒退三千里요 文殊普賢도 階下乞命이로다。分明道德이라도 全沒交涉이니 到這裡하여 如何提唱고。頌曰、

「殺人須是殺人刀요 活人須是活人劍이니라。

古德云하시되 言前薦得이라도 未免觸途狂見이요 句下精通이라도 猶是滯殼迷封이라 하니 個個獅子吼라야만 始得다。頌云하시되、

獅子窟中無異獸요 驪龍行處浪滔滔로다。
喝一喝하시고 便下座하시다。

『만약 이 공부로 말하자면 번갯불도 통하지 못하고 석화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니 할을 하고 주먹질 하더라도 도적이 지나간 뒤에 활을 쏘는 격이요, 「양구」하거나 「불자를 드는 일」도 죽은 말에 치료를 하는 격이며, 석가 달마도 삼천리를 거꾸로 물러설 것이요, 문수보현도 물러가 엎드려 살려달라 할 것이다。분명히 일렀다 해도 아무 쓸데없는 것이니 여기에 이르러서 무엇이라고 잡아 노래 부르겠는가?』게송하시되

사람을 죽이려면 살인도를 써야하고

사람을 살리려면 활인검을 쓸지니라。

『고덕이 이르시되、「말하기 전에 알았다 하더라도 닥치는 걸마다 미친 소견을 면치 못할 것이요、한마디 아래 정통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껍데기에 막히고 봉한데 미한다」하시었느니、낱낱이 사자후를 하여야 비로소 될 것이니라。』 게송하시되

사자굴중에 무슨 짐승이 따로 살고 있으랴

겸은 용이 가는 곳에는 물결만이 도도하다。

「할」을 하고 내려오시다。

常憁麼用

陞座良久하시고 便頌云하시되

千尺寒松에는 鶴飛高요 萬丈深潭에는 泥牛驚이라

虛空粉碎하고 大地沈하니 從此大千이 成淸平이로다。

當恁麼時節해서는
一拳拳倒須彌山하고 一踢踢翻四大海로다。
驅諸佛於無間地獄하고 放群生於大千之外하며、
有時에는
家家門前에 提唱格外宗風하고 人人脚下에 讚揚古佛活路하니
百億世界가 長安中이요 家家堂裡가 眞古佛이라、
須是恁麼人이라야 方名大丈夫漢이며 亦名大解制人이라 又頌
하시되、
蒼龍窟裡에 打筋斗하고 獅子脚下에 便轉身이라
萬仞頂上에 便下手하니 千尋海底에 作活計로다。
喝一喝하시고 便下座하시다。

법좌에 오르시어 「양구」하신 다음 게송을 읊으시되、

천길되는 소나무에 백학이 높이 날고
만길의 깊은 못에 진흙소가 놀라도다。
허공이 부서지고 대지가 가라앉네
이로 좇아 세계가 평화를 이루도다。
『이러한 시절을 당해서는
한 주먹에 수미산을 꺼꾸러트리기도
한 발작에 사대해를 밟아서 뒤집기도
부처님을 몰아 부쳐 지옥으로 보내기도
모든중생 온갖방면 대천세계 저밖으로。
어떤때에는、
집집마다 문전에 격외종풍을 제창하고
사람마다 발밑에 고불활로를 찬양하리

백억세계가 장안 가운데요
집안에는 언제나 고불이 계시도다。
모름지기 이쯤은 되어야만 바야흐로 「대장부한」이라 이름할 것이며 또한 진짜 해제를 한 사람이라 할 것이다。』 다시 게송을 읊으시되、

창룡의 굴속에서 곤두박질 치다가
사자의 다리밑에 몸을 한 번 뒤침이라。
일만 길 정상에서 잡은 손을 놔버리고
일천 길 바다밑에 살림을 꾸리도다。
「할」을 한 번 하시고 법상에서 내려오시다。

示衆(시중)

如來禪祖師禪(香嚴禪)

주장자를 잡아 대중에게 보이며 말씀하시되,

『고인은 지명차사(只明此事)라』〔다못 이 일만을 밝힘이라〕 또 『일체처(一切處)에 지거차사(只擧此事)라』〔다못 이 일만을 들며 이는지라〕 또 『일체처(一切處)에 불리차사(不離此事)라』〔이 일을 여의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고인이 『수조사해(垂釣四海)는〔사해에 낚시를 드리우는 것은〕 지조영룡(只釣獰龍)이라〔영룡을 낚이려는 것이라〕』 했고, 또 『격외현지(格外玄旨)는〔격 밖에 깊은 뜻은〕 유심지기(唯尋知己)라〔오직 자기를 아는 사람을 찾는 것이라〕』 했는데 이것이 근본 목적이다. 그래서 말하시기를 송하되,

망망우주무지기(茫茫宇宙無知己)하야

만리장강일엽래(萬里長江一葉來)라
『망망한 우주에 자기 아는 이 없어서
만리나 되는 긴 강을 한 갈대잎으로 왔노라。』

이 게송은 달마스님이 갈대잎을 타고 동토(東土)로 온 것을 말하는데, 지기(知己)는 깨달은 사람을 말한다。 이 게송은 기가 막히는 소리인 것이다。

예전에 향엄(香嚴)스님이 千五百 명 대중을 거느린 위산(潙山)스님을 찾아 갔더니 위산스님이 『어떤 것이 부모미생전본래면목(父母未生前本來面目)이냐?』하고 묻는데, 이에 꽉 막혀 대답못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화중지병(畫中之餠) 이라』하고 말했다。 그림의 떡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다。

향엄스님은 귀중생절한 생각을 하니 아주 분한 생각이 들어서 용맹심(勇猛心)이 마치 천만 길이나 되는 노도(怒濤)가 일어나서

마구 쏟아지듯이 흉중(胸中)에서 유출했기 때문에、 초라하게 무너진 암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밖에 나갔다가 기와조각이 굴러서 대나무를 「탁」하고 치는 소리에 홀연히 깨달아서 송(頌)하기를、

일격망소지(一擊忘所知)하니 갱불가수치(更不假修治)라
동용양고로(動容揚古路)하고 불타초연기(不墮悄然機)로다
처처무종적(處處無蹤跡)이요 성색외위의(聲色外威儀)로다
제방달도자(諸方達道者)가 함언상상기(咸言上上機)로다。

『대나무 「탁」 소리에 아는 것을 잊었으니
다시 닦고 다스림을 가자할 필요없네。
얼굴을 움직이면 고로(古路)가 드러나고
초연의 소승근기에 떨어지지 않음이라。
어데 가나 자취 없고 성색 밖에 거동이라

제방의 천지석이 상상기라 칭찬하네。』

참으로 이와 같이 통저탈상사(桶底脫相似)하는 경지가 있어야만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향엄스님이 나중에 앙산(仰山)스님을 만나니, 앙산스님이 묻기를 『근일사형견처여하(近日師兄見處如何)오』〔요즈음 사형의 견처가 어떠합니까?〕하니, 향엄스님이 답하되 『무일법가당정(無一法可當情)이로다』〔한 법도 가히 정에 당함이 없읍니다〕하였다。또 앙산스님이 묻되 『무일법가당정자수(無一法可當情者誰)오』〔한 법도 가히 정에 당함이 없다는 자가 누굽니까?〕하니, 향엄스님이 또 곽 막혔다。그렇다면 깨달았는데도 왜 그럴까? 그런데 향엄스님이 여기에서 다시 깨달음으로 부처서 송하기를,

거년빈(去年貧)은 미시빈(未是貧)이요

금년빈(今年貧)이、시시빈(始是貧)이로다
거년(去年)에는 무탁추지지(無卓錐之地)러니
금년(今年)에는 추야무(錐也無)로다。
『거년 가난은 가난한 것이 아니요
금년 가난이 비로소 가난함이로다。
거년에는 송곳을 꽂을 땅도 없더니
금년에는 송곳조차 없음이로다。』

하니、앙산스님이 말하되 『여래선(如來禪)은 즉허사형회(即許師兄會)어니와 조사선(祖師禪)은 미몽견재(未夢見在)로다』〔사형이 여래선은 알았지만 조사선은 꿈에도 보지 못했읍니다〕했다。
나중에 향엄스님이 다시 또 게송을 지어 바치되 『아유일기(我有一機)하니 순목시이(瞬目示伊)하야 약인불회(若人不會)면 별환사

미(別喚沙彌)하리라』〔나에게 한 기틀이 있으니 눈깜짝으로 그대에게 보여서 만약 사람이 알지 못하면 달리 사미를 부르리라〕하니、앙산스님이 『차희(且喜)라、사형(師兄)이 회조사선야(會祖師禪也)로다』〔또한 기쁘다! 사형이 조사선을 알았도다〕고 말했다。

대중아、앙산과 향엄 두 선사의 용심처(用心處)를 자세히 살필지니 필경에 어떠한가? 귀당각다거(歸堂喫茶去)하라。〔방에 돌아가 차나 먹어라〕

山是山水是水

주장자로 법상을 한 번 굴리시고 말씀하시되、

산승(山僧)이 법상에 올라 온 것을 무엇이라고 봐야 되겠는가? 여기에서 바로 보고 바로 알면 일대사(一大事)를 다 마쳐 버려서 아무 것도 더할 것이 없나니、왜냐 하면 「천시천(天是天)이요 지시지(地是地)라、산시산(山是山)이요 수시수(水是水)라」 하는 여기에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덜하겠는가? 하늘은 하늘대로 무심(無心)히 항상 법문을 설하고、땅은 땅대로 무심히 항상 전대법륜(轉大法輪)할 뿐만 아니라 산도 그렇고 물도 그러한 것이다。

그러기에 『대지(大地)에 절진애(絶塵埃)어늘 하인(何人)이 안불개(眼不開)리요』〔대지에 진애가 끊어졌거늘 어떤 사람이 눈을 뜨지 못하겠느냐?〕 라고 했다。여기에는 생사도 없고、 번뇌도

없고、범성(凡聖)도 없어서 삼세제불과 역대조사로 더불어 조금도 다름 없이 개개가 원만구족한 것이다。그래서 『우다긱다(遇茶喫茶)하고 우반긱반(遇飯喫飯)이라』〔차를 만나면 차를 먹고 밥을 만나면 밥을 먹는다〕또 『요행즉행(要行即行)하고 요좌즉좌(要坐即坐)라』〔가고 싶으면 가고 앉고 싶으면 앉는다〕

그런데 삼세제불이 어찌하여 출세(出世)를 했으며 역대조사는 무엇 때문에 출세를 했을까? 「부처님의 팔상성도(八相成道)는 중하근기(中下根機)를 위해서」라는 말이 있지만 이것은 맞지 않는 말이다。왜냐 하면 부처님 한 분이 법상(法床)에 승좌(陞座)해 계시고、땅에도 수 없는 부처님이 솟아 오르고、허공에도 수 없는 부처님이 내려 오시고、사방팔면에서 수 없는 부처님이 와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승좌해 계신 곳을 향해 우요무량잡(右繞無量匝)을 하고 있었으니、그렇다면 어찌하여 구태어 석가모니 부

처님 만이 활살생도를 했다고 하겠는가? 불법은 심심하여 참으로 난사의(難思議)한 것이다。

그래서 고인(古人)이 말하기를『과거 위음왕불 이전에 분명히 천득(薦得)했다고 해도 삼십방(三十棒)을 맞는다』했고, 또『강(江)을 격(隔)해서 저 건너 사찰(寺刹)에 있는 찰간대(刹竿臺)를 보고 다 알아 마쳤다 해도 돌아가서는 역시 三十방을 맞는다』하였으니, 그렇다면 그 방망이를 누가 면하겠는가? 정안을 갖춘 본분종사(本分宗師)라면 이 때에 전광석화(電光石火)와 같이 답(答)이 나오는 것이다。

오늘 산승(山僧)이 법상에 올라 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치『함혈분인(含血噴人)에 선오자구(先汚自口)라』〔피를 머금어서 남에게 뿜으면 먼저 자기 입이 더러워진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또『약인구병(藥因救病)하야 출금병(出金瓶)하고 점우불평

(鑑爲不平)하야 이보갑(離寶匣)이라』(약은 병든 이를 낫게 하기 위해서 금병에서 나왔고 칼은 난리진압을 위해서 보배갑에서 나왔다)는 말과 같이, 부득이 산승이 법상에 올라 온 것이다.

이 법은 대신심(大信心)과 대의심(大疑心)과 대용맹심 (大勇猛心)으로 공부해야 성취하는 것이어서 이 세 가지가 없이면 아무것도 안된다. 옛날 사람들은 불고위망득실(不顧危亡得失)하고 불원천리만리(不遠千里萬里)하여, 선지식(善知識)을 친견(親見)하고 법문(法門)에 들어 일대사(一大事)를 해결(解決)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할 근기(根機)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공연히 선방(禪房)이라고 지어서 「공부하라」하고 모여있어 보아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대신심·대의심·대용맹심이 아니면 공부는 백이면백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향곡(香谷)은 월내(月內)의 조그마한 곳에 사는 것

이 가장 좋다。 누구든지 찾아 오면 나의 안목(眼目)대로 말해줄 것이니、전(廛)을 펴는 것도 그 물건이 팔릴 만한 곳에 가서 펴야 하는 것이다。

예전에 풍혈선사(風穴禪師)는 二十 년을 법문하여 납자(衲子)를 제접(提接)해도 그 밑에서 사람이 하나도 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이 일이 쉽지 않은 것이다。

공부는 마음 가운데에 미진(微塵)만한 것이라도 걸리는 것이 있으면 다 틀려버린다。 그리고 공부해서 해결한다는 그 길만을 밟아 가야지 그렇지 않고는 미륵이 하생(下生)하도록 해 보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옛날에 장경(長慶)스님이 보복(保福)스님과 같이 산에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보복스님이 한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하기를 『지저리(只這裏)가 편시묘봉정(便是妙峯頂)이라』〔바로 저

곳이 묘봉정이라〕하니, 장경스님이 말하되, 『시즉시(是卽是)나 가석허(可惜許)로다』〔옳기는 곧 옳으나 아석하다〕하였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가석허(可惜許)」라 했는가? 이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또 고인들이 『관(關)』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다。

중국의 취암선사(翠巖禪師)는 대중을 많이 거느리고 하안거를 마치는 해제일(解制日) 상당에 말씀하되 『일하이래(一夏以來)에 위형제설화(爲兄弟說話)하니 간취암미모재마(看翠巖眉毛在麼)아』〔하안거 한 철 동안 지나오면서 대중을 위해서 설화했으니 취암의 눈썹이 있는 것을 보았는가?〕하였다。이 때에 대중이 아무도 답을 하는 이가 없었다。나중에 장경스님이 그 말을 듣고 『생야(生也)로다』하고 답을 했고, 보복스님은 『작적인심허(作賊人心虛)라』〔인심이 허할 때 도적이 난다〕했고, 운문스님은 『관

(關)』이라 했다。

이 『관(關)』은 알기가 매우 어렵다。 일본의 관산(關山) 스님은 이 「관」자를 가지고 공부하여 三년 만에 해결했기에 이름을 관산이라 했는데, 이 스님은 깨달을 때에 목욕재계하고 법문을 마치고 나서 절 밖으로 나와, 절 앞 큰 계천(溪川)의 돌다리에 한 쪽 발은 땅을 짚고 한 쪽 발은 들고 서서 깨쳐 들었다는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다。 그러나 이 『관(關)』이나 『가석허(可惜許)』의 뜻을 안다면 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본래 출가한 목적은 다른데 있는 게 아니고 견성성불(見性成佛)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 가람(伽藍)을 짓고 수리하는 일체불사도 견성성불 하기 위해 공부하는 공부인을 위해서 해야지 자기의 명예나 욕심이 있어서 다른 생각으로 하면 죄만 짓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르고 참된 신심과 분심과 의심을 가

지고 정진을 해야만 성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누구든지 못 입고 못 먹어서 중이 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공부를 자꾸 늦추어서 내생(來生)에 한다는 생각을 내면 절대로 안 된다。금생(今生)에 이 몸뚱이 있을 때에 해결할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고인의 말씀에『한생각 불견법견(佛見法見)을 일으켜도 여태마복리(驢胎馬腹裡)에 여전사(如箭射)라』〔나귀의 태에 들어가고 말의 배에 들어가기 화살과 같다〕고 했는데 무엇을 믿고 내생에 한다고 미룰 것인가? 공부가 그렇게 쉽사리 되는 줄 아는가? 꿈만 꾸어도 그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면서 죽을 때에 정신 차려서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고 말이 말로 보이고 소가 소로 보일 줄 아는가? 전부 뒤바뀌어 보여서 정신이 없어 있는 줄도 모르는데 무엇을 바로 볼 것인가?

참으로 이 정법을 만나 신심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이라면

먹고 입는데 끌려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다. 머리에 불붙는 것을 끄는 것과 같이 해야 하고, 감옥에 갇힌 고초(苦楚)를 받는 사람이 풀려나기 바라는 마음이 무시부절(無始不絶)로 간절(懇切)한 것같이 공부를 해야만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 편안하고 잘 먹는 것만 생각하면 도심(道心)이 일어나지 못하고 딴 망상과 분별과 번뇌만 일어나게 된다.

어떤 사람이 단식을 하고 나서 하는 말이 『세상 사람들이 배가 부르니까 온갖 악담을 하는구나. 명리도 여자도 재산도 다 배가 부르니까 탐이 나는 것이지 배가 고프니 아무 생각도 않더라』고 하는데, 그와 같이 공부도 다른 것 일체를 생각하지 말고 오직 공부 하나만 하면 안 될 리가 없는 것이다.

예전 스님네는 하루 해가 지나가면 다리를 뻗고 울었다는데 그렇게 공부할려고 하는 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

차별삼매(差別三昧)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가장 알기 어려운 것이다。그래서 진대지시방세계(盡大地十方世界) 그대로가 「대반야(大般若)」며、「대청정세계(大淸淨世界)」며、「대적멸세계(大寂滅世界)」며、「대해탈세계(大解脫世界)」다 하는 등은 아무 것도 아니다。가령 『가석허(可惜許)』라든지、『관(關)』이라든지、『창천(蒼天)』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이 다 차별삼매에 속하는 것이다。

또 조주석교(趙州石橋)라는 유명한 공안(公案)이 있는데、조주스님한테 어떤 스님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구향조주석교(久響趙州石橋)러니 도래(到來)에 지견독목교(只見獨木橋)로다』〔오래 전부터 조주석교라고 들리더니 와서 보니 보잘 것 없는 외나무다리뿐이로구나〕 했다。이에 조주스님이 말하되、『여지견독목교(汝只見獨木橋)하고 불견석교(不見石橋)로다』〔너는 다못 외나무다리만 보고 돌다리는 보지 못했구나〕 하니、그 스님이 묻되 『여하시석

교(如何是石橋)냐고』〔어떤 것이 석교입니까?〕함에、조주스님이 『도로도마(渡驢渡馬)니라』〔나귀도 건너 가고 말도 건너 가느니라〕고 했다。

그 후에 조주스님이 수좌로 더불어 돌다리를 보고 있다가 수좌에게 묻되 『시심마인조(是什麼人造)오』〔이것은 누가 만들었느냐?〕하니、수좌가 『이 응조(李膺造)니다』〔「이 응」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읍니다〕라고 답했다。조주스님께서 또 묻되 『조시향심마처하수(造時向什麼處下手)오』〔만들 때에 어느 곳을 향해서 손을 댓는고?〕하니、수좌가 꽉 막혀서 답을 하지 못했다。

그렇듯이 우리가 공부해서 모든 차별삼매(差別三昧)를 명경당대(明鏡當臺)와 같이 환하게 알아서 천하 선지식의 언구(言句)에 조금도 의심(疑心)이 없는 연후에라야 대장부능사필 (大丈夫能事畢)이 될 것이다。만약 털끝 만치라도 내라 하는 게 있다든지、그

무엇이 있다는지 하면 공부는 벌써 그르쳐 버린 것이다。

용수불개(龍袖拂開)하니 전체현(全體現)하고
상왕행처(象王行處)에 절호적(絶狐跡)이로다。
『용수를 떨쳐 버리니 전체가 드러나고
상왕이 행하는 곳에는 여우의 자취가 끊어졌더라。』

(丙辰年 桐華寺에서)

鴨下水鷄上樹

압한하수(鴨寒下水)하고 계한상수(鷄寒上樹)라。〔오리는 추우면 물에 들어가고, 닭은 추우면 횃대에 올라가더라〕

하루는 남전(南泉)스님께서 소를 타고 승당(僧堂)을 돌아보신 일이 있었다。어째서 소를 타고 승당을 돌았을까? 이것을 알아야 한다。그 때에 한 수좌(首座)가 소를 손바닥으로 한 번 때렸다。그랬더니 스님께서 휴거(休去)해 버렸다。그런데 조주스님은 풀을 한 묶음 묶어서 수좌 앞에다 갖다 놓으니 수좌가 말이 막혔다는 법문이 있다。

여기에 모든 법을 밝히는 뜻이 들어 있는데 말이 나오지 못한 것이다。이런 법문을 듣고 확연명백하게 알면 얼마나 좋겠는가?

중국 양무제 당시에 지공(誌公)선사는 거리에 다니면서 괴상야

수와 같은 법문을 설하니 수 천 명 군중들이 운집해서 농사(農事)도 잊고 법문을 들어므로 나라에서 혹세무민죄(惑世誣民罪)로 잡아 가두어 버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공스님은 여전히 거리에 다니면서 설법을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야단들이었지만 지공스님은 분신(分身)하는 도인(道人)이었던 것이다。

양무제(梁武帝)는 불심천자(佛心天子)라고 했다。 지공스님을 국사(國師)처럼 뫼시었는데、 하루는 지공스님에게 금강경 법문을 청했더니 지공스님 말씀이 「빈도(貧道)는 강(講)을 하지 못하고、 금릉시중(金陵市中)에 고기장사하는 부대사(傅大士)가 능히 이 경을 설할 것입니다。』 하였다。

양무제가 명(命)을 내려 억지로 부대사를 궁중에 모셨더니、 고기짐을 짊어진 채로 말하기를 『법(法)을 설할 것이 없이 설하면

산 용(龍)이요、 법을 설할 것이 있어서 설하면 죽은 뱀이니라』 하고는 도망쳐 버렸다。 궁 밖을 도망나오다가 어떤 스님을 만나니 『도솔천 내원궁에서 같이 발우(鉢盂)를 펴던 사람이구나』 하고는 달아나버렸다。

부대사는 고기장사를 하면서 잡아 놓은 고기를 물에 갖다 놓고 『갈 놈은 가고 있을 놈은 있으라』 하기도 했다。

부대사가 또 하루는 양무제의 청을 받아서 경을 강하게 되었는데 법상에 올라가자 마자 법상 앞에 있는 경상을 들어 올려서 한 번 휘둘러 내리고는 법상에서 내려왔다。 양무제가 그걸 보고 놀랐더니 지공스님이 말하기를 『부대사가 경을 강해 마친 것입니다。』 하였다。

그 뒤에 부대사가 쌍림에 절을 짓고 살았는데 달이 환하게 밝은 밤에 경행(經行)을 하면 칠불(七佛)이 그 뒤를 따랐다고도

한다。 그리고 부대사는 미륵불의 후신(後身)이라고도 한다。

살수도가인불식(撒手到家人不識)인데
일륜명월괘창전(一輪明月掛窓前)이로다。
「손을 털고 집에 오니 사람들은 몰라보네
수레같이 밝은 달은 창 앞에 걸려있네。」

(丁巳年 桐華寺에서)

第一及第二門

사부대중은『양미순목(揚眉瞬目)』을 알겠는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면 참학사(參學事)를 마치는 것이다。 만약 크게 깨친 사람은 주장자를 잡아도 알 것이요、 염주를 들어도 알 것이요、 눈섭을 움직이고 눈을 껌벅 하여도 다 알 것이니라。 그러나 그렇게 해도 알지 못하면 제이문(第二門)을 향해서 법문을 열어야만 한다。 부처님께서 석달동안 도리천(忉利天)에 가서 모친을 위해서 설법하시고 인간세계에 내려 오셨다。 그 때에 연화색(蓮花色) 비구니가 있어서 생각하기를『나는 신통이 있으니 제일 먼저 부처님을 친견하고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신통으로 전륜성왕(轉輪聖王)의 몸을 나투었다。 전륜성왕은 수미사주(須彌四洲)의 세계를 통솔하는 대왕으로서 몸에 三十二상을 갖춘 훌륭한 왕인

데、 그러한 몸을 나투어서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지 않으면 큰스님들이 다 인사드리고 나서 늦게라야 인사를 드리게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연화색비구니야、너는 대중의 순서를 어기고 나를 친견했지만 너는 나의 색신(色身)만 보고 나의 법신(法身)은 보지 못했느니라。 수보리존자(須菩提尊者)는 바위 밑에서 안좌해 있어도 오히려 나의 법신을 친견했느니라』 하셨다。 이 때에 연화색비구니는 신통(神通)으로 전륜성왕의 몸을 나투었지만、 법은 캄캄했기 때문에 꼼짝못하고 방망이만 맞았다。 이와 같이 법이라는 것이 참으로 쉬운 것이 아니다。

또 하나의 예로 사리불(舍利弗)은 부처님의 십대제자 가운데에 지혜(智慧)가 제일인데、 그 사리불이 하루는 성(城)안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월상여(月上女)라는 여자가 성밖으로 나오는 것

을 보고 『심마처거(什麼處去)오』〔어디로 가느냐?〕하니、월상녀가 말하되 『여사리불이마거(如舍利弗伊麼去)니다』〔사리불존자와 같이 이렇게 갑니다〕했다。 그래서 사리불이 말하되 『아방입성(我方入城)하고 여방출성(汝方出城)한대 하언여사리불이마거(何言如舍利弗伊麼去)오』〔나는 바야흐로 성안으로 들어 가고 너는 성밖으로 나오는데 어째서 사리불과 같이 간다고 하는고?〕하니、월상녀가 묻되 『제불제자(諸佛弟子)는 당주하처(當住何處)오』〔모든 불제자는 마땅히 어느 곳에 주해야 하는가요?〕했다。 사리불이 『제불제자는 당주대열반(當住大涅槃)이니라』〔모든 불제자는 마땅히 대열반에 주해야 하느니라〕하니、월상녀가 말하기를 『제불제자기주열반(諸佛弟子既住涅槃)이라 소이(所以)로 아여사리불이마거(我如舍利弗伊麼去)니다』〔제불제자가 이미 열반에 주한지라 그런고로 사리불존자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고

하였다。

이러한 법문은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열반의 경지를 알지 못하면 그런 답이 나올 수가 없다。그러니까 아까 말한 연화색비구니보다는 월상녀가 앞섰다는 말이다。

그러나 『열반심은 이명(易明)이지만 차별지(差別智)는 난명(難明)이라』〔열반심은 밝히기 쉽지만 차별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우리가 공부를 해서 광탄무변지경계(廣坦無邊之境界)만 보더라도 진대지시방세계(盡大地十方世界)가 모두 청정대열반의 세계며, 청정대해탈의 세계며, 청정대원각의 세계며, 청정대보리의 세계다。그래서 호리(毫釐)만치도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어서 중생의 종종허환(種種虛幻)과 종종생멸(種種生滅)이 다 원각묘심(圓覺妙心)을 좇아서 일어 나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에만 가더라도 『사오백조화류항(四五百條花柳巷)

이요 이삼천처관현루(二三千處管絃樓)라』〔사오백이나 되는 곳이 춤추고 노래부르는 기생들이 사는 곳이요, 이삼천이나 되는 곳이 피리불고 거문고를 튕기면서 풍류를 즐기는 누각이더라〕했다.

이 말은 자칫 잘 못 들으면 사람 버릴 소리가 되지만 바로 보면 진대지시방세계가 해탈세계며 진여세계 이기 때문에 그러한 게송이 나오는 것이다. 또 능소(能所)를 다 잊어버리고 불견법견(佛見法見) 조차도 다 탕진(蕩盡)이 되면 그 때는 시방무진세계가 안 맞는 곳이 없게 된다. 그래서 『이사(理事)가 불이(不二)하고, 생사가 상주(常住)하며, 생불(生佛)이 여여(如如)하다』하는 것도 다 그러한 법문인 것이다.

그러나 대자재(大自在)와 대무애(大無碍)와 대원명(大圓明)과 대활발(大活潑)의 그러한 사중득활(死中得活)의 경지(境地)를 얻어야만 참으로 『백랑도천처(白浪滔天處)가 최고용심처(最高用心

處)」〔흰몸결이 하늘에 닿는곳이 최고로 용심하는곳〕인 것이다。
할(喝)을 한 번 하시고 자리에서 내려오시다。

(丁巳年 夏安居 妙觀音寺에서)

無縫塔見還難

호두용신혜(虎頭龍身兮)여 십자가두(十字街頭)에 칠종팔횡(七縱八橫)하며, 불두노각혜(佛頭驢脚兮)여 천붕해갈(天崩海竭)하고 일월추타(日月墜墮)로다。 철우두니우미혜(鐵牛頭泥牛尾兮)여 유조유용유빈주(有照有用有賓主)하고 사두귀면혜(蛇頭鬼面兮)여 조타삼천(朝打三千)하고 모타팔백(暮打八百)이로다。 시삼시절(是甚時節)고。

석인조출삼문외(石人跳出三門外)하니 목녀포소소가가(木女抛籌笑呵呵)로다。

(범대가리에 용의 몸이여, 십자거리에서 비틀거리며, 부처님 머리에 나귀의 다리여, 하늘이 무너지고 바다가 마르며 일월이 떨어지도다。 무쇠소 머리에 진흙소 꼬리여, 비취이고 작용하여 손

님 주인 따로 있고 뱀대가리 귀신 얼굴이여、아침에 三千을 치고
저녁에 八百을 치네。이것이 무슨 소식인고?」

「돌사람은 삼문밖을 뛰어나가고
나무여자는 빗자루 놓고 깔깔웃노라。」

혜충국사(慧忠國師)가 하루는 『시자(侍者)야!』하고 부르니、『예』하고 답했다。또 『시자야!』하고 부르니 『예』했다。세 번째에 『시자야』하고 또 부르니 『예』하고 대답했다。이렇게 세 번을 부르고 세 번을 답하고나니 국사는 말씀하시기를、

『장위오고부여(將謂吾辜負汝)러니 각시여고부오(却是汝辜負吾)로다。』「장차 내가 너를 저버리는가 했더니、도리어 네가 나를 저버리는구나」했다。이 말은 『나는 너를 아직 등지지 않았는데 네가 나를 등지는구나。』하는 뜻도 된다。그런데 시자가 거기에서 깨달았다는 것이다。이 삼환시자(三喚侍者)에 대해서 많은 도인

들이 송(頌)도 하고 염(拈)도 했는데 지문광조선사(智門光祚禪師)가 염하되 『인아불각추(憐兒不覺醜)라』〔아이를 사랑하다 추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 어째서 이런 말을 했느냐? 이 법문을 바로 알면 참으로 정문정안(頂門正眼)을 갖춘 대종사가 될 것이다。 또 말하되 『신재환중(身在寰中)이나 부지환중(不知寰中)이라』〔몸이 궁궐 안에 있지만 궁궐 안에 있는 줄 알지 못하더라〕 했다。 이 법문도 바로 알면 제불보살과 똑같은 견지(見地)를 얻을 뿐만 아니라 똑같이 수용(受用)하게 되는 것이다。

혜충국사가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숙종황제(肅宗皇帝)가 국사에게 묻기를 『백년 후에(돌아가신 후) 무엇을 해서 스님에게 바치리잇가』 하니、『나에게 무봉탑(無縫塔)을 만들어 주십시요』 했다。 숙종이 또 묻되 『모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 국사께서 아무 말없이 고요히 앉아 있다가、『알겠읍니까?』 하고 물었

다。그러니까 숙종이 말하되 『모르겠읍니다』 하니 국사가 말하기를 『나의 제자인 탐원(耽源)이 이 일을 알고 있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요。』 했다。 후에 설두중현선사(雪竇重顯禪師)가 이에 대하여 송(頌)하기를、

무봉탑견환난(無縫塔見還難)이라
증담불허창룡번(澄潭不許蒼龍蟠)이로다。
층락락영단단(層落落影團團)이여
천고만고여인간(千古萬古與人看)이로다。

「무봉탑을 보기란 정말 어렵네
맑은 물엔 푸른 용이 살지 않느니
층낙절벽에 걸린 달 둥글고 밝아
천고 만고에 누구든지 보게하누나。」

대중은 설두스님 뜻을 알겠는가? 적적(賊賊)이로다。〔도적놈이로다〕 천리동풍(千里同風)이요 만리지음(萬里知音)이라。〔천 리에 같은 바람、만리 길에 뜻이 통함〕

四十二장경에 말씀하되、『일체 중생을 공양(供養)하는 것이 한 아라한(阿羅漢)에게 공양하는 것만 못하고、일체아라한에게 공양하는 것이 한 보살에게 공양하는 것만 못하고、일체 보살에게 공양하는 것이 부처님 한 분에게 공양하는 것만 못하고、일체 제불에게 공양하는 것이 무심도인(無心道人) 한 분에게 공양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했다。낙포선사(洛浦禪師)에게 어떤 스님이 묻기를 『「일체 제불을 공양하는 것이 무심도인 한 분에게 공양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했는데 삼세제불(三世諸佛)은 무엇이 모자람이 있으며 무심도인은 무엇이 수승(殊勝)함이 있습니까?』하니 낙포스님이 송하되、

일편백운횡곡구(一片白雲橫谷口)하니
기다귀조진미소(幾多歸鳥盡迷巢)오
「한 조각 흰 구름이 골짜기 어구를 막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새가 돌아가는 길을 미(迷)했던고。」

이런 법문은 본분종사의 눈을 갖춘 이라야 바로 보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향곡(香谷)에게 물으면 송(頌)으로 답하리라。

일륜명월건곤외(一輪明月乾坤外)에
석인의구암하면(石人依舊岩下眠)이라。
「수레같이 밝은 달이 천지밖을 비취는데
돌사람은 여전히 바위아래 졸고있네。」

明頭來明頭打(普化振鈴)

주장자를 한 번 굴리고 말씀하시되、

조비모락(鳥飛毛落)이요 어행수탁(魚行水濁)이라。〔새가 날으니 털이 떨어지고 고기가 가니 물이 흐리다。〕

다시 주장자를 굴리고

장강세압두(長江洗鴨頭)하고 상전저개배(桑田猪揩背)로다〔오리는 강물에 머리를 씻고 멧돼지는 뽕밭에서 등을 문맨다〕

「세존이 도솔천을 떠나지 않고 벌써 왕궁에 태어 나시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중생 제도를 마치셨다」하니 대중은 알겠는가? 장착취착(將錯就錯)〔그르침으로 그르침에 나아감〕이로다。

반산보적선사 밑에 보화존자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반산스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대중을 불러 놓고 말하되 『나의 화상을 그려올 사람이 있느냐?』하니 대중이 다 화상을 그려서 반산스님께 갖다 바쳐도 다 『아니다』라고 하셨다。 그 때에 보화존자가 나와서 말하되 『제가 그려 왔읍니다。』하니 반산스님이 『어째서 나에게 바치지 않았느냐?』하니 보화존자가 냅다 곤두박질을 하고 나가 버렸다。 반산스님이 말하기를、『저녀석이 이 다음에 미친놈 같이 하여 사람을 제접해 갈 것이다。』하시더니 과연 그 말씀 같이 그 후 보화존자가 항상 십자가두에 서서 요령을 흔들면서 말하되、

명두래명두타(明頭來明頭打)하고
암두래암두타(暗頭來暗頭打)로다
사방팔면래선풍타(四方八面來旋風打)하고
허공리래연가타(虛空裡來連架打)니라。

「밝은 것이 오면 밝은 것으로 치고

어두운 것이 오면 어두운 것으로 치고
사방과 팔면에서 오면 회오리 바람으로 치고
허공 속에서 오면 도리깨로 친다」。

하면서 밤낮으로 동행(東行)하고 서행(西行)했다。

하루는 임제가 하양(河陽)과 목탑(木塔)으로 더불어 승당에 앉아서 화롯불을 쪼이면서 이야기 하기를『보화가 십자가두에 서서 철풍철전(掣風掣顚: 미치광이 짓)하니 시범(是凡)인가 시성(是聖)인가?』하였더니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언제 왔는지 보화가 임제스님 앞에 와서 서 있었다。그래서 임제스님이 묻되『여시범(汝是凡)가 시성(是聖)가』〔너가 범부냐, 성인이냐?〕하니 보화가 도로 묻되,『여차도(汝且道)하라。아시범(我是凡)가 시성(是聖)가』〔네가 일러라。내가 범부냐, 성인이냐?〕하니 임제스님이

갑자기 「할」을 벽력같이 했다。 그랬더니 보화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하되、『하양은 신부자(新婦子)요 목탑은 노파선(老婆禪)이요 임제소시아(臨濟小廝兒)는 도리어 일척안(一隻眼)을 갖추었다』하니 임제스님이 『저적(這賊)아！』〔이 도적놈아〕했다。 그러니까 보화는 『적적(賊賊)아』〔도적아！ 도적아！〕하면서 가 버렸다。

또 그 후에 보화스님이 임제스님과 같이 어떤 단월가(檀越家)에서 공양(供養) 중에 임제스님이 보화존자에게 묻기를、『모탄거해(毛呑巨海)하고 개납수미(芥納須彌)라 하니 위시신통묘용(爲是神通妙用)인가、본체여연(本體如然)인가?』〔가는 털이 큰 바다를 삼키고 조그마한 겨자씨 속에 수미산이 든다 하니 이것이 신통묘용인가、본체가 여연한 것인가?〕하니 보화존자가 공양상을 냅다 뒤엎어 버렸다。 그러니까 임제스님이 말하기를、『태추생(太麁

生)이로다』(그게 거칠구나) 했다。 보화스님이 말하되, 『저리시심마소재(這裡是什麼所在)관대 설추설세(說麁說細)인고?』(이 속에 무엇이 있기에 거칠다거나 자세하다 할 것인가?) 했다。 그 다음날에 또 보화존자가 임제스님과 같이 다시 공양청을 받아서 단월가에 가게 되었는데 임제가 또 묻기를 『금일공양(今日供養)이 하사작일(何似昨日)인가?』(오늘 공양이 어제 것과 같은가?) 하니 보화가 또 어제처럼 공양상을 뒤엎었다。 그것을 보고 임제가 말하되, 『득즉득(得卽得)이어니와 태추생(太麁生)이로다』(옳기는 곧 옳거니와 그게 거친 사람이로다) 하니 보화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되, 『할한(瞎漢)아! 불법설심마추세(佛法說什麼麁細)오』(이 눈먼 놈아, 불법에 무슨 추세를 설하는가?) 했다。 이 말을 듣고 임제가 이에 「토설」(吐舌)을 했다。(혀바닥을 쑥 빼었다) 어째서 토설을 했을까? 이것을 알아야만 한다。

이러한 작가(作家)들은 항상 모이면 이와 같이 대기대용을 희롱하는데 조금도 막힘이 없이 모든 삼매를 썼던 것이다。 그래서 마음대로 한번 걸어 보기도 하고 덮어 보기도 하고 묶어 보기도 하지만 거기에 하나도 걸리지 않고 덮히지 않고 묶이지도 않는다。 이렇듯이 임제와 보화는 안목이 참으로 높은 조사들이다。 이런 스님들께 공양올린 단월들은 참으로 진공양(眞供養)을 한 것이다。 이런 법문을 베풀어서 빛을 냈으니 몇 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그 법문이 남아 있어서 참공양을 빛낸 것이 된다。 그 뒤로는 보화존자는 항상 거리에서 요령을 흔들면서 말하되、『명두래명두타 (明頭來明頭打)하고 암두래암두타(暗頭來暗頭打)로다。 사방팔면래선풍타(四方八面來旋風打)하고 허공리래연가타(虛空裡來連架打)라』 하니、

임제스님이 하루는 시자를 불러서 말하되、『네가 가서 보화가

한창 요령을 흔들면서 말할 때에 꽉 끌어 안고는『총불여마래시여하(總不與麼來時如何)오?』(그두가 오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하시렵니까?」하고 물어 보라 시켰다。그래서 시자가 임제스님이 시키는대로 했더니 보화존자가 말하기를,『내일 대비원리(來日大悲院裏)에 유재(有齋)라』(내일 대비원에서 공양이 있다」고 엉뚱하게 말했다。

그 말을 시자가 임제스님에게 가서 그대로 이야기 했더니 임제스님이 말하되,『아종래(我從來)로 의착저한(疑着這漢)이라。』(내가 그 전부터 저녀석을 의심 했노라」고 했다。그러면 이 법문에서 의착저한(疑着這漢)이란 무슨 뜻인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보화·임제스님 같은 도인들은 용지불갈 (用之不竭)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서 몇 백 년 몇 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보화존자가 열반에 들 때 하루는 거리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나에게 누가 직철(直綴：장삼)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사람들이 직철을 만들어 드렸더니 받지 않기에 임제스님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임제스님은 원주를 시켜서 관을 하나 사오게 했다。그 때에 보화존자가 왔기에 임제스님이 말하기를, 『아여여주득개직철요야(我與汝做得箇直綴了也)라』(내가 너에게 주려고 한 벌의 직철을 만들었노라) 했다。보화존자가 관을 짊어지고 거리를 돌아 다니며 큰 소리로 말하기를 『임제여아주득직철요야(臨濟與我做得直綴了也)하니 아왕동문(我往東門)하야 천화거(遷化去)하리라。』(임제가 나에게 직철을 만들어 주었으니 내가 동문에 가서 열반하리라。) 하니 사람들이 다투어서 보화존자가 열반하는 것을 보려고 모여 들었다。그런데 하루 종일을 기다려도 열반에 들지 않았다。보화존자가 관을 짊어지고 나오면서 말하기를 『오

늘은 일진이 나쁘니 내일 남문에 가서 천화거(遷化去)하리라』했다。그래서 그 이튿날 사람들은 남문에 모여 들었다。 그러나 그 날도 열반에 들지 않았다。 그리고 관을 짊어지고 가면서 『내일 서문에 가서 열반해야 되겠다』 하기에 사람들이 또 서문에 갔더니 그 날도 역시 열반에 들지 않고 또 말하기를、『내일 북문에 가서 열반에 들겠다』 했는데 삼 일 동안을 이와 같이 하니 사람들이 모두 믿지 않았다。 그래서 사일째 되는 날에는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었다。 보화존자는 혼자서 관을 짊어지고 아무도 없는 데서 스스로 관 속에 들어가서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못을 좀 쳐 달라고 부탁을 했다。 관에 못을 쳐준 사람이 성내(城內)에 와서 소문을 퍼뜨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투어서 가보니 그 때는 벌써 늦었다。 보화존자는 열반에 들고 전신(全身)을 탈거(脫去)했는데 다못 공중(空中)에서 요령 소리만 은은히 들려 올 뿐이었다。

이렇듯 보화존자는 응화성인(應化聖人)으로서 이 세상에 나타나서 중생에게 보인 것이다。그러므로 공부해서 누구든지 깨달으면 그러한 자유자재함을 얻어서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것이다。여기에는 남녀의 구별이 없어서 예전에 능행파(陵行婆) 유철마(劉鐵馬)·대산파자(台山婆子)·영조(靈照)같은 이들은 여자지만 다 깨달아 가지고 기봉(機鋒)이 빠르고 마음대로 썼던 것이다。누구든지 공부만 하면 안되는 사람 없이 직하(直下)에 돈능자재(頓能自在)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중생이 되어서 몇 천만겁을 생사윤회(生死輪廻)만 거듭 해서 대자유를 얻지 못하고 밤낮 무한고만 받고 있는가? 중생성불(衆生成佛)이 철나중이니 부지런히 애를 써야만 될 것이다。

천언만어무인회(千言萬語無人會)하니

수풍화우과전산(隨風化雨過前山)이로다。

「천 마디 만 마디 말을 해도 아는 이가 없으니
바람을 따라 비가 화해서 앞산을 지나가네」。

叩齒三不何必

주장자(拄杖子)를 들어서 세 번 선상(禪床)을 굴리시고 말씀하시되

고인이 말씀하기를 『아약일향(我若一向)에 거량종승사(擧揚宗承事)인댄 법당전(法堂前)에 초심일장(草深一丈)이라』〔내가 만약 일향에 종승사 만을 거량 한다면 법당 앞에 풀이 한 길이나 깊어 지리라〕하였으며、조주(趙州)스님은 말하되 『재유시비(纔有是非)하면 분연실심(紛然失心)이라』〔잠깐 이라도 시비함이 있으면 분연해서 마음을 잃어 버린다〕하였으며 이 법문에서 분연실심 이라고 한 말은 가장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본분종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다。그리고 나서 조주스님이 『환유답화분야무(還有答話分也無)아』〔답을 할 분(分)이 있느냐?〕하고 물

으니 낙보(樂普)스님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고치삼하(叩齒三下)를 했다。〔윗니와 아랫니를 세 번 부딪쳤다。〕또 운거(雲居)스님은 『하필(何必)고』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 조주스님 말씀에 『금일대유인(今日大有人)이 상신실명(喪身失命)이로다。』하였으니 이것을 바로 사무쳐 알 것 같으면 불조의 근본처(根本處)가 바로 해결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공부를 해서 밖으로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인 육진(六塵)의 경계(境界)뿐만 아니라、삼라만상 일체가 있는 것을 한 물건도 보지 못하고 또 안으로 육근(六根)과 육식(六識)이 견문각지(見聞覺知)하는 것 까지도 다 잊어 버려서 육근육식 미분전경계(未分前境界)에 이르려면 자연히 밖으로 삼라만상을 다 잊어 버리고 안으로 육근육식의 견문각지와 희로애락(喜怒愛樂)이 다 없어져서 마치 돌사람과 같고 나무사람과 같아져서 몰록 무심삼매(無心三昧)에

들어 가게 되나니 이 경계(境界)에 들어가면 깨닫지 않을 래야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이 경계에 들어 가지 못했다면 모든 분별(分別)과 망상(妄想)과 번뇌(煩惱)가 경계에 닿는 대로 백천 가지 생멸(生滅)을 일으켜서 안팎이 동시에 분연히 일어 나지만 이런 경계가 일어나기 전 경계에 들어가면 무진세계(無盡世界)가 고요해 지고 청정(淸淨)해 지며 또 고요하고 청정하다는 생각 까지도 없어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좁고 좁은 그러한 곳에 있다가 홀연히 일기일경상(一機一境上)에 광탄무변(廣坦無邊)의 대천세계(大千世界)가 현발(現發)하게 된다。 이 세계는 허공도 용납할 수 없는 굉장(宏壯)한 경지를 투과(透過)하며 또한 보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인(一人)이 발진귀원(發眞歸源)할 것 같으면 시방허공(十方虛空)이 실개소망(悉皆消亡)한다고 하며 또 요득심

신도무여(了得心身都無餘)하면 원통시방법왕신(圓通十方法王身)이라。〔몸과 마음을 요달하여 남음 없이면 시방에 법왕신을 원통하리라〕하였다。이와같이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물건이 홀연히 우주에 가득 찰 만한 큰 물건이 되는 것이다。그렇게 되면 삼두육비(三頭六臂)를 갖춘 대력지인(大力之人)이 되어서 십자가두(十字街頭)에서 칠종팔횡(七縱八橫)을 하게 되나니 그 앞에는 누구라도 감히 설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덕산스님이 말하기를『궁제현변(窮諸玄辯)이라도 약일호(若一毫)를 치어태허(置於太虛)요 갈세추기(竭世樞機)라도 사일적(似一滴)을 투어거학(投於巨壑)이로다』〔모든 현변(玄辯)을 다하더라도 한 터럭을 태허공(太虛空)에 두는 것과 같고、세상에 추기(樞機)를 다하더라도 물 한 방울을 큰 골짜기에 던지는 것과 같다。〕고 했고、또『아자금이후(我自今以後)로 갱불의천하노화상

설두(更不疑天下老和尙舌頭)니라』〔내가 이후로 부터 다시는 천하 노화상의 말끝에 의심이 없노라〕고 했던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견지(見地)를 얻을 것 같으면 일생을 수용하고도 다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제(未來際)가 다하도록 수용하여도 다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선승이 늘 하는 말인데 만겁(萬劫)에 독보건곤(獨步乾坤)하고 요요명명(了了明明)하며 황황혁혁(晃晃赫赫)하고 원통원명(圓通圓明)한 경지(境地)와 무진(無盡)의 불가설제법(不可說諸法)을 성취해서 마음대로 수용한다고 한 것이다。 그러기에 황벽(黃蘗)스님의 게송에 이르기를

진로형탈사비상(塵勞逈脫事非常)하니
긴파승두주일장(緊把繩頭做一場)이어다。

약비일번한철골(若非一番寒徹骨)이면
쟁득매화박비향(爭得梅花撲鼻香)이리요
「생사의 진로에서 벗어나는 것은 보통일이 아니니
긴히 마음머리를 잡아서 한 바탕 지을 지어다。
만약에 찬 것이 한 번 골수에 사무치지 아니 할 것 같으면
어찌 매화의 향기가 코에 가득함을 얻을 수 있으리요。」

백억건곤장안리(百億乾坤長安裡)에
임운등등락만반(任運騰騰樂萬般)이라
「백억이나 되는 건곤의 장안 속에서
임운등등해서 오만가지가 다 즐겁도다。」

「할」을 한 번 하시고 법상에서 내려 오시다。

尊候起居萬福

운문(雲門)스님이 말씀하기를 『평지상(平地上)에 사인(死人)이 무수(無數)라 과득형극림(過得荊棘林)하야사 시호수(是好手)라』〔평지 위에서 죽은 사람이 수가 없는지라. 가시밭을 지나가야사 좋은 솜씨니라〕했다. 불조가 백천기관(百千機關)을 베풀어 놓은 것이 그 가시밭과 같다고 한 말이다. 이것을 투과(透過)해야만 대장부(大丈夫)의 능사필(能事畢)이 되는 것이다.

예전에 임제(臨濟)스님의 제자인 삼성(三聖)스님이 설봉(雪峰)스님을 찾아가서 묻기를 『투망금린(透網金鱗)은 미심(未審)이나 이하위식(以何爲食)이닛고』〔그물을 뚫고 나온 금붕어는 무엇을 먹읍니까?〕했다.

설봉스님이 『대여출망래(待汝出網來)하야 향여도(向汝道)하리

라』〔네가 그물을 뚫고 나오거든 너에게 이르리라〕했다。이 말에 삼성(三聖)이 말하기를 일천오백인선지식(一千五百人善知識)이 화두야불식(話頭也不識)이로다。』〔천오백명을 거느린 선지식이 화두도 알지 못하는구나〕했다。설봉스님이 말하되『노승주지사번(老僧住持事煩)이로다』〔노승이 주지사가 너무 번거롭도다〕했다。

그 후에 삼성스님이 설봉스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설봉스님이 원숭이를 보고 말하되『저미후(這獼猴)가 각각배일면고경(各各背一面古鏡)이로다』〔저 원숭이가 각각 거울 하나씩을 지고 있다〕하니 삼성이 말하되『역겁무명(歷劫無名)이어늘 하이창위고경(何以彰爲古鏡)이닛고。』〔몇 겁을 지내도 이름이 없거늘 어째서 고경이라고 들어냅니까?〕하니 설봉스님이『하생야(瑕生也)로다』〔티가 생겼도다〕하거늘, 삼성이 또 말하되『一千五百人의 선지

식이 화두야불식(話頭也不識)이로다』 했다。 그랬더니 설봉스님도 역시 말하기를 『노승(老僧)이 주지사번(住持事煩)이로다』 했다。

또 조주스님은 어린 사미(沙彌)로서 千리 밖에 있는 남전(南泉)스님을 친견하려 본사(本師)되는 스님과 같이 갔었다。 남전스님 처소에 이르러서 조실방(祖室房)에 들어갔다。 그때 남전스님이 누워 계셨는데 어린 사미를 보고 스님께서 물으시기를 『어디서 왔느냐?』 하니 조주가 『서상원(瑞像院)에서 왔읍니다』 『그러면 서상을 보았느냐?』 하니 조주가 말하되 『서상(瑞像)은 즉불견(即不見)이어니와 지견와여래(祇見臥如來)니다』 (서상은 보지 못했지만 다못 누운 부처님을 뵀읍니다) 했다。 남전스님이 『이시유주사미(爾是有主沙彌)아 무주사미(無主沙彌)아。』 (네가 주인이

있는 사미냐、없는 사미냐?』『주인이 있읍니다。』했다。『나개시이주(那箇是爾主)오』〔너의 주인이 누구인고?〕하니、동(東)쪽에서 서(西)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다갔다 한다음、본래 서있던 곳에 서서 말하되 『맹춘(孟春)이 유한(猶寒)하니 복유 화상(伏惟和尙)은 존후기거만복(尊候起居萬福)하소서』〔맹춘이 오히려 추우니、원컨대 화상께서는 존체가 만복하소서〕하면서 절을 했다。남전스님께서 기특하게 여겨서 『이 아이는 별채에 두라』했다。

이와 같이 조주스님은 조금도 미(迷)함이 없이 자유자재로 셨으며 십세 미만 인데도 도를 깨달은 바도 없이 생이지지(生而知之)라、깨닫는다 해도 이것은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뒤에 조주스님은 남전(南泉)스님의 법을 이었다。

조주스님은 八十、이 넘도록 행각(行脚)을 하며 마조(馬祖) 스님

을 비롯해서 八十여 선지식을 다 친견해도 개개작가(箇箇作家)라고 했다。그 八十여 선지식이 모두 사숙(師叔)뻘이 되거나 또는 노덕(老德)스님들 인데도 거기에서 조금도 속지 않고 또 막히지도 않았으며、기봉(機鋒)을 서로 주고 받는데 살활종탈(殺活縱奪)을 종횡자재(縱橫自在)로 썼던 것이다。그래서 조주스님을 모두가 조주고불(古佛)이라고 불렀다。

하루는 조주스님이 국청사(國淸寺)에 한산(寒山) 습득(拾得)을 찾아 갔었다。한산과 습득이 부엌에 앉아서 불을 쪼이고 있는데 조주스님이 말하되 『한산과 습득이라고 널리 들리더니 와서보니 두 마리 수고우(水牯牛)로구나!』했다。수고우란 야생(野生)의 들소로서 걸림없이 제 마음대로 다니면서 풀을 뜯는 소이다。그랬더니 둘이서 그 말을 듣고 부엌에서 나와서 소싸움하듯이 서로 들이 밀었다。그래서 조주가 『질질(叱叱)』하고 꾸짖었다。여기서 향

곡(香谷)이 착어(着語)를 하자면 『양개적(兩個賊)이로다』했을 터인데 조주는 어째서 질질(叱叱)이라고 했을까? 그런데 한산이 눈을 부릅뜨고 조주스님을 바로보니 조주스님은 겁이 나는 형세를 짓고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뒤따라서 한산 습득도 따라 들어와서 묻기를 『전래사작마생(前來事作麼生)고〔아까 우리가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하니 조주가 손바닥을 치면서 웃었다。 이 가운데에 다 살활종탈(殺活縱奪)이 있는 것이다。

또 조주스님이 운거(雲居)스님 회상(會上)에 찾아가니 운거스님이 말하기를 『노노대대(老老大大)가 하불멱개주처(何不覔介住處)오』〔다 늙은이가 어찌하여 주처도 찾지 못하는고?〕했다。 그래서 조주스님이 묻되 『십마처시모주처(什麼處是某住處)오』〔어떤 곳이 나의 주처입니까?〕하니、운거스님이 『산전(山前)에 유개고사기(有箇古寺基)니라』〔산 앞에 옛 절터가 있나니라〕했다。

그 말에 조주스님이 묻되 『화상하부자주(和尚何不自住)오』 〔화상은 어째서 주하지 못합니까?〕 하니 운거스님이 답을 않고 그만 쉬었다。

그러면 이 법문에서「산전고사기」는 어떤 곳인가? 또 운거스님은 수백명을 거느린 스님이라 주처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화상하부자주오」라고 했는가? 조주스님은 이와 같이 모든 기봉(機鋒)을 항상 구름과 같이 비와 같이 써서 모든 것에 걸림이 없었다。

구순결해양망처(九旬結解兩忘處)에
일성금린비천외(一聲金鱗飛天外)로다
「九十 일 동안의 결제와 해제를 둘 다 잊어 버리니
한 소리 금고기는 하늘 밖을 날더라。」

摘楊花摘楊花

주장자로 세 번 법상을 치고 할을 한 번 하신 다음 『알겠는가?』하시고 이어 게송하시되

십년정좌법중대(十年靜坐法中臺) 러니
투과위음나변외(透過威音那邊外) 로다
무한건곤고국리(無限乾坤古國裡) 에
기도백화자고제(幾度百花鷓鴣啼) 런가

「十년을 법중대에 앉아 있더니
위음왕불 이전까지 투과 했노라
무한한 건곤(乾坤)천지 고국(古國) 그 속에
백화는 향기롭고 자고새는 울부짖네!」

조주스님 회상에 어떤 스님이 오래 머물러 있다가 하직 인사를 하러 가니 조주스님이 말하되 『유불처(有佛處)에 부득주(不得住)하고 무불처(無佛處)에 급주과(急走過)하야 삼천리외 (三千里外)에 봉인(逢人)커든 막착거(莫錯擧) 하라』〔부처 있는 곳에는 주하지 말고, 부처 없는 곳에 서는 급히 지나가서 삼천리 밖에서 사람을 만나거든 그릇 들어 보이지 말지니라〕했다。그랬더니 『임마즉불거(恁麼則不去)니다。』〔그렇다면 가지 않겠읍니다〕하니 조주스님이 말하기를 『적양화적양화(摘楊花摘楊花)로다』〔버들잎을 따고 버들잎을 따는구나〕하셨다。

또 방거사(龐居士)가 초암중(草庵中)에 독좌(獨坐)해 있다가 갑자기 말하되 『난난(難難)이여, 백석유마(百碩油麻)를 수상난(樹上攤) 이로다。』〔어렵고 어려움이여—백석이나 되는 유마(油麻)를 나무위에 폄이로다〕하니, 방파(龐婆)가 이 말을 듣고 말하되 『이

이(易易)여、백초두상(百草頭上)에 조사의(祖師意)로다』〔쉽고 쉬움이여! 백가지 풀위에 조사의 뜻이로다〕했다。 방거사의 딸 영조(靈照)가 듣고 있다가 말하기를 『야불난야불이(也不難也不易)여、기래긱반곤래수(飢來喫飯困來睡)로다』〔어려움도 없고 쉬움도 없음이여!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곤하면 잠자는도다〕라 했다。

이 법문은 삼천리 밖에서 수수독립(垂手獨立)해서 종동과서(從東過西)하고 종서과동(從西過東)하며 마음대로 하는 시절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을 다 마친 대장부가 되어서 무슨 법이든지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것이다。

운재영상한불철(雲在嶺上閑不撤)하고
수류간하태망생(水流澗下太忙生)이로다。

「구름은 영마루에 한가로히 머무는데
흐르는 물은 바위틈에서 무던히도 바쁘더라」

文殊淸淨道場

『대지(大地)에 절섬애(絶纖埃)어늘 하인(何人)이 안불개(眼不開)아』〔대지에 티끌이 없어졌는데 어느 누가 눈을 뜨지 못하겠는가?〕

『이학(羸鶴)은 교한목(翹寒木)하고 광원(狂猿)은 소고대(嘯古臺)로다』〔여윈 학은 고목에서 한 쪽 다리를 들고 섰고, 까부는 원숭이는 고대에서 울고있더라.〕

부처님 회상에서 해제일(解制日)은 자자(自恣)하는 날로써, 제방에서 안거(安居)한 이들이 모여오고 있었다. 문수보살은 부처님 회상에서 안거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지내다가 자자에 참예(參詣)하러 왔다. 가섭존자가 보고 『어디서 안거를 하고 이제 오는가?』하고 물으니 문수가 『나는 백정(白丁)의 집에서 한 달

있었고 기생의 집에서 한 달 술집에서 한 달 있다가 왔노라』 했다。 그래서 가섭존자가 『너는 해제에 참석할 수가 없다。 나쁜 곳에만 돌아 다니다 왔으니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다。 여기 대중은 청정일여(淸淨一如)해서 조금도 동함이 없는 대보리도장(大菩提道場)에 있는데、 네가 여기에 끼일 수가 있느냐?』 꾸짖고는 백추(白槌)를 들고 문수를 쫓아 내려고 했더니 별안간에 문수가 백억문수(百億文殊)로 화(化)하여 가득차버렸다。 세존께서 빙그레 미소를 지으시며 『가섭아、 어느 문수를 쫓아내려고 하는가?』 하셨다。 이 말씀은 『어느 문수가 참문수냐?』 하는 말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깨닫고 보면 무진세계(無盡世界)가 다 원각(圓覺) 세계이기 때문에、 이런 세계에서 보면 중생이 춤추고、 술먹고、 놀고、 살생하는 등을 하나도 볼 수가 없어서 곳곳이 다 대청정보리도장 아닌 곳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삼조(三祖) 승찬대사(僧燦

大師)의 신심명(信心銘)에는

「지도무난(至道無難)이라 유혐간택(唯嫌揀擇)이니 단막증애(但莫憎愛)하면 통연명백(洞然明白)하리라。」〔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는지라 오직 간택을 꺼릴 뿐이니、다못 증애심만 없으면 통연해서 명백하리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확연명백(確然明白)하면 결정된 무변대도(無邊大道)이기 때문에、거기에는 생사도 없고、진애도 없고、원근도 없고、노소도 없어서 백억무진세계가 대청정적멸법당(大淸淨寂滅法堂) 아닌 곳이 없는 것이다。그래서 개문견석가(開門見釋迦)하고 권박봉미륵(捲箔逢彌勒)이라〔문을 열면 석가를 뵈옵고、발을 걷우면 미륵을 만난다〕고 했는데 이것은 나무나 돌이나 흙으로 만든 석가나 미륵상이 아니고、여래청정진법신(如來淸淨眞法身)을 친

견 한다는 말이다。

백조(白鳥)는 하장강(下長江)하고
고운(孤雲)은 생원수(生遠岫)로다。
「백조는 긴 강을 따라서 앉고
외로운 구름은 먼 묏뿌리에서 일어나더라」。

世尊良久法門

양구(良久)를 하신 다음 말씀하시되

사부대중(四部大衆)은 알겠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탈진어복(脫珍御服)하고 착폐구의(著弊垢衣)라』〔진어복을 벗어 놓고 폐구의를 입었노라〕 하셨으니, 이 법문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높은 뜻이 있는 것이다. 진어복이란 천자(天子)가 입는 보배 옷인데 상상근기인(上上根機人)을 두고 말한 것이요, 폐구의라 하는 것은 중하근기(中下根機)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제법적멸상(諸法寂滅相)은 불가이언설(不可以言說)이라 아령불설법(我寧不說法)하고 질입어열반(疾入於涅槃)이라。』〔제법의 적멸상은 가히 말로서 베풀 수 없는지라

나는 차라리 법을 설하지 말고 어서 열반에 들어버릴 까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법은 설해봐야 뉘가 어떻게 되는지 까마득하기 때문에 막연지상(漠然之想)을 내게된다. 마치 광대무변한 바다를 바라보면서 『저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나』하고 어렴풋한 생각을 내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하근기인을 위해서 방편문을 열어서 四十九년 동안 설한 일대시교(一代時敎)가 팔만장경(八萬藏經)이 되었다. 그러나 아까 산승이 승좌(陞座)해서 아무 말없이 앉아 있다가 『사부대중은 알겠는가』하고 말한 것은 언어(言語)나 문자(文字)로는 설할 수 없는 것이다.

언어나 문자를 의지해서 설한 교법(教法)에는 보리(菩提)라고도 하고, 원각(圓覺)이라고도 하고, 도(道)라고도 하고, 묘각(妙覺)이라고도 하고, 심지(心地)라고도 해서 많고 많은 명상(名

相)과 술어(述語)가 있는데 이 명상과 술어를 떠나서 법문을 하면 중하 근기는 하나도 알아 듣지를 못하게 된다。

조주스님에게는 연왕(燕王)과 조왕(趙王)이 자주 와서 법문을 청했는데、하루는 시자(侍者)가 『대왕(大王)이 옵니다。』하고 알리니까 조주스님이 깜짝 놀라면서 『왔느냐』하고 말했다。또 시자가 『대왕이 이르지 않았읍니다』하니 『또 왔느냐』하고 말했다。

여기에서 『또 왔느냐』하는 이 말을 바로 알면 법문을 조금 알아 들을 수 있을 것이다。그런데 대왕이 막상 왔을 때는 선상(禪床)위에 가만히 앉은 채 접대를 하며 말하기를 『상근기인(上根機人)이 오면 선상에서 앉아 접대하고、중근기인이 오면 저문밖에 나가서 접대하고、하근기인이 올 것 같으면 저 산문(山門)밖에 까지 나가서 접대한다。』고 말했다。그러니까 조왕과 연왕

은 그 뜻을 알고 절을 하며 좋아했다고 한다。

그렇듯이 앞을 열어서 봐라고 말하는 것 보다는 아무 말없이 있는 이것을 바로 알고 바로 투과하면 대장부사를 다 마치게 되는 것이다。

선승이 항상 하는 법문인데, 부처님 당시에 어떤 외도가 와서 부처님께 묻기를『불문유언(不問有言)하고 불문무언(不問無言)이니다。』〔유언이로도 묻지 않고 무언이로도 묻지 않나이다。〕하니 부처님께서 아무 말없이 가만히 앉아 계셨다。이 때에 그 외도는 부처님께서『양구(良久)』한 뜻을 척 알아 차리고 일어나서『세존께서는 대자대비로 나의 미운(迷雲)을 열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읍니다。』하고 절을 하고는 떠났다 한다。이 법문에서 부처님은 법을 다 설하셨고, 또 외도는 그 법문을 다 알아가지고 가버린 것이다。

그 때에 부처님 옆에 아난존자가 있었는데 항상 부처님 곁에서 부처님 법문을 한량없이 듣고 총명했기 때문에 四十九년 동안 설한 부처님의 일대시교(一代時敎)를 하나도 잊지 않고 그대로 기억(記憶) 했었다。그래서 부처님 십대제자(十大弟子) 가운데에 다문제일(多聞第一)이라 했었다。그러한 아난존자 이지만 부처님께서 양구하신 뜻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고 또 외도가 말한 뜻도 도무지 알 수 없어서 부처님께 여쭈었다。『외도(外道)가 유하소증(有何所證)하야 이언득입(而言得入)이넛고。』〔외도는 무엇을 증득해서 득입했다고 했읍니까?〕하니 답하시기를『여세양마(如世良馬)는 견편영이행(見鞭影而行)이니라。』〔세상의 좋은 말은 채찍 그림자만 보고도 갈 길을 아느니라。〕고 말했다。그러니 구태어 입을 열어서 광장설(廣長說)을 한다고 해서 법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영봉수풍천리거(英鳳隨風千里去)하고
치조의구서이번(痴鳥依舊棲籬藩)이라。
「영특한 봉은 바람을 따라서 천리를 날아가 버리는데
어리석은 뱁새는 옛날 그대로 울타리 밑을 못 면하는구나。」

울타리의 마른 가지는 아무 소용도 없는데 거기에 머물러서 무엇을 찾을 것인가? 그러기에 부처님의 정법안장(正法眼藏)과 열반묘심(涅槃妙心)과 교외별전(敎外別傳)은 모두 불입문자(不立文字)라 하였으니 四十九년 동안 설한 것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면 부처님께서 아무 말없이 앉아 계신 그 뜻을 알게 될 것이며、 아까 산승이 묵좌(默坐)한 뜻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에 말한 조주스님의 상상근기법문(上上根機法門)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법문은 공부를 해서 투과지안(透過之眼)을 갖추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누구던지 공부를 애써서 언제라도 해결이 되어야만 바로 알고、바로 보고、바로 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차법(此法)은 심심의(深深意)라。 또는 차법은 몰가사(沒可思)라고 하는 것이다。

이 법의 경지는 참으로 이것을 깨달아야만 법법이 원통원명(圓通圓明)하고 법법이 무진세계(無盡世界)를 덮어서 빛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요사지인(了事之人)이 되게 되는 것이다。

만고벽담공계월(萬古碧潭空界月)을
제삼뢰록시응지(再三撈漉始應知)하리라。
「만고의 푸른 못에 비친 공계의 달을
두서너 번 건져 봐야사 비로소 알리라」。

이 뜻을 바로 알도록 공부를 잘 해 가기 부탁하노라。

주장자로 법상을 한 번 굴리시고 자리에서 내려 오시다。

(丁巳年 五月四日 妙觀音寺에서)

道不屬知不知

주장자(拄杖子)로 법상(法床)을 한 번 굴리시고、

『九九는 八十一이라』 하시고

또 주장자로 법상을 한 번 굴리시고『사고(師姑)는 원래여인주(原來女人做)니라。』〔비구니는 원래로 여자가 되는 것이라〕 또주장자로 법상을 한 번 굴리시고 『곡각리(曲脚裡)에 유직각(有直脚)이라』〔꾸부러진 다리 속에 바른 다리가 있느니라〕

『환회마(還會麼)아』〔알겠느냐?〕 여기에서 분명히 알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해제를 해서 마쳐 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백천법문(百千法門)과 무량묘의(無量妙義)와 무진삼매(無盡三昧)를 한꺼번에 다 알아 가지고 천상인간에 무애자재(無碍自在)해서 등등임운(騰騰任運)하고 임운등등(任運騰騰)하게 된다。

그리고 삼세제불(三世諸佛)과 역대조사(歷代祖師)와 문수보현(文殊普賢)같은 모든 보살과 천하노화상(天下老和尚)으로 더불어 조금도 다름이 없이 꼭 같은 경지(境地)에서 행주좌와(行住坐臥)하고 어묵동정(語默動靜)하며 동서사방(東西四方)으로 다다르는 곳마다 항상 황황혁혁(晃晃赫赫)하고 외외당당(嵬嵬堂堂)해서 만겁(萬劫)에 독로(獨露)하고 만겁(萬劫)에 체자여여(體自如如)해서 영원히 매(昧)하지 않는 것이다。

그전에 어떤 이가 나에게 묻기를 『깨닫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하기에 『동지한식(冬至寒食)이 백 오 일이라』 답했더니라。 이 『동지한식 백 오 일이라』 하는 뜻을 잘 모르면 불법의 참된 골수(骨髓)를 꿈에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또 누가 나에게 와서 『스님은 견성(見性)을 했읍니까、 못했읍니까?』 하고 묻기에 역시 『동지한식이 백 오 일이라』 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물은 사람은

말하기를 『저는 스님의 답이 다르게 나올 줄 알았읍니다』 하기 에『동지한식 백 오 일이라는 뜻을 아느냐?』 하니 『제가 물을 때에 저를 때릴 줄로 알았는데 동지한식 백 오 일이라 하니 정말로 알 수가 없읍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이것을 바로 알면 불견(佛見)법견(法見)이 있을 수 없는 경지가 된다。 그러나 만약에 티끌만치라도 불견법견이 남아 있을 것 같으면 대온좌지인(大穩坐之人)은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문정안(正門正眼)을 갖추어야사 참된 종사(宗師)가 될 수 있고 불법을 제창(提唱)할 수가 있는 것이다。

고인(古人)이 말하되 『오역불무(悟亦不無)나 낙재이두(落在二頭)라』〔깨달음이 또한 없지는 않으나 이두(二頭)에 떨어져 있다〕했고 또한 『도즉불사(道即不謝)나 공상아손(恐傷兒孫)이라』〔이르는 것은 사양하지 않으나 자손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 한다〕고 했

다。이 말은 매우 깊은 뜻이 있는 말이니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그래서 제일구하(第一句下)에 천득(薦得)하면 불조(佛祖)로 더불어 스승이 되고, 제이구하(第二句下)에 천득하면 인천(人天)이로 더불어 스승이 되며, 제삼구하(第三句下)에 천득하면 자구(自救)도 불요(不了)라 했느니라。이에 대해서 고인은 평(評)하기를 『제일구는 여인인공(如印印空)하고, 제이구는 여인인수(如印印水)하며, 제삼구(第三句)는 여인인니(如印印泥)라。』〔제일구는 인을 가지고 허공에 인치는 것과 같고, 제이구는 인을 가지고 물에 인(印)치는 것과 같이며, 제삼구는 인을 가지고 진흙에 인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렇게 말한 것을 아는 사람은 다 환하게 아는데 고인(古人)들이 말하기를 『도불속지부지(道不屬知不知)라』〔도는 알고 알지 못하는데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 이것을 바로 해결해야만

제일구와 제이구와 제삼구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임마야불시(恁麼也不是)요、불임마야불시(不恁麼也不是)며、임마불임마총불시(恁麼不恁麼總不是)라 하면 진금실색(眞金失色)이요、임마야시(恁麼也是)요、불임마야시(不恁麼也是)라。임마불임마총시(恁麼不恁麼總是)라 하면 확토성금(擭土成金)이라고 했다。우리가 깨달으면 만상삼라응현후(萬像森羅應現後)에 일일명명일진(一一明明一一眞)이 된다。이런 경지(境地)에 가야만 수방자유(收放自由)가 있고、살활자재(殺活自在)가 있으며、종횡무애(縱橫無碍)가 있고、여탈자재(與奪自在)가 있다。조주(趙州)스님은 어릴 때에 깨달아서 팔십이 넘도록 행각(行脚)했는데 제방(諸方)에 선지식(善知識)과 겨루어서 진안목(眞眼目)을 갖추기 위해서 행각(行脚)했었다。

조주스님이 한 암자(庵子)에 가서 『암주재마(庵主在麼)아』 하

고 물으니 암주가 『수권(竪拳)』을 해보였다。수권이란 주먹을 바로 들어 보이는 것을 말한다。그러니까 조주스님이 말하되 『수천불시박선처(水淺不是泊船處)』라〔물이 얕아서 이곳에 배를 대지 못하겠노라〕하고 가버렸다。조주스님은 이와 같이 말을 하지만 아는 사람은 전광석화(電光石火)와 같이 알아 챈다。또 조주스님이 다른 암자에 가서 『암주재마(庵主在麼)아。』하고 물으니 암주가 또한 『수권(竪拳)』을 해보였다。그런데 여기서는 조주스님이 『능종능탈(能縱能奪)하고 능살능활(能殺能活)이로다』〔능히 주기도 하고 능히 빼앗기도 하며、능히 죽이기도 하고 능히 살리기도 한다〕고 말하면서 예배를 했다。그러면 똑같이 주먹을 들어서 보였는데 한 사람은 어째서 긍정(肯定)하고 한 사람은 어째서 불긍했는지 대중(大衆)은 알겠는가? 간각하(看脚下)하라!

할(喝)을 한 번 하시고 법상(法床)에서 내려오시다。

(丁巳年 夏安居 桐華寺에서)

觀法王法如是

양구(良久)하신 다음 말씀하시되,

대중은 알겠는가? 석가·달마도 갱참(更參) 삼십 년 하여야 시득(始得)다。 세존께서 하루는 법상에 올라가서 정좌하고 계시니 문수보살이 일어나서 백추(白槌)를 치고 외치는 『자세히 법왕법(法王法)을 보니 법왕법이 이와 같습니다』했다。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세존께서 법상에서 내려오셔서 본처에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할 때 법문을 다해 마친 것이다。중국(中國)에 약산(藥山)스님도 원주(院主)스님이 종을 쳐 법상에 올라갔으나 한참동안 아무 말없이 앉아 계시다가 문득 내려와서 방장(方丈)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원주가 뒤쫓아 가서 말하기를 『화상께서 대중을 위해 법을 설하기를 허락해 주시더니 어째서 한 마디도 수교(垂

敎)해 주시지 않습니까?』하니 약산스님 말씀이 『경유경사(經有經師)하고 논유논사(論有論師)하니 막괴노승사(莫怪老僧師)라。』〔경에는 경사(강사)가 있고、논에는 논사가 있으니、노승을 괴이하게 여기지 말라〕하셨다。

그러니 법문 이라는 것은 입을 열어서 이야기 하는 것만이 법문이 아니다。언어(言語)의 이전(以前)에 알아버리면 더 설할 것이 없는 것이니 더 설할 것이 있다하면 도리어 시원찮은 일이 된다。

금강경에도 첫 머리에 『그때에 세존께서 식시(食時)라 가사를 수하고、바루를 드시고、사위성중에 들어가서 차제로 밥을 빌어가지고 계시던 곳에 돌아와서 공양 잡수시고 나서 의발을 걷우시고 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앉으시었다。

때에 장노수보리(長老須菩提)가 대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를 벗어 메고 오른 무릎을 땅에 꿇고 합장하고 공경하며 부처님께 말씀 드리기를 「희유(希有)하십니다。 세존이시여」 하였다。」

여기에 어째서 「희유세존」이라 했겠는가? 아무 말 없이 부처님께서 앉아 계셨는데 무엇을 보고 희유하다 했을까? 수보리가 본 그곳을 바로 보아버리기만 한다면 부처님이 사십구년(四十九年) 설한 것을 다 알아버리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장부가 할 일을 다해 마쳐서 백천법문과 무량묘의와 무진삼매를 한꺼번에 다 알아 버리며 또 삼세제불과 시방보살과 모든 조사와 화장찰해와 극락세계와 상적광토(常寂光土)와 일체 모든 세계를 한꺼번에 보아 마치어서 다시 더할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선 공부하는 것은 이것 하나 해결하는데 있는 것이

지 딴데 있는 것이 아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항상 법을 무시부절(無時不絶)로 설하고 있기 때문에 입을 가지고 항하사(恒河沙)와 같은 삼세제불과 역대조사와 모든 보살이 미래제(未來際)가 다하도록 아무리 설한다 하더라도 역시 법은 조금도 건드려 보지 못하는 것이다。 즉 설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 입을 열어서 설하는데 설하지 못한다고 하며、 또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이 무슨 허물이 되는가? 설하지도 못하고 설할 수도 없는데 부처님은 어찌하여 사십 구 년을 설했을까?

이것을 바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산승(山僧)이 항상 하는 말은 말해 보아도 그저그렇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깨달은 사람이면 말을 안해도 축착합착(築著磕著)하여 명경당대(明鏡當臺)와 같이 호래호현(胡來胡現)하고 한래한현(漢來漢現)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열거한 불조(佛祖)의 의지(意旨)를 알겠는가? 양구(良久)하고 이르시되、

원앙소출종군간(鴛鴦繡出從君看)이나
막파금침도여인(莫把金針渡與人)하라。
「원앙새 수를 놓아 그대보라 하였더니
금침을 가져다가 남에게는 주지마소。」
주장자를 한 번 굴리시고 내려오시다。

紅爐裡一點雪

유 일기(有一機)하니 위음왕불 이전(威音王佛以前)에는 동(東)을 쫓아서 서(西)에 서고 누지불 이후(樓至佛以後)에는 서를 쫓아서 동에 선다。 대중은 알겠는가?

여기에서 확연 명백하게 알 것 같으면 일체 모든 무량묘리(無量妙理)와 진진삼매(塵塵三昧)를 모두 알아서 명경당대(明鏡當臺)와 같이 검은 것이 오면 검게 나타나고 붉은 것이 오면 붉게 나타나서 조금도 걸림이 없고 또 아무리 백천만억경계(百千萬億境界)가 오더라도 거기에 아무런 간섭 됨이 없이 여여부동(如如不動)해서 일체 모든 경계가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불법은 누구든지 깨달음으로써 아는 것이지 깨닫지 못하면

천경만론(千經萬論)을 외우고 쓰더라도 다 큰 힘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법은 깨달은 분상(分上)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표현해야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또 모로 구르거나 뒤로 가거나 옆으로 가거나 항상 황황혁혁(晃晃赫赫)해서 빛이 더 나게 되는 것이다。연꽃은 항상 물 가운데 나는 것이지 높은 언덕이나 마른 땅에는 나지도 않고 클 수도 없는 것이지만 천도 만도나 되는 뜨거운 불 가운데 피는 연꽃은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고 언제든지 피어 있는 것이다。이 세계가 다 타서 없어져도 그 연꽃은 더 빛나고 더 향기가 나서 곳곳에 다다르는 곳마다 향기가 더욱 분분하다。그와 같이 공부를 해서 깨달아 가지고 자기의 인물을 확실히 밝게 갖출 것 같으면 화중생련(火中生蓮)과 같아서 아무리 써도 다함이 없는 것이다。

그러하여 이 도리를 능히 해결해서 깨달을 것 같으면 최초 위음왕불 전이나 최후 누지불 후에도 다함이 없이 항상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다。 허공은 다함이 있을 지언정 이 도리는 다함이 없어 한 번 깨달으면 영겁에 미(迷)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일대 장교를 설하셨어도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오히려 모래를 빨리고 흙 가루를 빨리는 것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다。 마치 수미산보다 몇 천 만 배나 더 크고 많은 진수성찬이 가득히 있어 온계 모든 사람이 미래제가 다하도록 배부르게 먹고도 남는데 공연히 생각하되 부처님이 어째서 찬밥이나 찌꺼기 밥을 먹이라고 권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또 달마대사가 동토(東土)에 법을 전하러 왔다 함도 역시 대사담수매해변(大似擔水賣海邊)이라〔물을 짊어지고 해변가에 와서 파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전이나 공부를 한 이후라도 자기의 근본이나 정법안장이나 공겁전 자기는 항상 시시로 드러나 있고 조금도 모자람이 없나니 여기와 누가 와서 뭐라고 할 것인가? 그 옛에는 백 천 법문과 무량묘리도 홍로일점설(紅爐一點雪)이라.〔화로 속의 한 점 눈과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정문정안(頂門正眼)이로서는 몸 전체가 이 손이요 또 눈이다. 여기서 몸 전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이 육신 몸뿐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덮고 땅도 덮고 대천세계를 덮을 만한 안목을 갖춘 큰 몸을 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체가 눈이요 손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보고 쓸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뭣이라고 이름해도 축착합착이 되어서 맞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 그래서 모든 불조가 살활(殺活)이 자재하고, 수방(收

放)이 자유하며、 기용(機用)이 무애(無碍)해서 살활(殺活) 종탈(縱奪)을 마음대로 하고 기용제시(機用提示)를 마음대로 쓰는 것이다。

일파유조수부득(一把柳條收不得)하야
화풍탑재옥란간(和風搭在玉欄干)이로다
「한 줌의 버들가지 거두어 얻지못해
봄바람에 옥난간에 걸어두도다。」

大寶鏡放毫光

일성옥저취고루(一聲玉笛吹高樓)하니
삼천세계진가무(三千世界盡歌舞)라。
「한 소리 옥젓대를 누각에서 높이 부니
삼천대천 세계가 다 노래하고 춤을 추네!」

여기에 무슨 생사가 있겠는가? 우리가 이러한 소식을 알고 또 이렇게 되기 위해서 밤낮으로 정진을 하며 또 이렇게 되게 할려고 법문을 설하는 것이다。육도중생이 낱낱이 다 보배거울이 있는데、무념무상(無念無相)이라 형상도 없고 장단도 없다。이 보배거울은 무량세계가 멸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그러기에 이 거울 가운데에서 일체제불과 육도중생이 한 걸음도 여의지 않고

항상 살고 있으며 여기에 모인 대중들도 다 이 거울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거울만 깨달아 알면 부처가 있는 곳을 환하게 알게 되며 또 이 거울을 행주좌와(行住坐臥)와 어묵동정(語默動靜)에 자유자재로 수용하는 그 가운데서도 조금도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느 세계가 극락세계 아닌 곳이 없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만약 금일 대중이 천득(薦得)해 갈 것 같으면 백천만억겁에 조금도 오고 감이 없고 나고 죽는 것도 없는 대보경(大寶鏡)의 삼매에 들어가서 눈 깜짝할 사이에 수천만억겁이 지나가게 된다. 이러한 곳을 자수용삼매(自受用三昧)라고도 하며 제불의 안신입명처(安身立命處)라고도 하는 것이다.

예전에 천태지자선사(天台智者禪師)는 법화삼매(法華三昧)에 들어 있었다가 나중에 깨어나서 말하되 『영산회상(靈山會上)이 엄연

(嚴然)히 흩어지지 아니 한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누구던지 깨달으면 다 이렇게 되는데 공부해서 깨닫는 것은 여자라고 못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꼭 남자만 하는 것도 아니다。

중국에 요연비구니(了然比丘尼)는 공부를 해서 깨달았으니 오송(悟道頌)에 이르되

오온산두고불당(五蘊山頭古佛堂)에
비로주야방호광(毘盧晝夜放毫光)이라。
약지차처비동이(若知此處非同異)하면
즉시화엄변시방(即是華嚴遍十方)이로다。
「오온의 망상 무더기가 그대로 고불당인데
비로자나 부처님이 주야로 항상 백호광명을 놓고 있네。
만약 여기에서 이동(異同)없는 것을 안다면

곧 이 화장장엄이 시방세계에 두루하리라」。

이 게송에서 방호광(放毫光)이라는 말은 깨달은 사람이라야 아는 것이다。 비로자나는 법신불(法身佛)인데 항상 광명을 놓고 있는 그곳은 바로 적광토(寂光土)이다。 광명을 놓는다 하면 달이나 해처럼 환하게 놓는 광명이 아니고 항상 고요하고 청정하며 일여(一如)해서 거기에는 일체무명업식번뇌(一切無明業識煩惱)가 없고 생사가 영원히 끊어진 상적광토(常寂光土)이다。 그래서 그곳은 적광삼매(寂光三昧)이다。 그리고 화엄세계(華嚴世界)는 모든 부처님과 중중무진(重重無盡)의 보살이 계신 불가사의(不可思議)한 불세계를 말한다。 누구라도 공부해서 깨닫기만 하면 이와 꼭 같이 되는 것이다。

천언만어무인회(千言萬語無人會)하니

우과야당추수심(雨過夜塘秋水深)이로다。

「천마디 만마디 말을 해도 아는 이 하나 없고
비가 온 연못에 추수(秋水)만이 깊더라」。

清淨眞如眞佛

구모당중(龜毛堂中)에 제옥마(啼玉馬)하고
토각교상(兎角橋上)에 주철우(走鐵牛)로다。
「거북이 털로 만든 집가운데서 옥으로 만든 말이 울부짖고
토끼뿔로 만든 다리 위에서 쇠로 만든 소가 달아나더라」。

석인(石人)은 수미(須彌)에서 타금고(打金鼓)하고
목녀(木女)는 해저(海底)에서 취무가(醉舞歌)로다。
「돌로 만든 사람이 수미산에서 금북을 치니
나무로 만든 여자는 바다 밑에서
술취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더라」。

이 게송을 분명히 알 것 같으면 불조로 더불어 꼭 같이 수용

(受用)할 것이다。 염기하는 일체 티끌이 없어서 극락세계 상적광토(常寂光土)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바로 알게 되면 견성을 했다고도 하고，해탈(解脫)을 했다고도 하며，성도(成道)를 했다고도 하고，생사를 초월했다고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몸이 없어지면 죽었다고 슬퍼하며，이 세상에 태어나면 왔다고 좋아하는가? 오고 가는 것이 있고 나고 죽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명이 중생의 눈을 가리어서 생멸이 없는 경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다。이렇게 마음 눈이 가리우면 중생이 가지가지 번뇌가 일어나는데，염기하여 신심과 용맹심을 가져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서，공부를 하여 자기마음을 알게 되면，청정진여(淸淨眞如)의 진불(眞佛)을 알게 되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다시는 생멸이 있는 경계를 볼래야 볼 수가 없

게 된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백천만겁에 고통을 받고 또 생사를 받아 육도윤회의 세계에서 돌고 돌게 마련이다。

고인이 말하기를 『참선은 수투조사관(須透祖師關)이라』했다。 이렇게 되면 진대지시방세계(盡大地十方世界)가 다 구모토각(龜毛兎角)인데、어찌 세계가 있고 생사가 있겠는가?

중생은 과거 무시이래로 오늘 날에 이르도록 오고 가고、가고 오며、한없이 윤회하였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는 것은 과거에 지은 인연으로 팔식(八識)을 인해서 태어나게 되기 때문에 제팔식을 종자식이니 여래장식(如來藏識)이니 하고 이름하는데、이것은 근본무명(根本無明)을 없애야만 해결이 되는 것이지 무명을 없애지 못하면 나기 싫어도 나야만 하고、나고 싶어도 나지 못하며 육도(六途) 가운데에 돌고 돌며 윤회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일념착오(一念錯誤)로 자꾸만 생사 속에 만반형(萬般形)을 받

게 되는 것이다。

장졸수재(張拙秀才)라는 거사(居士)가 송하기를、

광명적조변하사(光明寂照遍河沙)하야
준동함령공일가(蠢動含靈共一家)라
일념불생전체현(一念不生全體現)하니
육근재동피운차(六根纔動被雲遮)라
단제번뇌증중병(斷除煩惱增重病)이요
취향보리역시사(取向菩提亦是邪)라
수순중생무가애(隨順衆生無罣碍)하니
생사열반시공화(生死涅槃是空花)로다。

「광명이 고요히 비추어서 항하사세계에 두루해서
준동함령이 모두 다 한 집안이더라。

한 생각이 나지 않으면 전체가 드러나고
육근(六根)이 겨우 움직이면 구름에 가려버리는지라
번뇌를 단제(斷除)하려면 거듭 병통만 더함이요
보리에 취향(取向)하려함도 또한 삿된 것이라
중생을 수순(隨順)함에 걸림이 없으니
생사와 열반이 모두 허공꽃이더라」

이 게송이 보기에는 수수해 보이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이다.

참선은 만법(萬法)의 근원(根源)을 찾는 것이니 근원만 찾으면 지엽(枝葉)은 저절로 따르기 마련이며, 지엽적인 물질만을 좇고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은 마치 제 죽을 줄 모르고 불만 보고 달려드는 불나비와 같은 것이다.

화두도 없는 고요한 바다에서 배타는 것은 누가 못하랴만, 배랑

(白浪)이 도천(滔天)하고 홍파(洪波)가 호묘(浩渺)한 그 속에서 미(迷)하지 않는 것이 조사선(祖師禪)·활구선(活句禪)의 경계인 것이다。이것을 깨달아서 대용전창지시절(大用全彰之時節)이 되어야 한다。이것은 공부를 해서 전오식(前五識)을 굴려서 성소작지(成所作智)가 되고, 제육식(第六識)을 굴려서 묘관찰지(妙觀察智)가 되고, 제칠식(第七識)을 굴려서 대원경지(大圓鏡智)가 되면 사지(四智)가 원명해서 대용전창(大用全彰)이 되며 백련진금(百鍊眞金)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예전에 달마스님이 소림굴(少林窟)에서 九년을 묵언면벽(默言面壁)하시니, 혜가(慧可)스님이 도를 구하기 위해 소림굴 앞에 이르러 합장하고 서 있을 때, 밤에 눈이 많이 내려 무릎까지 쌓였었다。그 때 달마스님께서 돌아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제불의 무상묘도는 역겁(歷劫)에 정근(精勤)해서, 난행(難行)을 능행(能

行)하고 난인(難忍)을 능인(能忍)해야 되는 것、너 같은 소덕소지(小德小智)와 경심만심(輕心慢心)으로 어찌 도를 구할 수 있단 말이냐?』하니、혜가가 이 말씀을 듣고 구도(求道)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여 칼을 가지고 팔을 끊어 바쳤다。그후 공부를 성취하여 백련진금(百鍊眞金)、화중생련(火中生蓮)이 되어 동토(東土)에 전등 제二조(傳燈第二祖)가 되었던 것이다。

고인이 또한 말씀하기를『생야일병취모검(生也一柄吹毛劍)이요 사야일병취모금(死也一柄吹毛劍)이라』했으니、한 자루 취모검은 시방세계에 혁혁(赫赫)하게 빛이 나서 가는 곳마다 빛이요、힘이요、믿음이 되는 것이다。이런 경계에 들어가면 생사를 꿈에서도 보지 못할 것이니 사생육도(四生六途)가 어데 있을 것인가?

공부 하나 해결하는 것、이것 말고는 아무 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니 천천만만겁(千千萬萬劫)에 천생만사(千生萬死) 하더라도 오

직이 길 하나만을 위해서 노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범소유상(凡所有相)이 개시허망(皆是虛妄)이라, 형상이 있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서 이 지구도 삼천·대천세계도 필경에는 다 무너지고 마는 것, 하물며 잠시 왔다 가는 이 몸덩이가 어찌 실다운 것이겠는가? 그렇다면 필경에 어떤 것이 견고한 것인가? 게송을 읊으시되,

풍취불입(風吹不入)하고 수쇄불착(水灑不着)이라
호소풍생(虎嘯風生)하고 용음무기(龍吟霧起)로다.
「바람이 불어도 들어오지 못하고
물을 뿌려도 묻지 않음이라.
범 울음같은 바람이 나고
용 트림같은 안개가 일도다」.

다시 송하시되

이우(泥牛)는 토출(吐出) 해중일(海中日)하고
목마(木馬)는 제락(啼落) 서천월(西天月)이라。
산호지상(珊瑚枝上)에 비금오(飛金烏)하고
마노계하(瑪瑙階下)에 주옥토(走玉兎)로다

「진흙소는 바다 속에서 일월을 토해내고
나무말은 크게 울어 서천의 달이 떨어지네。
산호나무 가지 위에 금까마귀 날아가고
마노의 뜰 앞에는 옥토끼가 달아난다。」

이런 법문은 그저 알기가 어려운 것이니、인인개개(人人箇箇) 각자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성을 깨달아야만 서로 알게 되는 것이다。그러기에 고인이 송하기를

노봉검객(路逢劍客)이어던 수정검(須呈劍)이나
불시시인(不是時人)이면 막헌시(莫獻詩)라。

「길에서 검객을 만났다면 모름지기 일검을 들이대 볼 것이나
시인이 아니거던 시를 읊지 말지니라。」

『악!』 할을 하고 하좌하시다。

一拳倒黃鶴樓

주장자를 잡고 말씀하시되、

장두유안명여일(杖頭有眼明如日)하니

지출여래정법안(指出如來正法眼)이라。

「주장자 머리 끝에 눈이 있어 밝기가 일월 같으니

여래의 정법안장을 항상 드러내어 보이더라。」

대중은 상두관(上頭關)을 타파(打破)해서 향상일로(向上一路)

의 경지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공부를 마치는 것이다。

그래서 원오극근선사(圜悟克勤禪師)께서는

막괴종전다의기(莫怪從前多意氣)하라

타가증답상두관(他家曾路上頭關)이라。
「종전에 의기가 많다고 괴히 여기지 말라
타가는 일찌기 상두관을 답파했노라」

고 말했던 것이다。
그러기에 상두관을 답파하지 못하면 차별삼매(差別三昧)를 조금 안다고 하더라도 어디엔가 허물이 하나 붙어 가지고 전광석화(電光石火)와 같이 바로 보지는 못한다。그러나 상두관을 답파해서 참으로 향상일로의 경지가 있는 것을 바로 알면 불조가 거기에서는 실전조죄(失錢遭罪)하게 되며 이때 가서는 모든 법문을 알게 되는 것이다。
백운단선사(白雲端禪師)의 게송에 이르되

일권권도황학루(一拳拳倒黃鶴樓)하고
일척척번앵무주(一踢踢翻鸚鵡洲)라
유의기시첨의기(有意氣時添意氣)하니
불풍유처야풍류(不風流處也風流)로다。
「한 주먹으로 황학루를 꺼꾸러 뜨리고
한 번 차서 앵무주를 뒤집는지라
의기가 있을 때에 의기를 더하니
풍류가 없는 곳에 또한 풍류를 잡히도다。」

이것은 임제종(臨濟宗)의 종풍송(宗風頌)으로서 임제스님의 경지를 말해 놓은 것이다。 이 게송을 천하종사(天下宗師)들이 칭찬을 하며 말하기를 「임제종에서 정문정안(頂門正眼)의 종사(宗師)가 났다」고 했다。

그때에 황룡남선사(黃龍南禪師) 밑에 진정문선사(眞淨文禪師)가 있었는데 아직 공부가 미숙(未熟)했을 때 하루는 조실(祖室)인 황룡(黃龍)스님이,

『백운단(白雲端)의 송(頌)이야말로 임제종의 골수(骨髓)와 안목(眼目)을 그대로 드러내어 보였다』고 칭찬을 하니 진정문스님이 그말을 듣고

『저도 백운단스님의 견처(見處)와 같읍니다』했다。

황룡스님이,

『네가 백운단과 같다고 하니 한 번 일러 보아라』했다。

그래서 진정문스님이

『일권권도황학루(一拳拳倒黃鶴樓)

일척척번앵무주(一踢踢翻鸚鵡洲)』

하고 백운스님의 송을 말했더니 별안 몽둥이로 때리면서

『백운산은 옳거니와 너는 옳지 않다』고 하며 내쫓아 버렸다。

대중은 알겠는가?

양구(良久)하고 말씀하시되

황룡(黃龍)이 종사의 수단(手段)이 있지만 두상만만(頭上漫漫)하고 각하만만(脚下漫漫)이로다。〔넘치고 넘치는구나〕

「할」을 한 번 하시고 내려 오시다。

一手擡一手搦

홀연활개정문안(忽然豁開頂門眼)하면
영출광겁생사해(永出曠劫生死海)라

「홀연히 깨달아서 정문정안(頂門正眼)이 활짝 열리면
영원히 광겁(曠劫)의 생사해에서 뛰어나리라。」

그래서 다시는 생사고를 받지 않나니 이것을 견성(見性)이라하는 것이다。견성하기 전에는 아무리 법문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전로(前路)가 망망(茫茫)해서 올 적에도 어느 곳으로부터 왔는지 갈 적에도 어느 곳으로 향해 갈 것인지 캄캄하게 모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깨닫게 되면 진진찰찰화화초초(塵塵刹刹花花草草)가 모

두 조사(祖師)의 진기(眞機)며 제불(諸佛)의 가풍이 되어서 초목도 다 보리(菩提)가 된다。그래서 미하면 번뇌가 되고 깨달으면 보리(菩提)가 되나니, 보리가 곧 불(佛)이라, 생사가 영원히 없어지게 된다。

서래일구자(西來一句字)가 대천방혁혁(大千放赫赫)이라
요득저일구(了得這一句)하면 만겁장불매(萬劫長不昧)니라。
「서쪽에서 온 한마디 글자 대천세계에 항상 혁혁한지라
이 한마디를 요달하면 만겁에 길이 매하지 않느니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 쾌활한 즐거움은 어디에다 비유할 수가 없는 것이다。이렇게 좋은 공부를 진지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드물다。혹, 공부 한다 하더라도 동으로 가라 하면 서로 가고 서로 가라 하면 동으로 가서 자꾸만 어긋난 짓을 하는

데 이것은 광겁(曠劫)으로 부터 생사해(生死海) 속에서 너무 오랫 동안 미(迷)하고 또 미해서 업장(業障)이 심중(深重)하고 캄캄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다시 발심(發心)에 갱가(更加)발심해서 대용맹심으로 공부를 한다면 직하(直下)에 해결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고인이 말하기를

『설봉(雪縫)、설봉、설봉한데 설봉리(雪縫裡)더라』했다。 눈이 가득차게 내려서 전세계가 어디를 가던지 눈 아닌 곳이 없는데 이런 눈속에 묻혀 있으면서 눈(眼)이 미해서 눈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다。

또 『월만(月滿)、월만、월만한데 월만리(月滿裡)더라』하였는데 중추보월(仲秋寶月)같은 밝은 달이 떠 있으니 천삼라(天森羅) 지만상(地萬像) 전체가 다 달빛이요 달인데、그 달빛 속에 파묻

혀 있으면서 달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무슨 짓을 하던지 공부를 애써해서 어쨌든지 깨달아야만 할 것이다。 깨닫기만 한다면 『금저도취비로정(金笛倒吹毘塵頂)하고 대천세계치태평(大千世界致太平)이라』 〔금으로 만든 피리를 비로정상에서 꺼꾸로 불고 대천의 무진세계가 다 태평을 이루더라〕 또 『석인취무귀은하(石人醉舞歸銀河)하고 목녀기호래천태(木女騎虎來天台)로다』 〔돌사람은 술취해 춤을 추며 은하계로 돌아가고 나무로 된 여자는 범을 타고 천태산으로 오더라〕 한 것이다。

이 법문을 깨달으면 낱낱이 모두가 축착합착(築着磕着)이 되는 것이다。

요즘 『알았다』고 하는 납자가 더러 있는데 이것은 모두 어딘가에 병통이 붙어있는 것이다。 조금 알았다고 해서 견문각지(見聞覺知)와 소소영영(昭昭靈靈)한 것을 가지고 이것이 『나다』 『주인

공이다』 한다면 크게 그르치는 것이니 이런 것을 『인적위자 (認賊爲子)』라 하는 것이다。 비유컨대 녹이 낀 무쇠를 가지고 진금(眞金)이라 우기는 사람과 똑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인은 누구나 육근육식(六根六識)의 미분전(未分前)을 투과(透過)해야 만 한다。 그래서 정식(精識)의 경계에서 분별하고、 알고、 고요한 것 같고、 맑아진 것 같고、 깨끗한 것 같기도 한 육근문두(六根門頭)에 호구광영(戸口光影)의 정해정식(情解情識)을 가지고 『나의 본래인(本來人)이다』 하는 사람은 불법을 꿈에도 보지 못한 것이니 이런 사람은 정법안장(正法眼藏)은 고사하고 무정설법경계 (無情說法境界)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옛날에 동산양개화상(洞山良介和尙)은 경、 율、 론、 삼장을 다 통달 했으나 『약방문(藥方文)은 약(藥)이 아니라』 하고 사교입선(捨敎入禪)하여 그 당시에 유명한 혜충국사(慧忠國師)를 찾아 갔

었다。국사는 백애산(白崖山)에서 四十년을 내려오지 않고 계셨는데 나중에 현종(玄宗)、대종(代宗)、숙종(肅宗)、 삼대천자(三代天子)가 청해서 국사(國師)로 모셨었다。국사를 찾아가서 무정설법을 물었으나 무슨 말씀을 해 주시는지 도무지 알아 들을 수가 없었다。그래서 여기는 인연이 없는가 보다 하고 千五百명 대중을 거느린 위산선사(潙山禪師)를 찾아 갔다。거기 가서 또한 무정설법을 물어 보았으나 역시 시원치않고 무슨 말씀인지 캄캄 절벽이라、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나중에 운암선사(雲岩禪師)를 찾아가서 거듭 무정설법을 물었더니 운암스님 말씀이 『네가 미타경(彌陀經)을 보았느냐?』『예、보았읍니다』『미타경에 보면 「극락세계에 팔공덕수(八功德水)가 있어서 항상 염불(念佛)、염법(念法)、염승(念僧)을 하고 또 앵무새、가릉빈가 같은 기묘한 잡색의 새들이 모두 주야로 화아음(和雅音)을 내어서 염불、염법、

염송을 하고 그 뿐 아니라 모든 보행수(寶行樹)와 보라망(寶羅網)이 중중(重重)으로 펼쳐져 있는데 여기에 미풍(微風)이 불면 모두 미묘음(美妙音)을 내어서 항상 염불, 염법, 염승을 한다」 하지 않았느냐?』 동산스님은 여기에서 무정설법을 깨달았던 것이다.

이 법문에서 불과 법은 체(體)가 되고 승(僧)은 용(用)이 되는 법의 정지가 있다. 이것은 극락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바세계(娑婆世界)도 삼라만상(森羅萬像) 정여무정(情與無情) 두두물물(頭頭物物)이 무엇이든지 항상 법을 설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것을 무정설법이라 하는 것이다.

동산스님이 무정설법의 정지를 깨달아서 춤을 추며 노래하기를

야대기야대기(也大寄也大寄)로다。
무정설법(無情說法)이 부사의(不思議)라
약장이청(若將耳聽)하면 종난회(終難會)요
안청무정(眼聽無情)하여야 방득회(方得會)니라。

「기특하고 기특하도다。
무정설법은 부사의 할세
귀를 가지고 들으려 하면 마침내 알 수 없을 것이요
눈으로 무정설법을 들어야만 바야흐로 알 수가 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무정설법을 알았지만 공부를 다해 마친 것은 아니다。

그 후에 동산스님이 운암스님에게 묻기를 『화상백년후(和尚百年後)에 홀유인(忽有人)이 문(問)하되 환막득사진부(還邈得師眞

否)아 하면 어하지대(如何祗對)맛고』〔스님이 돌아 가신 후에 누가 와서「어떤 것이 스님의 참면목입니까」하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하니 운암스님이 아무말 없이 앉아 있다가『지저시(只這是)니라』하고 말했는데 이 말에 퍽 마음 쓰였다. 동산스님이 무정설법은 알았지만「지저시(只這是)」에 마음서 三번이 절했다. 하루는 돌다리를 건너 가다가 물에 비친 자기 그림자를 보고 그 뜻을 깨달아 마쳤다. 그래서 운암스님의 법을 이었고 운암스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제사(祭祠)를 지냈다.

하루는 진영전(眞影前)에 공양을 올리고 있는데 어떤 스님이 와서『운암스님이「지저시(只這是)」라고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하고 물었다. 동산스님은 말씀하기를『내가 당시에 선사의 뜻을 미처 알지 못했었노라』고 하였다. 다시 묻기를『미심(未審)커라. 운암스님이 알았읍니까, 몰랐읍니까?』하니, 동산스님이 『만약

알지 못했으면 어찌 이와 같이 일렀으며 만약 알았을진댄 어찌 이와 같이 이르기를 즐겨 했으리요』하셨다。이 뜻은 만약 알지 못했으면「지지지」라고 하지 못했을 것이요 만약 알았다면「지지지」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인데 여기에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다。

다시 이에 대한 법문이 있으니 백운단선사(白雲端禪師)에게 남방에서 온 한 스님이 묻기를『식즉명식(識即明識)하고 득즉명득(得即明得)이니다』(알기도 밝게 알았고 얻기도 밝게 얻었읍니다) 하니『그렇기는 그렇지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여기에서『그렇지만 아니다』라는 이것을 바로 알면 아까 동산스님이 말한 법문을 다 알게 되는 것이다。

이런 법문을 제불제조가 종종으로 베풀어서 千七百공안(公案)도 되고 항사법문(恒沙法門)으로도 되어 있는데 우에 법문 몇가

지만 할 것 같으면 일체를 다 알아 마치게 되는 것이다。즉 일기(一機)를 투득(透得)하면 천기만기(千機萬機)를 투득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또 일오(一悟)하면 일체오(一切悟)하고 일증(一證)하면 일체증(一切證)이라 하는 이런 법문에는 법의 기용(機用)이 있고 혹은 체용(體用)이라고도 한다。또 수방(收放)이 있고 활구(活句)、사구(死句)가 있고 종탈(縱奪)이 있는 것이다。

다시 하나 예를 들자면 암두스님이 덕산스님께 가서 한 쪽 발은 방안에 들여놓고 또 한 쪽 발은 바깥에 내놓고는 묻기를『시범(是凡)가、시성(是聖)가』하니 덕산스님은 크게 할을 했고 암두는 들어가서 덕산스님에게 절을 했다는 법문이다。

그런데 이 말이 동산양개화상의 귀에 들어가니 동산스님이 말하기를『약불시활공(若不是豁公)이면 대난승당(大難承當)이로다』〔만약 암두가 아니었으면 크게 알아 받기 어렵다〕고 했다。이 말

이 다시 암두의 귀에 돌아오니 암두스님은 말하기를 『동산노한(洞山老漢)이 불식호오(不識好惡)하고 착하명언(錯下名言)이로다。아당시(我當時)에 일수대(一手擡) 일수익(一手搦)이니라』〔동산노한이 좋고 궂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잘못 말씀을 하셨도다。내가 당시에 한 쪽 손은 올리고 한 쪽 손은 내렸었노라〕

「일수대일수익」이러한 법의 경지에는 살활종탈(殺活縱奪)과 수방자유(収放自由)가 있기 마련인 것이다。

장안만리백억토(長安萬里百億土)에
유암화명세월장(柳暗花明歲月長)이로다。
「장안은 만리길 삼천대천 세계에
푸른버들 밝은 꽃 세월은 길고 길다。」

古祖入道機緣

먼저 게송을 읊으시되

불조미생공겁전(佛祖未生公劫前)에
본체불타유무견(本體不墮有無見)이니라。

「부처님과 조사가 나기 전에
근본 당체는 유(有)와 무(無)의 양견에 떨어지지 아니 했더라」。

주장자로 법상을 세 번 치고 나서 『알겠느냐?』 하시고 다시게
송을 읊으시되

석인(石人)은 취옥저(吹玉笛)하고
목녀(木女)는 취무가(醉舞歌)로다。

「불로 만든 사람은 옥저대를 불고
나무로 된 여자는 취해서 춤추고 노래를 부르더라」

알겠느냐? 이러한 두가지 법문을 바로 알아서 깨달을 것 같이면 천하선지식의 수용처(受用處)를 분명히 다 알아서 그 분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게 된다。그렇게 되면 대장부의 할 일을 다 마쳐서 천상인간(天上人間)과 무량불가설세계(無量不可說世界)에서 항상 임운등등(任運騰騰)하고 쾌활자재 할 것이며 곳곳에 항상 대법륜(大法輪)을 굴리고 대작불사를 하게 될 것이다。

예전에 천태산(天台山)에 삼대성인(三大聖人)이 있었는데 풍간(豊干)과 한산(寒山)과 습득(拾得)이라、습득이 하루는 마당을 쓸고 있는데 그 절의 사주(寺主)가 습득에게 묻기를

『너는 풍간선사가 주워 왔기 때문에 이름을 습득이라 하거니와

너의 본래성(本來性)은 무엇이냐』하였더니, 습득이 마당쓸던 빗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차수(叉手)를 하고 서 있거늘, 그 스님이 거듭 묻기를 『니필경성개십마(你畢竟姓介什麼)오』〔너의 본래 성이 무엇이냐?〕하니, 습득이 마당 빗자루를 집어 들고 가버렸다。

그 뒤에 명주포대화상(明州布袋和尙)이라고 응화성인(應化聖人)이 있었는데 그 스님은 자루에다 온갖 물건을 넣어서 항상 어깨에 메고 다니기 때문에 포대화상이라 했었다。

그 스님에게 누가 와서 묻기를 『여하시조사서래의 (如何是祖師西來意)닛고』〔어떤 것이 조사가 서(西)에서 온 뜻입니까?〕하니 포대를 땅에 내려놓고 차수를 하고 서 있었다。다시 묻기를 『지차외(祇此外)에 별갱유부(別更有否)아』〔다못 이것 뿐입니까, 따로 다시 무엇이 있읍니까〕하니 포대를 어깨에 메고 가버렸다。

여기에서 습득이나 포대화상이 똑 같은 모양을 해 보였다。

같은 예로 방거사(龐居士)의 딸 영조(靈照)가 있었는데 하루는 방거사가 출타한 뒤에 단하선사(丹霞禪師)가 찾아왔다。 단하천연 선사는 자주 방거사를 찾아와서 법을 서로 묻고-대답하면서 무생화(無生話)를 항상 설했던 터이다。 그 때 영조가 나물을 씻어 가지고 바구니에 담아서 이고 가다가 단하스님을 만났다。 단하스님이 『거사재마(居士在麼)아?』〔거사님 집에 계시느냐?〕 하고 물으니、영조가 이고 있던 나물 바구니를 땅에 내려놓고 차수(叉手)하고 서 있었다。 또 한 번 『거사재마아?』 하고 물으니 영조가 나물 바구니를 이고 집으로 돌아 가버렸다。

위에 말한 세 분은 똑 같은 삼매(三昧)와 똑 같은 법(法)을 썼는데 이 뜻을 알겠는가?

이와같이 모든 불보살과 조사들이 항상 정법을 보였지만 이 뜻은 그리 쉽게 알아지는 것이 아니다。 참으로 이 불법은 심심(深

深)하고 광대해서 범부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다。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 불(佛)이요、조사(祖師)요、선지식(善知識)이 되지만 깨닫지 못하면 중생이요、범부인 것이다。때문에 「미즉번뇌(迷即煩惱)요 오즉보리(悟即菩提)」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공부를 부지런히 해서 일언일구하(一言一句下)에 법문을 듣고 척 깨달으면 생사를 초월하고 무생보리(無生菩提)를증득(證得)하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육긍대부(陸亘大夫)라고 하는 이는 남전스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다가 『천지여아동근(天地與我同根)이요 만물여아동체(萬物與我同體)라 하니 야심기괴(也甚奇怪)니다』〔천지가 나로 더불어 한 뿌리요、만물이 나로 더불어 한 몸이라 하니 또한 심히 기괴합니다〕하고 말하니、그 때에 남전스님이 뜰 앞에 한송이 꽃을 가르키면서『대부야、시인(時人)이 견차일주화(見此一株花)를

여몽상사(如夢相似)니라』〔세상 사람들이 이 한송이 꽃을 보기를 마치 꿈과 같이 하느니라〕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

또 양대년(楊大年)이라는 거사(居士)는 자명(慈明)스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아 오도송(悟道頌)을 지었으니

팔각마반공리주(八角磨盤空裡走)하니
금모사자변작구(金毛獅子變作狗)로다
약인장신북두리(若人藏身北斗裡)하면
응수합장남신후(應須合掌南辰後)니라。
「여덟모로 된 갈아놓은 소반이 허공속으로 달아나니
금털의 사자가 변해서 개가 되더라
만약 사람이 북두속에 몸을 감추려고 한다면
모름지기 남쪽별 뒤에 가서 합장해야 하느니라」。

하였는데 무엇을 가지고 팔각마반(八角磨盤)이라 했으며 또 금모사자(金毛獅子)는 무엇인가? 여기에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조사나 거사들이 도(道)를 깨달아서 심심한 뜻을 제창(提唱)한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입을 열어서 자기 소견대로 지꺼리고 판단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백억건곤장안리(百億乾坤長安裡)에
석인목녀임자재(石人木女任自在)로다。
「백억건곤의 장안속에
석인과 목녀가 자유자재로 만락(萬樂)을 수용 하더라。」

擧揚(거량)

最善把針

師 行脚時에 一日 補綴衲衣次에 高峯禪師 來問하되 把針事는 作麼生고 하거늘 師 即以針으로 與高峯禪師肢肱하니 禪師 痛聲云 阿耶阿耶하거늘 又 再次 一針刺之하니 禪師 呵呵大笑云 這漢이 最善把針事로다 하시다。

스님께서 젊은 시절 행각 하실 적에 하루는 누더기를 깁고 있는데 박고봉스님이 와서 묻기를 『바느질은 어떻게 하는거냐?』하시기에 바늘로 냅다 고봉스님 다리를 찔렀더니『아야! 아야!』하시거늘 한번 더 찔렀더니 고봉스님이 껄껄 웃으시면서『그녀석 바느질 잘하는구나』하셨다。

巖頭密啓

時在甲午秋에 於漢城大覺寺에서 師ㅣ問田岡禪師云 如何是 巖頭密啓意旨닛고 하니 田岡禪師云하되 千聖도 也不識일세 吾亦不知니라 하거늘 師曰 蒼天蒼天이라 하며 開門出去하니 田岡禪師 呼喚云 你若不肯인댄 更道一句來하라 하거늘 師云 死馬針灸은 愚者所行이라하고 拂袖而去하다。

後日에 師問 眞際하되 巖頭密啓意旨如何오하거늘 眞際 答云하되 馬駒踏殺天下人하니 臨濟未是白拈賊이니다 하니 師 便休하시다。

때는 갑오년 가을 저 서울 대각사에서 스님께서 전강스님께 묻기를『암두스님의 밀계란 뜻이 무엇입니까?』했더니 전강스님 말

씀이 『일천성인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하시거늘 스님께서『아이고 아이고』。하시며 문을 열고 나오니 전강스님이 부르면서 『자네가 긍정 못하겠으면 다시 일러보라』하거늘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말에 침 놓고 뜸 뜨는 것은 어리석은 자나 할 짓입니다。』하고 떠나 오셨다。

뒷날에 스님께서 법제자 진제에게 묻되『 암두밀계의 의지를 어떻게 보는가?』하시거늘 진제가 답하되 『마조스님은 천하인을 답살했지만 임제스님은 아직도 백염적이 못됩니다。』하니 스님께서 더 묻지 않으셨다。

起死回生

師ㅣ 一日에 告衆云하시되 於此有一大屍身하니 頭在 非非

想天 上하고 足在 阿鼻地獄 裏하며 身滿 十方世界 中한데 還有衆中에 能此屍身으로 起死回生者麼아。一首座出衆云하되「和尙아」하니 師一應諾이어늘 首座 禮拜而退에 師云 獅子兒가 善能獅子吼로다。

스님께서 하루는 대중에게 고하시되『여기에 크고 큰 송장 하나가 있으니 머리는 비비상천 꼭대기에 닿아 있고 다리는 아비지옥 밑바닥에 버티고 있으며 몸둥이는 시방세계에 가득차 있다。만일에 이 대중속에 이 송장을 살려낼 자가 있겠는가?』하시었다。이때에 한 수좌스님이 나와서『큰 스님!』하고 불렀다。스님께서 응답하시니 수좌는 예배를 드리고 물러갔다。스님은 말씀하시기를『사자아가 잘 사자후를 하는구나』하셨다。

一拜再拜

師ㅣ一日에 陞座 良久次에 一首座가 出衆禮拜한데 師云「不是不是」라 하시니 首座가 再拜而退하니 師ㅣ默然便下座하시다。

스님께서 하루는 법좌에 올라가시어 묵묵히 계실 적에 한 수좌스님이 나와 예배를 드리니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안된다、안되!』라고 하심에 수좌가 다시 예배를 드리고 물러 섰더니 스님은 아무 말씀 없이 그냥 법상에서 내려오셨다。

南泉水牛

師擧南泉水牯牛話次에 一僧問하되 如何是隨分納些些底道理닛고。師答云 逢草喫草하고 逢水喫水니라。僧便禮拜而退하다。

스님께서 남전스님의 물소가 되어 간다는 이야기를 말씀하는 차제에 한 선객이 묻기를 『어떤 것이 분을 따라 드리는 잘잘한 도리입니까?』하니 스님께서 대답하시되『풀을 만나면 풀을 먹고 물을 만나면 물을 먹느니라』하셨다。그 선객이 예배드리고 물러갔다。

古澗寒泉

一日에 師問大衆云 古澗寒泉時에 如何오。一僧이 出衆答云 三三은˙九니다 하니 師又問하되 飮者는 如何오 하시니 其僧이 答云하되 三三은 九니다 하니 師云 如是如是니라 我衆은 目機銖錙이로다 하시다。

하루는 스님께서 대중에게 묻기를 『석간수 샘물이 졸졸 흐를 때 어떻다고 하겠는가?』한 스님이 나와서 답하기를 『三三은 九입니다』하였다。스님께서 다시 묻기를 『마시는 자는 어떨꼬?』하시니 그 스님 답이 『三三은 九입니다』하였다。스님께서 말씀하시되 『옳거니、과연 우리 대중은 안목이 저울대 같구나』하시었다。

百鳥啣花

師ㅣ 一日에 問僧云 牛頭가 未見四祖時에 爲什麼하야 百鳥啣花來오。僧云하되 相隨來니다 하니 見後에는 爲什麼하야 百鳥不啣花來오。僧云 相隨來니다 하니 師便微笑便休하시다。

스님께서 승에게 물으시되 『우두법융스님이 사조 도신대사를 만나기 전에는 어찌하여 여러 날짐승들이 꽃을 물고 와서 공양했던가?』한스님 답하되 『서로 따라 온 것입니다。』하니 『그렇다면 사조스님을 친견한 후에는 어찌하여 꽃을 물고 오지 않았는고?』그 스님이 답하기를 『서로 따라 온 것입니다。』 하였더니 스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고 더 묻지 않으셨다。

難擧全擧

一日에 師ㅣ問弟子眞際云하되 昔日에 法眼禪師가 因見俗人携兒到하고 問之不語에 頌云하되 兒年八歲에 問不解語하니 不是不語라 大法難擧니라 한데 後日에 白雲端禪師云하되 何不道不是不語라 大法全擧오 하니 道道하라 全擧가 是아 難擧가 是아 하시니

眞際答云하되 好與三十棒이니다 하니 師云 畢竟에 作麼生고。答云 冬至寒食이 百五日이니다 하니 師云 如是如是라 하시다。

하루는 스님께서 제자 진제에게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법안문익선사가 말 못하는 아이를 보고 계송을 읊으시되

「여덟 살 먹은 아이 물어도 말 못하니 이는 말 못함이 아니라

대도를 듣기 어려움 일세」라고 하셨는데 뒷 날에 백운단선사가 이 일을 가지고 말씀 하시기를「어찌 말 못함이 이르지 않음이 아니랴! 대도를 온전히 잘 들었네」라고 하셨으니「듣기 어려움 일세」가 옳겠는가「온전히 잘 들었네」가 옳겠는가、일러 보라』하시거늘 진제스님이 말씀드리되『저는 모두 삼십 방을 때리겠읍니다』하니、스님께서『필경에 어떻게 할 것인가?』물으니『동지와 한식 사이는 백오 일간입니다。』라고 이르니 스님께서『옳고 옳다』고 하시었다。

獅子一吼

春城和尙이 問大衆云 深山窟中에 有一靑獅子하니 登山하야 忽遇獅子하면 如何卽是오 한데 衆中에 有老德하야 出衆

呼喚侍者云하되 進禮一拜하라 하거늘 後擧次話하야 問師하니 師即便震聲하야 作獅子吼하니 城嘆云 果是南方知識이로다 하다。

춘성스님이 대중에게 묻기를『깊은 산 굴 속에 한 마리 청사자가 있는데 산에 갔다가 홀연히 그 사자를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만 되겠읍니까』하였는데 그때 대중 속에 한 노스님이 나오셔서『시자야、절을 한 번 해라』고 했는데、그 뒤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스님에게 물었더니 스님께서는 문득 소리를 내시어「사자의 울음소리」를 내시니、춘성스님이 찬탄하면서『과연 남방 선지식이라』고 하였다。

瞎却萬人

高峯和尙이 將欲上堂次에 金烏禪師가 出衆하야 便執衣袖云하되 先請直下一句語하고 而然後에 登壇去하소서 한데 高峯云 放下放下하니 師擧此話하야 問眞際云 汝若在當時런들 如何答之오 하신데 眞際가 便喝하니 師云 汝若恁麼인댄 瞎却萬人去在로다 하거늘 眞際云 小僧罪過니다 하니 師云 老僧罪過로다 하시다。

고봉스님께서 법상에 올라가시려 하는데 금오스님이 나와서 옷자락을 잡으며 『올라가기 전에 한마디 이르고 가시요』 하니、 고봉스님이 『놔라! 놔라!』고 하셨는데、 스님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법제자 진제스님에게 묻기를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시거늘 진제스님이 문득 「할」을 했더니 스님 말씀이 『네가 정말 그렇다면 만인을 눈멀게 할 것이다』 하시기에 진제스님이 말하기를 『소승의 허물입니다』 하니、 스님께서도 『노승의 허물이니라』고 하셨다。

師資問答

一日에 眞際詣師前하야

問曰：和尙은 提唱誰家曲이며 宗風은 嗣阿誰닛가?

答曰：雲峯承一句하야 永劫用不盡이니라。

進云：此外에 別有句麼아?

答曰：腰纏十萬貫하고 獨步乾坤外니라。

進云：如何是和尙一句닛고?

答曰：泥牛一聲天地驚하니 從此佛祖起骨堆니라。

進云：如何是奇特事닛고?

答曰：纔擧一便得七이니라

進云：如何是最初句닛고?

答曰：釋迦彌勒遭塗炭이니라。

進云：如何是末後句닛고?

答曰：閃電光裡打筋斗니라。

進云：如何是如來禪이닛고?

答曰：明眼衲僧落深井이니라。

進云：如何是向上句닛고?

答曰：佛祖倒退火裡天이니라。

進云：如何是向下句닛고?

答曰：石人騎鐵牛하야 疾走碧玉界니라。
進云：如何是轉身句닛고?
答曰：三頭六臂漢이 含吐任自在니라。

하루는 진제스님이 스님앞에 나와서

문：스님께서는 뉘 집 노래를 부르시는 것이며 누구의 종풍을 이었나이까?

답：운봉스님 일구를 이어받아서 영겁에 쓰고도 다하지 않느니라。

문：이 밖에 별다른 한마디가 있읍니까?

답：흰구름에 섬만 관 돈을 두둑이 차고 하늘에나 땅에나 저밖에 마음대로 놀러 다니다。

문 : 화상의 말씀 한마디를 들려 주십시오.

답 : 진흙소 한 울음에 천지가 깜짝 놀라 부처고 조사고 모두 죽었습니다.

문 : 기특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답 : 하나만 들면이면 일념을 얻니다.

문 : 어떤 것이 최초의 한마디 입니까?

답 : 석가와 미륵이 도탄에 빠졌니다.

문 : 어떤 것이 말후의 한마디 입니까?

답 : 번갯불 속에 곤두박질 치니다.

문 : 어떤 것이 여래선 입니까?

답 : 눈밝은 납자가 잡은 우물에 빠짐이니다.

문 : 어떤 것이 향상의 한마디 입니까?

답：불조사가 불속으로 꺼꾸러져 갔느니라。

문：어떤 것이 향하의 한마디 입니까?

답：돌사람이 무쇠소를 잡아타고 벽옥의 저 세계로 달아났느니라。

문：어떤 것이 전신하는 한마디 입니까?

답：머리가 셋 팔 여섯 가진 놈이 삼키고 뱉음을 자재로 하느니라。

機緣語句

僧問하되 大道無門時에 如何닛고?

答曰：低聲低聲하라。

又問：如何是 低聲低聲意旨닛고?

答曰：東西百億界요 南北十億土니라。

問云：如何是 趙州庭前栢樹子意旨닛고?

答曰：猛虎口中作活計하고 蒼龍窟裡打筋斗니라。

問云：如何是 趙州無字意旨닛고?

答曰：魔倒佛走하고 八脚七手니라。

問云：如何是 雲門乾屎橛意旨닛고?

答曰：金烏夜半徹天飛하니 天上人間無等匹이니라。

問云：如何是 洞山麻三斤意旨닛고?

答曰：鐵牛驚走過西天하고 須彌夜半渡恒河니라。

問云：如何是 和尚境界닛고?

答曰：文殊堂裡飛金烏하고 觀音院裡走玉兎니라。

問云：如何是 和尙下事낫고?

答曰：鐵鎚擊碎蒼龍窟하니 金毛獅子變作狗니라。

問云：如何是 佛이낫고?

答曰：石裡火面이니라。

問云：如何是 祖師낫고?

答曰：火裡石面이니라。

問云：如何是 祖師西來意낫고?

答曰：火裡作土馬니라。

問云：如何是 諸佛出身處낫고?

答曰：兎角橋上走鐵牛니라。

問云：如何是 定이낫고?

答曰：動中無動相이니라。

問云：如何是 大解脫이냇고？

答曰：泥牛渡恒河니라。

問云：如何是 大寂三昧냇고？

答曰：昔日金鳳入北斗러니 直至如今無消息이니라。

問云：如何是 不昧本身이냇고？

答曰：金剛眼裡藏寶劍이니라。

문：대도는 문이 없다 하니 무슨 뜻입니까？

답：쉬！쉬！ 말조심 해라。

문：쉬！쉬！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답：동쪽 서쪽이 백억세계요、남쪽 북쪽이 십억 국토니라。

문：조주스님의 「뜰앞에 잣나무」 뜻이 무엇입니까？

답：맹호의 아가리에 살림 차리고 푸른 용의 굴속에서 곤두박질 합니다.

문：조주「무」자 뜻은 무엇입니까?

답：다람쥐는 자빠지고 바위는 달아나고 손과 발이 펄펄펄 혼이 상봉 합니다.

문：운문화상의「간시궐」이라는 무엇입니까?

답：밤에 해가 아랍종에 하늘에 뜨니 천상에나 인간에 짝할 이 없다.

문：동산수초선사의「마삼근」이라는 무엇입니까?

답：마최소가 놀라서 서천으로 달아나고 수미산이 아랍종에 항하강을 건너갑니다.

문：어떤 것이 화상의 경계입니까?

답 : 문수보살 집에서 해가 떴으며 관음보살 집에서 달이 지느니라。

문 : 어떤 것이 화상의 일상 하는 일입니까?

답 : 쇠망치로 창룡의 굴을 쳐부셨으니 금털가진 사자가 개로 변해 갔느니라。

문 :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답 : 돌속에 불같은 얼굴이니라。

문 : 조사란 어떤 것입니까?

답 : 불꽃속에 돌같은 얼굴이니라。

문 :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답 : 불속에 흙말을 굽느니라。

문 :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이 출신하신 곳입니까?

답 : 토끼뿔 다리 위에 무쇠소가 달음질 치나니라。

문 : 선정이란 무엇입니까?

답 : 동하는 가운데 동하는 모양이 없는 것이니라。

문 : 대해탈은 어떤 것입니까?

답 : 진흙소가 황하강을 건넘이니라。

문 : 대적 삼매가 무엇입니까?

답 : 옛날에 봉황새가 바다로 들어가더니 지금까지 까마득히 소식이 없다。

문 : 어떤 것이 본심을 매하지 않는 것입니까?

답 : 금강이 눈동자 속에 보검이 감춰져 있나니라。

頌句（含子）

(五言)

西來一句

西來一句字　大千光赫赫
了得這一句　萬劫長不昧

서역에서 왔다는 한마디 법문
삼천대천 세계에 빛이 번쩍 하구나。
만약에 이 한마디를 요달해 버린다면
천천만만겁에 기리 매하지 않으리라。

圓相佛性

圓相諸佛性 淸虛一片心
性心俱忘處 泥牛水上走

둥근 원상을 불성이라 한다면
맑고 빈 것을 일심이라 이름할까。
불성과 일심을 함께 잊어버린 곳에
진흙소가 물위에서 달아 나리라。

打破乾坤

打破乾坤句　放出百億身
一一看得來　前三後三三

건곤을 타파하는 법문 한마디
천백억 화신을 방출하도다。
낱낱이 자세히 살피고 보니
앞에도 三三이요 뒤에도 三三이라。

庭前栢樹

趙州庭前栢　萬古投初機
龍宮未曾有　古今驚天地

「뜰 앞에 잣나무」라 조주의 화두
천만고 초심자에 주어 참구케 하니。
팔만장경에도 있지 않던 일
고금천지 인비인이 깜짝 놀라네。

又

若人便得會　乾坤無伴侶
西湖清風吹　東天鴈橫飛

누구든지 이것을 문득 얻어 알아채면
하늘에나 땅에나 짝할 이 없고
서쪽 호수에 청풍이 솔솔 불고
동쪽 하늘에 기러기가 나르는걸。

面南看北

東西諸聖師　面南看北斗
敎外玄旨　接人上師
更立權門　接引群迷

동서의 많고 많은 모든 성사들
남쪽으로 향하시어 북두를 보시었네。
교법외에 깊은 현지로
상상근기를 제접하고
다시 세운 방편문으로
모든 중생을 접인 하시다。

五臺寶宮

偶然入五臺　身登寶峰頂
喝倒寂滅宮　踢翻毘盧海
彈指三千界　口吐百億身

우연히 오대산에 들어 왔더니
이 몸은 보봉정에 올라 서 있네。
일 할에 적멸궁은 무너져 버리었고
한 발길에 비로해는 뒤집혀 버렸도다。
삼천대천 세계를 튕기고
백억화신을 토하노라。

桃李舍利

阿度奉舍利　萬法此中明
須彌頂上　大海波心

아도스님 모신 사리
만법이 이 속에 밝다。
수미의 정상인가
대해의 파심인가。

又

來無所來　桃李千秋白
去無所去　洛東萬年青
鐵樹開花　木馬三聲

와도 옴이 없음이여、 도리는 천주에 희고
가도 감이 없음이여、 낙동은 만년을 푸르네。
무쇠나무에 꽃이 피고
나무 말이 세 번 울다。

白鳥長江

白鳥下長江　紅霞生遠天
手把明月頭　遠看天邊鶴

백조는 장강에 내려 오는데
붉은 안개는 먼 하늘에서 피어오르네。
밝은 달 한쪽 끝을 손으로 잡고
멀리 멀리 하늘가에 나는 학을 바라 보다。

又

忽聞夜鍾聲　歸來三更晩
嚴然坐禪床　秋月落西天

홀연히 한밤중에 종소리 듣고 나서
돌아오다 삼경이라 늦어 버렸네。
문닫고 좌선상에 엄연히 앉았더니
가을 달은 서쪽하늘 저넘어로 넘어갔네。

又

夜去朝日來　烏飛又兎走
白雲江上去　緣水岩前來

밤이 가니 아침이 오고
까마귀는 날고 토끼는 뛴다。
흰구름은 강물위로 날라서 가고
푸른물은 바위앞에 흘러 오누나。

〈七 言〉

忽見兩手(悟道頌)

忽見兩手全體活　三世諸佛眼中花
千經萬論是何物　從此佛祖總喪身

도를 깨닫고

홀연히 두손보고 전체가 들어났네。
삼세의 제불들이 눈병에 허깨빈데
천경과 만론들은 이게 다 무슨 물건
이로 좇아 불조사가 상신실명 하였구나。

又吟

鳳岩一笑千古喜　曦陽數曲萬劫閑
來年更有一輪月　金風吹處鶴唳新

다시 읊음

봉암사에 한번 웃음 천고에 기쁨이요
희양산 구비구비 만겁에 한가롭네。
내년에도 또 있겠지 수래같이 밝은 달
금풍이 부는 곳에 학의 울음 새롭고녀。

忽然豁開

忽然豁開頂門眼　永出曠劫生死海
杖頭能有電光機　拂下更在殺活用

홀연히 정문안을 활짝 뜨고 바라보니
광겁의 생사해를 영원히 벗어났네。
주장자 꼭대기에 번개빛 기틀있고
불자 아래에도 또한 살활기용이 있네。

虛空粉碎

虛空粉碎大地沈　無盡世界眼中幻
一句明明威音前　不落有無永不昧

허공이 부숴지고 대지가 없어졌네。
다함없는 세계들은 눈병에 꼭두각시。
한마디 분명하여 위음왕불 이전소식
유와 무에 걸리잖고 영원히 불매로세。

虛空骨中

虛空骨中石人剖木　大紅焰裡木女汲水
須彌東畔老猿嘯　海底青松鶴嚙月

허공의 뼈대속에 돌사람이 장작깨고
크게 타는 불꽃속에 나무여자가 물을 긷네。
수미산 동반에는 늙은 원숭이 휘파람소리
바다속 솔나무에 학이 달을 물고있네。

一條拄杖

一條拄杖掛青山　非心非佛亦非物
有人這裡透得過　塵劫圓明長不昧

일조의 주장자를 청산에 걸어놓고
마음도 아닌것을 부처도 물건도 아닌것을。
누구든지 여기에서 뚫어 얻어내기만 하면
미진겁에 원명하여 길이 매하지 아니하리。

趙州無字(無字頌)

趙州狗子佛性話　性性提起發眞疑
疑到身心頓忘處　三足金鱗飛天外

조주스님 말씀하신 구자 무불성 화두
성성하게 잡드려서 참 의심을 발했으리。
의심하고 의심하여 몸과 마음 잊는 곳에
세발 달린 금붕어가 하늘밖에 솟구치리。

扣骨禪和

扣骨禪和問趙州　庭前栢樹親提起
超佛越祖玆一句　作家老僧立命處

진정한 참선객이 조주에게 물었더니
「뜰앞에 잣나무」라 친히 가르쳐 주시었네。
불조를 뛰어넘는 이 말씀 한마디는
선지식 종장들의 안심입명처 일러야。

忽然打破

忽然打破上頭關　千重萬關都無疑
太陽光前無星月　天子殿中無貧兒

홀연히 상두관문을 타파 했나니
일천겹 일만관문 도무지 의심없네。
태양의 광명앞에 별과달 빛이 없고
천자의 궁전안에 가난한 아이 없네。

又

萬重荆棘透過後　剔起眉毛何處去
一條拄杖掛青山　白雲深谷一世經

일만겹 가시덤불 뚫어낸 다음
눈썹 곤두세우고 어디를 가노。
일조의 주장자를 청산에 걸어놓고
흰구름 깊은골에 한세상을 보내리라。

花紅柳綠

花紅柳綠最佳節　黃鸎枝上分明道
碧玉樓前吹金笛　江風五月落花飛

꽃이 붉고 버들푸른 춘삼월 호시절에
꾀꼬리는 나무에 앉아 분명히도 지저귀네
벽옥루에 걸터앉아 금피리를 빗겨 부니
오월달 강바람에 낙화가 훨훨지네

桃李感懷

阿度雪中現桃花　雲峰桃李示禪機
兩尊嚴然化去後　桃紅李白祖師意

도리사에서 느낌

아도스님 눈속에서 도화꽃을 나투셨고
운봉스님 도리사에 참선 기연을 보이셨네。
두 어른 계시다가 엄연히 떠나신 다음
붉은복사 흰오얏꽃 모두 조사의 뜻이로다。

雉岳山吟

即此見聞非見聞　無餘聲色可呈君
箇中若了全無事　體用無妨分不分

보고 듣고 하는것은 보고 들음이 아니로다 —
그 나머지 소리빛깔 모두 네게 줄것 없네。
이가운데 아무일도 없음을 요달하면
체와 용이 상관없네 나누거나 말거나。

伽倻山頌

伽倻山色古今嵬　悟道明師多少住
密密松栢連天碧　矗矗奇岩成龍龜

가야산색은 고금에 외외한데
도를 깨친 명안종사 몇분이나 계셨던가。
가득찬 송백나무 하늘에 이었는데
곧게 솟은 기암괴석 용과 거북모양일세。

四大本空

四大本空病自滅　六識非有無一法
三界幻化本無體　自性無住亦去來
分明了達如是理　生死去來常圓明

사대가 본공하니 병이 절로 없어지고
육식분별 하잖으니 한가지 법도 없네。
삼계 또한 꼭두각시 본래 자체가 없는것을
마음도 머물잖고 오지않고 가지않네。
분명히 이런 이치 요달해 버렸다면
나도 죽고 가고 옴이 항상 원명 적조하리。

一句當當

一句當當超百億　塵劫如如常獨露
珊瑚枝上飛金烏　瑪瑙階下走玉兎

한마디 당당하여 백억화신을 뛰어났네
미진겁에 여여하여 항상 홀로 드러났네。
산호나무 가지위에 금까마귀 날아가고
유리보석 층계아래 옥토끼가 달아난다。

三目石人

三目石人騎鐵牛　手把日月繞須彌
雲中木女牽石虎　千尋海底唱妙歌
若人會得這個意　獨步丹霄任自在

세눈 가진 돌사람이 무쇠소를 잡아타고
일월을 손에 잡고 수미산을 돌고있네。
구름속에 나무여자 돌호랑이 잡아끌고
천길의 바다속에 묘한 노래를 부르누나。
누구든지 이런 뜻을 알아차려 얻는다면
천상천하에 자재롭고 독보로 가고오리。

三頭六臂

三頭六臂自在漢　雲帆龍駕共醉歌
龍舞鳳歌意千般　花錦淸江萬里流

머리가 셋、팔이 여섯、신통자재 그 한 놈이
구름배에 용을 타고 술취해 노래하니
용이 꿈틀 춤을 추고 봉황새 노래로다
비단결 맑은강은 만리길 넘실넘실。

七珍八寶

七珍八寶滿沙界　一一拈來靈山會
百億世界現全身　指出如來正法眼

진귀한 보물들이 항사세계에 가득하니
낱낱이 영산회상 아님이 하나없네。
백억세계에 전신을 나타내고
여래의 정법안장을 지출하노라。

塵劫不動

塵劫不動常如如　何在人間粉然中
粉然自體空無住　石人夜聽木鷄聲
若人於此更無疑　刹刹塵塵上上禪

진묵겁을 부동하고 언제나 여여한데
어찌하여 인간들의 분주속에 있단말가。
분연한 그 자체가 텅비어 있지않고
돌사람이 한밤중에 목계소리를 듣는구나。
누구든지 이 가운데 다시 의심 없다 하면
찰찰진진 그대로가 상상선이 되올것을。

石人忽聞

石人忽聞金鷄聲　虛空粉碎大地沈
頓證無上大正覺　廣大無邊寶宮殿
永劫不休廣長說　無邊聽衆悟無生
長安萬里百億戶　一一堂中萬菩薩
塵塵刹刹轉法輪　家家門前日月長

홀연히 돌사람이 금계소리를 들을 적에
허공이 부서지고 대지가 잠기도다。
위 없는 대정각을 몰록 담박 증득하여
광대하고 가이없는 적멸의 보궁전에
영겁을 쉬지않고 광장설로 법문하니

가없는 청중들이 무생법인을 깨달아서
장안만리 백억호의 가정마다 집마다
낱낱이 방안에는 일만의 불보살이
진진찰찰 다하도록 무상법륜 전하오리
집집마다 문전에는 수명장수 하오리다。

達摩祖師(達摩頌)

清平世界起眼沙　無限人天被陸沈
從此風光偏天下　年年依舊終不休

평화로운 세계에 모래를 뿌림이여
무한한 인간천상 둘러꺼짐을 당하였네。
이로 부터 그바람이 천하에 두루차서
해마다 이 버릇이 그칠날 전혀없네。

又

板齒老漢欺東土　萬里青波一葉來
少林九年意未成　彊有痴人斷臂求

판치의 늙은이가 동토사람 속였네。
만리길 푸른물결 갈대잎 타고와서
소림굴 九년동안 뜻을 이루지 못하더니
어리석은 바보녀석 팔을 끊게하였네。

又

萬里靑波一葉來　少林九年傳本意
熊耳山中遺隻履　葱領路上現全身
無逢塔中了三處　靈鷲峰前笑呵呵
　蘇嚕悉哩吽啅

만리길 푸른물결을 갈대타고 오시어서
소림굴에 구년동안 본래 뜻을 전하시고。
웅이산 가운데는 한짝 신을 남겨놓고
총령도중 마루턱에 전신을 나투셨네。
무봉탑속에서 삼처를 마침이요
영축산 봉우리에 웃음소리 하하로다。
　소로시리 훔탁。

又

一拳拄杖打嶺頭　無限世界在杖中
全身不知歸何處　雲在嶺上月在天

주장자 한번 들어 고개마루 내려치니
한없는 저세계가 주장자 속에 있네。
전신은 알수없네 어데 계신지
구름은 고개위에 달은 청천에。

天心明月(慧可頌)

少林默坐九年外　雪裡芭蕉萬歲驚
斷臂一翻悟得後　天心明月落誰家

묵묵히 소림굴에 九년동안 앉았더니
눈속에 파초나무 만세에 놀랐다네。
팔을 끊고 한번 뒤쳐 깨달아 얻은다음
천심에 밝은달은 뉘집을 찾아갈고。

雲老行處(忌辰頌)

今朝二月二十九　踏到雲老行路處
是凡是聖都不著　毘盧頂外任東西
　咄咄　胡蘆嘫哩吽

　운봉선사 제삿날에
오늘은 이월달 그믐날인가
가실길을 떠나가신 운봉노사님
범부니 성현이니 아랑곳없이
비로정상 저 밖으로 자유자재 하시었네。
돌、돌、호로시리훔

哭香谷兄

哀哀宗門大惡賊아　天上天下能幾人고
業緣已盡撒手去하니　東家作馬西舍牛라
咄咄　甲乙丙丁戊己庚

道友 性徹

향곡형을 곡하며

슬프다 이 종문에 악한 도적아、
천상천하에 너같은 놈 몇일런가。
업연이 벌써 다해 훨훨 털고 떠났으니
동쪽집에 말이 되든 서쪽집에 소가되든。
돌、돌、　갑을병정무기경

도우 성철

序雲峰禪師語錄

雲峰禪師는 雲門庵中에 忽然打破向上關捩子하니 虛空粉碎하고 乾坤没沈하야 十方世界에 無纖毫滯締處하며 無纖毫纒縛處하야 死中便大活하야 毘盧頂上에 即得西來無文印하시니 佛祖의 百千公案과 天下老和尚의 深深三昧受用處가 一一洞然明白흠이 如對百千世界를 成一個清淨明鏡과 無異하시고 具頂門正眼하사 威音那邊에 更進一步하사 便用電光罔通하고 石火不及之機하야 踏斷千聖頂𩕳上하시고 直下現無邪之大用하사 或棒或喝하며 或擒或縱하며 或殺或活하며 或與奪하며 或收放하며 或要坐即坐하고 要行便行하고 要騎便騎하고 要下便下하며 或

十字街頭에 呵呵大笑하며 或萬及峰頂에 七縱八橫하며 或恁麼恁麼하며 或不恁麼不恁麼하며 或蒼天蒼天하며 或嘘嘘嘘嘘하며 或入泥入水하며 或撒塵撒沙호대 如金剛王寶劍하며 如踞地獅子하며 如擊石火하며 似閃電光하야 擬擬하면 喪身失命하고 纔開口하면 即云賊過後張弓이라하며 又云未免鬼窟裡活計라 하시니 心機意識과 思量分別로 湊泊不得이니라 古人云八角磨盤空裡走하니 金毛獅子便作狗로다 擬欲藏身北斗裡하면 應須合掌南辰後라하니 正是先師本意인가하노라

先師入滅二十八齋 癸丑卯月晦日

弟子 蕙 林 焚香

서 문

운봉선사는 운문암 중에서 홀연히 향상의 관려자(오도의 깊은뜻)를 타파하셨으니、허공이 부서지고 건곤이 침몰하여 시방세계에 털끝만큼도 맥히거나 걸림 없고、털끝도 얽혀 집착하심 없으시었다。

문득 죽음 속에 크게 살아나 비로자나의 정상에서 서래의 무늬 없는 인장을 얻으시니、불조사의 백천가지 공안과 천하 노화상의 깊은 삼매 수용하시는 곳을 낱낱이 환히 밝히시어 백천세계 대하기를 깨끗한 명경을 대한 것이나 다름 없게 되시었다。

정문에 정안을 구족하심에 위음왕불 이전에 한 거름 더 나아가 번갯불도 못 통하고 석화도 못 미치는 기틀을 쓰시어서、일천 성인의 정수리를 밟고 스시어 직하에 사심 없는 대용을 쓰셨으니、「방」도 주고「할」도 하고、거머쥐기도 놓기도 하고、죽이고 살림과 주고 빼앗음과 걷워드리고 벌려놓기도 하시었으니、앉이려면 앉고 서려면 서고、

을러타려면 타고 내리려면 내렸으며, 혹은 별 생각도 큰 길에서 「하
하 마시」를 하기도 하고 혹은 진봉 중단 집의 못에 자유자재 하였었다.
어떤 때는 그렇고 그러하시며 어떤 때는 그렇고 그렇지 아니하시며,
어떤 때는 「핫핫 핫핫」하시고 어떤 때는 「흥흥 흥흥」하시며, 어떤 때
는 저녁을, 어떤 때는 아침을 굶으셨으니, 금강경이 보검 같고 지혜
않은 사자 같고, 석화 같고 번개 같은 어려웠었다가는 목숨을 잃게 되
고 일을 망쳤었다가는 아이 놓아버렸었다. 그리고 귀신이 굴 속에 살
지 말라하시니,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저 보는 분별로는 알 바를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고인이 계송에,

영靈 모 난 다물이 하늘에서 났으니
금빛 빛난 사자도 보듯 개가 되는구나
불두꽃은 그 속에 숨어있고 하거든

남쪽의 제자중에 합장한 뒤에 하되。

하시었으니、바로 이것이 선사의 뜻이라고나 할까?

선사께서 가신지 사흘 만에는

제자 행렬은

향을 살으며서。

日陁上人答書

忽然一葉이飛隨庭前拾得一見歡喜無
比一塲樹掌呵々大笑元來九々八十一
文不加点烏飛兎走步行掉臂水長船高
風來草偃水到渠成一一壁立萬仞超凢
越聖鉄蛇橫古路彩鳳舞丹霄雖然如是
此事不在文字上不在言語上非草々非
小事過得故身命處死中得活底人始得
所以趙州古佛問投子大死底人却活時
如何投子云不許夜行投明須到趙州云
將謂猴白更有猴黑投子答處意徹底明
得去便作大丈夫三千里外得大活路一

切法無障無碍在生死中不在生死中在
火湯中不在火湯中在地獄中不在地獄
中在天堂中不在天堂中在極樂中不在
極樂中在三界中不在三界中在聲色中
不是聲色中在萬像中不是萬相中所以
云萬像之中獨露身唯人自肯乃方親昔
日謬向途中覓今日看來火裡冰爀々當
々覓々落々天上人間快活自在既為大
法王於法自在電光石火裡提唱西來宗
風有時語默動靜揚眉瞬目總不是有時
十字街頭七縱八橫有時高峯頂上把足
放行有時坐斷天下舌頭有時逐波逐浪

有時同生同死有時同生不同死有時𢈢
頭歸方丈有時入泥入水有時撒塵撒沙
行船只在把櫓人然雖如是日陁禪和子
了世界一周便入大白山作兜率主人此
外更有甚麽事出群須是英靈漢敵勝還
他師子兒把太白杖子下山僧久處至謙
至謙

妙觀音寺 土窟 香谷 參禪答

正月二十日

어머님께 보내는 글

훌륭한 편지 한 장을 어제 날라 왔다。 받아 보고 기쁜 마음 비할 데 없었다。

손바닥 한 번 치면 하하 대소하였으니 원래로 九九는 八十一이다。 눈을 씻어 점 하나 티끌 것 없이, 해가 비고 달이 지고, 철이 가고 철 흐르고, 물이 차고 배가 뜨고, 바람부니 물이 놀고, 물이 흐르니 구경이 좋으니라。 날날이 더 즐겨지는 절로 행하여 서 있는 듯, 보므로 생인도 조화롭이니, 마치 병이 허전해 버려 나갔고, 아름다운 봉황새가 하늘에서 춤을 춘다。 비록 그렇기는 그렇다 하나,

이 일은 문자상에 있는 것도 아니요, 언어상에 있는 것도 아니니, 정승을 명가지 말 것이며, 절로 찾을 일이 아니니라。

이 몸의 생명을 대용함이 된 곳에서, 죽음 속에 다시 살아나는 형제를 지켜하여 버려서 될 것이니다. 그러기에 전주시몬이 부자시몬께 묻기를,

『그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을 때 어떻다고 하십니까?』 하였더니, 부자시몬께서 말씀하시기를,

『몸 전을 다니지 말고, 말을 대해 어디다.』 하셨는데, 전주시몬이 말하기를

『원상이가 회다더니 다시 죽은 것도 있는가?』 하시었으니, 평기하여 부자시몬께서 말하신 뜻을 좋지하게 말하겠다면 마는 대장파의 살림을 다져, 생전도 부어 대화대를 열어서 일체법의 다함이 없고 절멸이 없게 될 것이다. 생사 통에 없어지며 생사가 없을 것이고, 화평 통에 없어서 화평이 없어져, 지옥이 지옥 없니고, 천당이 천당 없으며, 극락세계와 사바세계, 영계 천계 마

세계가 모두 다 아닐 것이며, 듣는 소리, 보는 빛깔, 삼라만상, 그 속에 있어서도 그것이 아닐 것이니, 그래서 고인이 이르시며,

만상 중에 홀로 드러난 그 몸이여
누구든지 긍정만 하면 곧 친해질 것을
옛적엔 길 못찾아 헤매었더니
오늘날 보전하니 불 속에 얼음일세。

라고 하셨던 것이 아닌가? 명명(밝고 밝고) 당당하며, 여여(높고 높고) 낙낙하여 천상 인간에 쾌활 자재하리니, 이 대법왕이 된지라 어법에 자약자재할 것이다。 전광 석화(번갯불 불빛) 속에 시계의 종방울을 제창하고, 약시하는 아목동정과 양미순목(눈썹을 찡긋하고 눈을 깜박)하는 것이 모두 옳지 아니하고, 약시하는 석자가마(영서자 글자라)에서 결승촬영(결산영촬산)하고, 약시하는

고봉정상에서 파정(입선)하고 방행(방선)하며, 유시에는 천하인의 설두를 좌단하고, 유시에는 물결을 따르고 파도를 좇아가며, 유시에는 같이 살고 같이 죽으며, 유시에는 같이 살되 같이 죽지 아니하며, 유시에는 머리를 숙이고 방장으로 돌아가며, 유시에는 진흙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는 자비를 베풀기도 하고, 유시에는 티끌을 뿌리고 모래를 헐는 지혜를 쓰기도 하나니, 배가 가는 것은 노를 잡는 사람에게 매인거와 같음이라。

그런데 비록 이렇기는 하지만, 일타선화자(수좌)는 이미 세계일주의 여행을 마치고 나서 태백산중에 들어가 도솔암의 주인이 되어 있으니, 이밖에 다시 무슨 일이 더 나은 일이 있으리요。 모름지기 영특하고 용맹스런 힘을 내어 사자아 같은 고조사들을 필적해서 이겨낸 다음 태백의 주장자를 잡고 내려와서 산승의 흠있

는 곳을 지적해 주기를 지극히 빌고 지극히 바라노라。

을묘년 정월 이십일

묘관음사 토굴에서

향곡은 꿈속 답장하노라。

碑文

香谷大宗師 行化碑

向上一句는 千聖도 不傳ㅣ不然이라 하니 熱盌鳴聲이요 鬼窟裡作活計로다。有時一句는 如金剛王寶劍이요 有時一句는 如踞地獅子요 有時一句는 坐斷天下人舌頭요 有時一句는 隨波逐浪이라。

師號는 香谷이요 尊諱는 蕙林이라 擊碎萬重關하고 打破佛祖窠窟하니 蘿籠不住요 獨步丹霄로다。有時에는 將一莖草하야 作丈六金身用하며 有時에는 將丈六金身하야 作一莖草用이로다。

禪師는 壬子年(西紀一九一二年) 正月 十八日에 慶尚北道 迎日郡 神光面 土城里에서 父 金元默氏 母 金寂靜行을 兩親으로 태어나니 이름은 震鐸이라 少時에 父母를 따라 절에 가기를 좋아하더니 드디어 十六歲에 仲兄을 따라 千聖山 內院寺에 入山하다。十八歲에 趙性月 스님을 恩師로 得度하니 法名은 蕙林이라 받고 二十

歲에 金井山 梵魚寺 金剛戒壇에서 雲峯禪師로부터 具足戒를 받다。
庚午年 當時에 千聖山 内院寺 祖室로 계신 雲峯 大善知識의 膝下에서 侍奉精進을 晝夜不分하더니 時晩秋之日이라 山谷突風이 打門에 忽爾一條古路를 廓徹貫通하니 所疑公案과 胸中滯碍가 豁然頓消하여 歡喜無盡하여 師ㅣ即入參雲峯老師하니 老師ㅣ即見코 木枕을 두고 한 마디 일러라 하시거늘 師가 即時 木枕을 차버리니 다시 한 번 일러라 하시거늘 千言萬語가 모두 夢中에 說夢이요 모든 佛祖가 나를 속였구나 하니 雲峯老師께서 大喜하셨다。甲申年 八月에 臨濟正脈燈燈相續을 付之하니 即 楊岐、密岩、太古、喚性、栗峰、鏡虛의 嫡傳이라 傳法偈曰 西來無文印은 無傳亦無受라 若離無傳受면 烏兎不同行하리라 하시고 賜號를 香谷이라 하시다。丁亥年 聞慶鳳岩寺에서 여러 道伴들과 精進하던 中 한 道伴이 묻기를 殺盡死人하면 方見活人이요 活盡死人하야사 方見死人이라

하니 그 뜻이 어떠한고 하거늘 몰록 無心三昧에 들어 三七日동안 寢食을 잊고 精進하다가 一日에 忽然히 兩手를 發見하고 豁然大悟하여 偈를 읊으되 忽見兩手全體活하니 三世佛祖眼中花로다。千經萬話是何物고 從此佛祖가 總喪身이로다。鳳岩一笑는 千古喜요 曦陽數曲은 萬劫閑이라 來年更有一輪月하야 金風吹處鶴唳新이로다。이로부터 不被天下老和尙의 舌頭瞞하고 任運騰騰하며 騰騰任運하여 天下叢林에 大獅子吼를 하다。그 後로 妙觀音禪院을 創院開院하니 淸風衲子가 如雲霧集이라。諸方이 迎請하야 仙岩、佛國、桐華、禪學院等에 二十餘載를 大建法幢하고 激揚宗風하니 門庭이 曠濶하고 機鋒이 險峻하여 殺活縱奪이 自由自在하다。그로 부터 丁未年 夏安居解制上堂默坐時에 眞際가 出衆하야 묻되、「佛祖가 아신 곳은 묻지 아니하거니와 佛祖가 알지 못한 곳을 和尙께서 일러 주십시요」하니 師云「九九는 八十一이니라」際云、「그것은

佛祖가 다 아신 곳입니다」하니 師云、「六六은 三十六이니라」하거늘 眞際가 禮拜하고 물러가니 師가 便下座하다。 다음날 際가 다시 묻기를 佛眼과 慧眼은 묻지 아니하거니와 如何是衲僧眼이닛고」 師答曰、「師姑가 元來女人做니라」하니 際云、「今日에야 禪師를 親見하였읍니다」 한즉 師께서 「너가 어느 곳에서 나를 보았느냐」 際云、「關」이라 하니 師曰 「如是如是니라」 하고 곧 臨濟正脈인 太古、鏡虛、慧月、雲峯、香谷으로 이어지는 法脈을 眞際에게 부치니 「佛祖大活句는 無傳亦無受라 今付活句時에 收放任自在로다」

그 後 月內妙觀音寺에 住錫해서 後學 指導함을 그치지 아니하다가 戊午年 臘月 十五日에 海雲臺 海雲精舍에서 涅槃偈를 남기니 「木人은 嶺上에 吹玉笛하고 石女는 溪邊에 亦作舞로다。 威音那畔에 進一步하니 歷劫에 不昧하고 常受用이로다」 하고 三日 後

인 十八日 寅時에 入寂하니 歲壽는 六十七이요 法臘은 五十이다。

昨日恁麼도 彌天過犯이나 今日恁麼는 事不獲已하야 第二門頭에 略述遺風하고 又成一偈하노니 偈曰 明明杲日은 麗天하고 颯颯淸風은 匝地로다。恁麼也是 不恁麼也是여 草木瓦石이 放大光明이요 恁麼也不是 不恁麼也不是여 三世諸佛이 倒退三千里로다。咄 白日은 繞須彌하고 紅霞는 穿碧海로다。

法弟子　眞際焚香謹撰

황극대성사 광화며

황상이 ᄒᆞᆫ마ᄃᆡ는 일쳔 ᄌᆞᆼ이로 쳔ᄒᆞᆯ 수 업고 어쩌지 못ᄒᆞᆫ다 ᄒᆞ니, 짧은 가마솥에 좁쌀 ᄉᆞ려여, 귀신이 놀ᄉᆞᆨ하 뎡명ᄒᆞ이라。 어느 ᄯᅢ ᄒᆞᆫ마ᄃᆡ는 금강역이 보졉갓고, 어떤 ᄯᅢ ᄒᆞᆫ마ᄃᆡ는 젼떠 않은 사자갓고, 어느 ᄯᅢ ᄒᆞᆫ마ᄃᆡ는 쳔ᄒᆞ인이 ᄒᆞᆷ뜰을 마치며 ᄒᆞ고, 어떤 ᄯᅢ ᄒᆞᆫ마ᄃᆡ는 파도를 바리고 물결을 좃음이라。

시골의 당와는 황덕이여, 퍼몽이 홍문이시다。 만쳡의 조사 관문을 젹쇄ᄒᆞ고, 불조라는 마야리를 타파ᄒᆞᆫ 이니, 영가고 셜쳐서 사시지 않고 고상ᄒᆞᆫ 체계를 노파ᄒᆞ시엿다。 어떤 ᄯᅢ는 ᄒᆞᆫ 줄기 풀로서 장양 금신 바친몸을 만들고, 어느 ᄯᅢ는 장양 금신을 가지고 ᄒᆞᆫ 줄기 초개를 만들어 쓰기도 ᄒᆞ엿다。

선사계서는 일자무 정엽 열경미ᄭᆡᆺ날에 정보 평이근 신광며 토

정리해서 팔아가지고, 아버지는 김원복, 어머니는 김정정흥, 이름은 진학이라 하였다. 어릴 때 부모를 따라 천해 가기를 좋아하였고, 비로소 十六세 때, 동생을 따라 청진의 부원선생 문하에 입학하여, 十八세에 청진여시고등을 이수하고 마치고 수계를 하였다. 二十세가 되어 남중학교 교원 남중계단의 가서 구술계를 받으니, 때는 정월이었다. 당시의 일본제국시대의 부원사의 조선인이라, 그 실정하여서 자유하며 정진하기를 반복을 가리지 않고 하였으니, 봄 가을 오니 날, 산골짝 들불이 들어서서 만찬을 들며, 흘러가 한 가면 현실의 화합이 열렸으니, 이정하던 화부 명하기 가서의 제 됐던 것이 흘렀던 않았지만, 그리고 실가양의 다함이 없었다.

시골에서 큰 아버지를 뵈오니, 서울에서는 부자 다자 부정을 다고 『한국말 일본말』하시지는 시골에서 속지의 부정을 들며 추포리고 『다시 할 말 일본말』하시기에 『전 모모 말, 말 부모 이

아기가 모두 다 꿈속에 꿈을 설함이니, 모든 불조는 나를 속인 것이니라』하니, 운봉노사께서 크게 기뻐하시었다。

잠시 후 스님께서 임제정맥, 법의 등불과 등불이 상속한 이 도리를 부촉하시니, 즉 향기, 명암, 태고, 환성, 율봉, 정공, 혜월스님까지 내려온 정법의 계통이다。 법을 전하는 게송을 지어 주셨으니

『서쪽에서 온 불법, 흔적없는 참 진리는
전할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나니
받고 전할 것 없는 이것을 떠나보리면
해와 달이 같이 가지를 않는 것이니라。』

그리고 당호를 내려주시니 『향곡』이라 하였다。

정해년에 이르러 문경 봉암사에서 성철 도반들과 함께 정진하던 중에, 한 도반이 묻기를 『「죽은 사람을 죽여 다하면 바야흐로

산 사람을 볼 것이요、또 죽은 사람을 살려 다하면 바야흐로 죽은 사람을 볼 것이다」한 말이 있는데、그 뜻이 무엇이겠느냐?』하거늘、여기에서 몰록 무심삼매에 들어가、三七일 동안 침식을 잊어버리고 정진하다가 하루는 홀연히 자기의 양 쪽 손을 발견하자마자 활연대오를 하셨으니、게송을 읊으시되

『홀연히 두 손을 보고 전체가 들어났네。
삼세의 불조들은 눈병에 헛꽃일세
천경과 만론들은 이 무슨 물건인가
이로 좇아 불조사가 상신 실명 하였구나。
봉암사에 한 번 웃음 천고에 기쁨이요
희양산 몇 곡조는 만겁에 한가롭다。
내년에도 둥근달은 다시 있겠지
금풍이 부는 곳에 학의 울음 새롭구나。』

이때부터 천하 노화상들의 말끝에 속지 않게 되었고, 임운등등하며 등등임운하여, 천하의 총림에서 대사자후를 하시게 되었다.
그 후로 묘광음선원을 창건하여 선방의 문을 여시니, 제방의 총풍납자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제방의 명철인 선승자, 불구자, 동학자, 선학인 등 여러 선승이 조실로 모시게 되어, 二十여년 동안을 크게 법의 깃을 세우고 종풍을 떨치시니, 문정(門庭)이 높고 가풍이 험준하여 살활종풍을 자유자재로 하시었다.

정묘년 여름 안거를 마치는 해제법문을 하시는데, 법제자 진제가 나와서 묻기를 『불조가 아신 곳은 묻지 않거니와 불조께서 알지 못한 곳을 일러 주십시오』하니,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九九는 八十一이니라』하셨다. 진제가 다시 『그것은 불조가 다 아신 곳입니다』하니, 스님께서는 『六六은 三十六이니라』하시니, 진제가

예배드리고 물러가니、스님께서도 그냥 법상에서 내려오셨다。다음날 진제가 다시 묻기를『불안(佛眼)과 혜안은 묻지 아니 하거니와 어떤 것이 납승의 안목입니까?』했더니、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비구니 노릇은 원래 여자가 하는 것이니라。』하시니、진제가 말하기를『오늘에야 비로소 큰스님을 친견하였읍니다。』하니、스님께서『네가 어느 곳에서 나를 보았는가?』진제가『관(關)』이라 하니、스님께서는『옳다。됐다。』하시고는 곧 임제정맥인 태고、경허、혜월、운봉、향곡으로 이어지는 법맥을 진제에게 부촉하시니、『불조의 대활구 법문은、전할 수도 받을 수도 없는 것이라。지금 활구법문을 부촉하노니、걷우거나 놓거나 네 뜻에 맡기노라』하시었다。

그뒤로는 월내의 묘관음사에 계시어서 후학을 제접하고 지도하시더니、무오년 섣달 보름날、해운대의 해운정사에서 열반게를 남

기시니

『나무 사람은 잿마루에서 옥피리를 부는데
돌여자는 시냇가에서 또한 춤을 추노라。
위음왕불 이전으로 한 걸음 나아가니
역겁에 매하잖고 언제나 수용하리。』

하시고 三일 후、十八일 인시에 엄연히 입적하시니、세수는 六十七이시고、법납은 五十년이시다。

어제 이렇게 한 것도 허물이 하늘에 넘칠 것인데、오늘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일이어서、제二의 문두에서 간략히 유풍을 기록한 것이며、끝으로 계송 하나를 부치노니、

밝고 밝은 아침해가 하늘에 비치는 듯
시원스런 맑은 바람 대지에 깔리는 듯
이렇게 해도 옳고

이렇게 안해도 옳으니
초목와석은 언제나 광명을 놓고 있네。
이렇게 해도 옳지 않고
이렇게 안해도 옳지 않으니
삼세제불이 꺼꾸로 삼천리나 물러감이라。
애돌타!
밝은 해는 수미산을 감돌고 있고
붉은 안개는 푸른 바다를 꿰뚫었도다。

법제자 진제는 분향하옵고 삼가씀。

傳法源流(전법원류)

中華祖師(중화조사)

第二十八 (중화초조) 菩提達摩(보리달마)—

第二十九 慧可大士(혜가대사)—

第三十 僧璨大士(승찬대사)—

第三十一 道信大士(도신대사)—

第三十二 弘忍大士(홍인대사)—

第三十三 惠能大士(혜능대사)—

第三十四 南嶽懷讓(남악회양)—

第三十五 馬祖道一(마조도일)—

第三十六　百丈懷海（백장회해））

第三十七　黃檗希運（황벽희운））

第三十八　臨濟義玄（임제의현））

第三十九　興化存奬（흥화존장））

第四十　南院道顒（남원도옹））

第四十一　風穴延沼（풍혈연소））

第四十二　首山省念（수산성념））

第四十三　紛陽善昭（분양선소）

第四十四　慈明楚圓（자명초원）

第四十五　楊岐方會（양기방회）

第四十六　白雲守端（백운수단）

第四十七　五祖法演（오조법연））

第四十八 圓悟克勤 (원오극근)

第四十九 虎丘紹隆 (호구소융)

第五十 應庵曇華 (응암담화)

第五十一 密庵咸傑 (밀암함걸)

第五十二 破庵祖先 (파암조선)

第五十三 無準圓照 (무준원조)

第五十四 雪巖惠朗 (설암혜랑)

第五十五 及庵宗信 (급암종신)

第五十六 石屋淸珙 (석옥청공)

我國源流 (우리 나라 원류)

第五十七 太古普愚 (태고보우)

第五十八 幻庵混修 (환암혼수)

第五十九 龜谷覺雲(귀곡각운)

第六十 碧溪淨心(벽계정심)

第六十一 碧松智嚴(벽송지엄)

第六十二 芙蓉靈觀(부용영관)

第六十三 淸虛休靜(청허휴정)

第六十四 鞭羊彦機(편양언기)

第六十五 楓潭義諶(풍담의심)

第六十六 月潭雪霽(월담설제)

第六十七 喚惺志安(환성지안)

第六十八 虎巖體淨(호암체정)

第六十九 靑峰巨岸(청봉거안)

第七十 栗峰靑杲(율봉청고)

第七十一　錦虛法沾（금허법첨）

第七十二　龍岩慧彦（용암혜언）

第七十三　永月奉律（영월봉율）

第七十四　萬化普善（만화보선）

第七十五　鏡虛惺牛（경허성우）

第七十六　慧月慧明（혜월혜명）

第七十七　雲峰性粹（운봉성수）

第七十八　香谷蕙林（향곡혜림）